

연구보고 2013-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머리말

연구 과제의 제목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영유아기와 학교폭력을 연결하는 것이 생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이 이후 학교폭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의지하여 개인의 내적 발달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4~5세 유아반 교사 50% 정도가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욕이나 비속어 등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약 40%의 학급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 간의 또래관계 환경을 이 시기에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후 초등학교에 가서 크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노력은 영유아기 인성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다. 오히려 알려진 바와 같이 유아교육이 가진 상대적 경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보여주는 조사 결과와 인성교육 모형, 그리고 정책 제안들이 국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본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심층 조사를 혀락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10개의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훌륭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분야 교수님과 원장님들, 또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2,000명이 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II. 연구의 배경	17
1. 영유아기 인성교육	17
2.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24
3.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정책 현황	31
III. 외국의 영유아기 인성교육	45
1. 미국	45
2. 일본	52
3. 핀란드	54
4. 시사점	56
IV.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 사례 분석	59
1. 우수 유치원 사례	59
2. 우수 어린이집 사례	72
3. 인성교육 우수 사례의 시사점	81
V.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와 요구	84
1.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84
2.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99
3.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126
4. 영유아 인성교육의 어려움과 요구 및 의견	147
V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	160
1.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개발의 필요성	160

2. 모형개발 절차	161
3. 영유아 발달 이론의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 고찰	162
4. 선행연구의 인성교육 모형들	164
5. 영유아기 인성교육 관련자 간담회 주요 내용	171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모형 제안	172
 VII.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175
1.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175
2.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78
 참고문헌	185
 Abstract	190
 부록	191
부록 1.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부모용	193
부록 2.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교사용	201

표 차례

〈표 I-3-1〉 영유아기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설문 조사 표본 현황	15
〈표 I-3-2〉 인성교육 우수 기관 사례 분석 대상	16
〈표 II-1-1〉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내용	20
〈표 II-2-1〉 학교폭력의 유형	26
〈표 II-2-2〉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	28
〈표 II-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	29
〈표 II-3-1〉 누리과정의 바른생활 습관 체득을 위한 실천행동 예시	33
〈표 II-3-2〉 지역별 인성교육 우수기관 선정 현황	35
〈표 II-3-3〉 전국 시·도 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현황	37
〈표 II-3-4〉 전국 보육정보센터 인성교육 사업 추진 현황	43
〈표 III-1-1〉 Second Step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50
〈표 III-1-2〉 Get Real About Violence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51
〈표 IV-1-1〉 대전 중앙유치원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62
〈표 IV-1-2〉 대전 중앙유치원의 교원 인성교육 활동	63
〈표 IV-1-3〉 대전 중앙유치원의 가정·지역사회 인성교육 연계	64
〈표 IV-1-4〉 제주 한라대부설유치원의 유아 인성교육 활동	71
〈표 IV-2-1〉 수정삼성어린이집 연령별 인성교육 활동의 예	78
〈표 IV-2-2〉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예	81
〈표 IV-3-1〉 인성교육 우수 사례 종합	83
〈표 V-1-1〉 응답자 특성	84
〈표 V-1-2〉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의미	86
〈표 V-1-3〉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	87
〈표 V-1-4〉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교사와 부모의 인식)	89
〈표 V-1-5〉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부모의 인식)	90
〈표 V-1-6〉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목적	91
〈표 V-1-7〉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주체	92
〈표 V-1-8〉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효과적 방법	94
〈표 V-1-9〉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	96

〈표 V-1-10〉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학교폭력과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관련성	97
〈표 V-1-11〉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인성 요소(교사와 부모의 인식)	98
〈표 V-1-12〉 따돌림 또는 배척 현상 관찰 경험	99
〈표 V-1-13〉 따돌림 또는 배척 성향을 지닌 영유아의 비율	100
〈표 V-1-14〉 따돌림에 대한 남녀 빈도	101
〈표 V-1-15〉 ‘공격성향 영유아가 있음’에 대한 동의 정도	102
〈표 V-1-16〉 공격성향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성별 차이 유무	103
〈표 V-1-17〉 공격적 행동을 하는 영유아의 성별 비교	103
〈표 V-1-18〉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영유아	104
〈표 V-1-19〉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영유아 수(비율)	105
〈표 V-1-20〉 영유아들의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 사용 유무	106
〈표 V-1-21〉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학급 내 비율	107
〈표 V-1-22〉 공격적인 성향 및 따돌림에 대한 교사 대처 효과성	108
〈표 V-1-23〉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109
〈표 V-1-24〉 활발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	110
〈표 V-1-25〉 문제아동 행동 지도 시 전문기관 도움 경험	110
〈표 V-1-26〉 행동 지도 시 전문기관 도움 찬성 유무	111
〈표 V-1-27〉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113
〈표 V-1-28〉 인성교육 진행 방법	114
〈표 V-1-29〉 인성교육의 내용(복수 응답)	115
〈표 V-1-30〉 인성교육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	116
〈표 V-1-31〉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배려’ 교육 정도	117
〈표 V-1-32〉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 교육 정도	118
〈표 V-1-33〉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협력’ 교육 정도	119
〈표 V-1-34〉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나눔’ 교육 정도	120
〈표 V-1-35〉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질서’ 교육 정도	121
〈표 V-1-36〉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효’ 교육 정도	122
〈표 V-1-37〉 인성교육을 위한 참고자료	123
〈표 V-1-38〉 인성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경험 유무	124
〈표 V-1-39〉 교육 주최 기관	125
〈표 V-1-40〉 교사가 경험한 인성교육 강좌명	126

〈표 V-2- 1〉 자녀양육에서 가치를 두는 요소	127
〈표 V-2- 2〉 온 식구 식사 빈도(평일: 총 15회 중)	128
〈표 V-2- 3〉 온 식구 식사 빈도(휴일: 총 6회)	129
〈표 V-2- 4〉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평일)	130
〈표 V-2- 5〉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휴일)	131
〈표 V-2- 6〉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평일)	132
〈표 V-2- 7〉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휴일)	133
〈표 V-2- 8〉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어머니)	134
〈표 V-2- 9〉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아버지)	135
〈표 V-2-10〉 예절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 시 대처방안	136
〈표 V-2-11〉 자녀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	137
〈표 V-2-12〉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138
〈표 V-2-13〉 인성교육의 방법 1: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 지도	139
〈표 V-2-14〉 인성교육의 방법 2: 행동규칙, 공중도덕 준수 등의 지도	140
〈표 V-2-15〉 인성교육의 방법 3: 도덕적 교육을 주는 이야기 또는 책읽기	141
〈표 V-2-16〉 인성교육의 방법 4: 바람직한 행동의 모범을 보임	142
〈표 V-2-17〉 인성교육의 방법 5: 역사나 문학, 종교 속의 위인 이야기를 해줌	143
〈표 V-2-18〉 인성교육의 방법 6: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줌	144
〈표 V-2-19〉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145
〈표 V-2-20〉 가장 만족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성교육 내용(중복 응답)	147
〈표 V-3- 1〉 인성교육 실천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교사의 응답	148
〈표 V-3- 2〉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	149
〈표 V-3-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주요 내용	150
〈표 V-3- 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151
〈표 V-3- 5〉 가정에서 인성교육 시 어려운 점	152
〈표 V-3- 6〉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153
〈표 V-3- 7〉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154
〈표 V-3- 8〉 기관 인성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여 의향	155
〈표 V-3- 9〉 유치원·어린이집이 강조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내용	156
〈표 V-3-10〉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157
〈표 V-3-11〉 가정에서 영유아기 인성교육 시 우선과제	159

그림 차례

[그림 I-3-1] 연구 수행 절차	16
[그림 II-1-1] 선행연구의 인성교육 내용 범주	22
[그림 II-3-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제 ..	34
[그림 III-1-1]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핵심 역량	47
[그림 III-1-2] CASEL SEL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	48
[그림 V-1-1]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유아)	112
[그림 V-1-2]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영아)	112
[그림 VI-2-1]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개발 절차	162
[그림 VI-4-1] Thomas Lickona의 인성 구성 모형	165
[그림 VI-4-2] 김영옥의 인성 구성 모형	167
[그림 VI-4-3] 손경원의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인성교육 모형	168
[그림 VI-4-4] 정서 중심 인성교육의 개념적 모형	170
[그림 VI-5-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17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 이론을 고려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보육 현장의 실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실태를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가정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함으로써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함.
- 국내·외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분석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기본 모형을 개발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의 인성교육 개념과 범위를 확정함.
- 전국 교육청과 보육정보센터의 인성교육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000개 기관의 유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사례 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인성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진행함.

2. 연구의 배경

가. 영유아기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인성교육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인성(character)을 일정한 사회나 도덕의 영향을 받는 일부로 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진 성격화된 인격으로 풀이하고, 인성교육에서는 정의적, 인지적(가치적), 도덕적 교육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범주를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적 덕목(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 포함), 윤리·도덕적 덕목(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등 포함), 그리고 전통적 덕목(예절, 경로효친, 애국심 등) 등으로 구분하는 의견을 수용함.
- 기존 연구의 결과를 보건대, 영유아기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후기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가 큰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사후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 폭력적 성향이 조성되지 않도록 근원부터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함.

나.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정책 현황

-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보육 통합 '누리과정'의 도입
- 정부의 인성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지원 사업
- 시·도 교육청별 인성교육 정책 사업 추진
- 전국 보육정보센터별 인성교육 관련 사업 추진

3. 외국의 영유아기 인성교육

- 미국은 1994년 이후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성교육의 특징이며 학교 외 사설기관들의 연계와 협력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CASEL, Second Step, Get Real About Violence 등이 있음.
- 일본은 유토리 교육을 인성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학업부진 결과에 대한 촉구로 후퇴한 정책이 되었음. 인성 중심 유아놀이 교육이 있음.
- 펜란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KiVa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4.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 사례 분석

- 2012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사업인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10개 기관(유치원 5개원, 어린이집 5개소)을 대상으로 방문,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분석함.
-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숲이나 동물, 식물 등 자연에 대한 체험이나 예술과 문화,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가능한 환경 속에서 넓은 공간을 향유하게 하고 신체적 활동을 최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바깥놀이 시간을 늘려 공간적 여유를 주고자 함.
-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인성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한 잘 활용하고 있음.

5.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현황과 요구 분석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성교육

-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000개원을 표집하여 각 기관의 원장 또는 교사 1명과 학부모 1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전체의 48.8%가 인성교육의 의미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배려·양보하는 행동 지도’임.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도 마찬가지의 비율을 보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99.2%의 교사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도덕적 인품 함양’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성 향상’이 26.9%, ‘옳바른 자기 이해’가 16.0%였음.
- 영유아기 인성형성에 가장 역할이 크다고 보는 인성교육의 주체가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의 93.4%가 ‘가정’이라고 응답함. 부모들은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6%였음.
- 영유아기 인성교육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지도를 하도록 지원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련 있다’는 의견이 99.2%였음.

2) 기관에서의 인성교육 현황

- 기관 내에서 영유아들 간 따돌림 또는 배척 현상을 목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볼 수 있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영유아들 중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영유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45.4%가 동의함.
- 영유아(주로 유아)들 간 욕이나 비속어 등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남.
-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덕목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유아의 경우 배려(12.4%), 타인 존중(11.9%), 자기 존중(11.1%), 질서(9.0%)의 순이었고,

영아는 식습관(22.8%), 인사 잘함(15.2%), 정리 정돈(10.0%), 질서(9.4%)의 순이었음.

- 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65.0%였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61.7%로 가장 높았고, 인사하기 등 ‘예절교육’, ‘가정연계활동’ 등이 20.0%를 넘는 비율을 보임.
-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3.2%), 다음으로는 전공서적이나 기관 자체 프로그램이 꼽힘.
- 교사들에게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57.2%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42.8%가 ‘없다’라고 답함.

나.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 자녀양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성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운동 20.4%, 사회성, 대인관계 12.6%, 창의성 3.9%, 지적성취 2.4% 순이었음.
- 인성교육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고학력,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자녀와 식사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짐 55.5%, 보통 38.5%, 매우 잘 이루어짐 4.9%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내용 중 가장 만족하는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41.5%, 누리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35.2%으로 조사됨.

다.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의견

- 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장애물을 조사한 결과, ‘가정교육의 약화’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47.7%), ‘부모 무관심(42.2%)’,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23.1%)’에 인성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전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됨.

-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지 질문한 데 대해 ‘부모와의 연계 및 도움’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다음은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 31.7%로 꼽힘.
-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장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계로 보는 관점에서, 이 시기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사들의 53.2%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기’를 선택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에 대해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가정교육강화(39.0%), 인성교육 방법에 관한 자료제공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17.2%),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11.4%)이 높았음.
-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능력 위주의 사회풍토 31.0%, 시간 부족 18.5%, 비협조적 배우자 8.0%, 기타 1.0% 순이었음.
-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45.7%, 조금 필요하다 41.8%로 나타남.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대화법, 생활습관 지도, 문제행동 지도 등이었음.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강조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체험교육 17.5%, 예절교육 15.6%, 기본생활습관 지도 15.3% 등이었음.
-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TV 방송, 가정통신문, 부모 대상 강연회, 인터넷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25.8%, 인성교육 자료 확보 24.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22.3%, 부모교육 기회확대 13.7%,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국가지원확대 12.5%, 노인인력 활용 1.0% 순으로 나타남.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

가. 모형개발의 필요성

- 개별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뼈대를 제공할 수 있음. 국가 정책연구소가 제안하는 이 모형을 근거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상업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 판단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인성교육 모형은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나. 모형개발 절차

- 영유아의 인성(=도덕성, ≠성격) 발달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장 관련자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또는 원장들이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청취함.
-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자가 인성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모형 검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함.

다. 모형 개발의 기본 원칙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에 중점을 둠.
- 영유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함.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교사나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유용하고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함.

라. 인성교육 모형의 구성

-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은 '타인에 대한 이해 교육'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도덕적 감성과 지식과 행동을 통해 결국은 도덕적 인간이 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면 폭력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짐.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에 앞서 자기의 감정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것을 도덕적 감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성의 극대화를 인성교육의 첫째 요소로 내세움("도덕적 감성 생활화").
- 영유아에게 필요한 도덕적 지식은 주입식으로 설명되거나 가르쳐지기보다 기본생활습관 훈련 속에서 습득되고, 정직, 질서, 배려, 약속, 협동, 양보 등 도덕적 덕목의 실천은 체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 함을 강조함("도덕적 지식 내면화").
- 생활 속에서 체득된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행동이 습관화되어야 함("도덕적 행동 습관화").

7.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가.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고 철학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다면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아동의 진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단초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제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의 인식과 역량이 필요함.
- 인성교육에 대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책무성을 인식해야 함. 인성교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과도하게 두는 것은 현대 사회에 적절하지 않음.

나.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와 부모 대상 교육 강화

- 원장과 교사에 대한 영유아 인성교육 관련 재교육 기회 확충

- 부모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화

2)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

- 아동 수 대비 실내 면적 기준의 강화와 바깥놀이시간 확대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문제행동 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기관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 교육자료의 개발과 유·보간 공유 및 확산

3)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내실화

- 인성 집중 교육을 위한 자기통제·타인 이해 중심 교육과정 개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의 다차원적 활용

4)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 인성교육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
- 가정 내 부모 역할 시간 확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홍보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 TV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학교폭력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스웨덴을 꼽고, 자녀와 부모, 교사가 함께 자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또한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많이 보고되는 나라는 국가가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균등하지 않고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다(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2013년 1월 20일 방송). 다시 말해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고 빈부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사회 통합이 어렵고 구성원 간 상호 배타적인 무리를 짓게 되기 쉬우며 심리적으로는 불만과 불안, 긴장, 부정적 경쟁심 등 부적 감정이 사회 기저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론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사회의 어른과 동료 또래들 모두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그린 스웨덴의 공익광고를 보여줌으로써 마무리 지었다.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 해결과 방지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2년 2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7대 실천 대책을 제시한 바, 그 중 하나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의 실천과 이를 위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기초 인성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공질서를 지키는 기본태도와 인성 형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 학교폭력, 나아가서는 사회 폭력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 공통 교육·보육 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 해결 등 덕목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 속 인성교육을 체득하게 하고 이를 위해 특히

교사-부모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2. 6.). 즉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물론, 가정의 일상생활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가정, 지역사회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체득되게 하는 누리과정 속의 인성교육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충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긍정하기는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들을 수 없다. 일 년에도 몇 번씩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소식은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집중적 실행이 필요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 <http://stopbullying.or.kr/>). 같은 맥락에서 유아기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에 더하여 또는 누리과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빨달을 고려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제시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보육 현장의 실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실태를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 가정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그에서도 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연구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인성교육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정의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 인성교육은 일정한 도덕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습관 훈련이나 협동 놀이 등 아동이 접하는 모든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밝히고 그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외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한다. 국내 및 외국의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들을 조사하여 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우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효과에 대한 결론들을 수집, 분석한다.

셋째,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기본 모형」을 개발한다. 정서, 사회성, 도덕성 및 발달이론과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내용, 방법을 구체화한 인성교육의 기본 모형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하는 모든 관련 활동이 이 모형에 의해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넷째,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 내 교육과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센터 등에서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발된 「영유아기 인성교육 기본 모형」에 의거하여 분석될 수 있다.

다섯째,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분석한다. 현재 기관, 가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인성교육에 있어 어려운 점, 문제점,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관리행정가, 현장 관계자,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파악한다.

여섯째,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사례와 조사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사회에 대한 함의를 포괄하고 국가 정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의 인성교육 개념과 범위를 확정한다.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필요성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더불어, 인성교육 관련 교육 정책, 해외 사례를 같이 정리, 분석한다. 해외 사례에는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을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도덕성 및 인지 이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인성교육의 방향과 기본 모형을 구상하며,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개발된 모형에 의거하여 그 중요성과 미흡함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 인터넷 검색 및 전화를 통한 정책현황 조사

전국의 교육청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현재 진행되고 인성교육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각 청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작업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은 전국 68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설문조사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000개 기관(최종 1004개 기관, 유치원 504, 어린이집 500)의 유아반 교사(일부 2세 영아반 담당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2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 1명씩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성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편과 이메일, 설문 수거요원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설문 실시 및 회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7~8월 사이 1개월 간 실시하였다.

기관 표집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유치원 표집의 경우 15개 시·도¹⁾,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등 소재 지역 유형, 공립 또는 사립 등 기관유형, 대-중-소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센터의 온라인 표집 프로그램을 통해 504개 표본을 비례 추출하였고 15% 정도를 대체 표본으로 충원하여 진행하였다. 어린이집은 지역 변인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유치원 표집 지역에 기준하여 시설유형을 고려하면서 비례 표집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의 통찰과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인성교육이 영아보다는 유아를 중심으로 조사할 때 보다 다양한 현황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어린이집의 유형 중 영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정어린이집’은 제외하고 국공립, 볍인,

1)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집 시스템에서 제외된 세종특별자치시와 현지조사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외된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를 의미함.

법인 외 단체, 민간, 직장 등 5개 설립유형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표집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를 각 시·도 및 유형별로 보면 다음의 <표 I-3-1>과 같다.

<표 I-3-1> 영유아기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설문 조사 표본 현황

단위: 개원, 개소

시·도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공립	사립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직장	
서울	11	64	75	20	1	5	65	4	95 170
부산	4	26	30	4	2		23		29 59
대구	8	15	23		3		21		24 47
인천	8	19	27	3			23		26 53
광주	9	11	20		3		12		15 35
대전	6	13	19		1		13		14 33
울산	5	8	13				12		12 25
경기	60	77	137	14	1	3	109	3	130 267
강원	9	8	17	2	2		11		15 32
충북	9	6	15		2		11		13 28
충남	11	8	19	1	3	1	18		23 42
전북	11	11	22		4	1	15		20 42
전남	13	8	21	1	4	1	11		17 38
경북	16	16	32	3	1		25		29 61
경남	15	19	34	4	2		32		38 72
계			504						500 1,004

라. 국내 우수 사례 심층 분석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 사례 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선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5개원씩 총 10개원을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문헌 수집, 현장관찰 및 교원, 부모 등 관련자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이 잘 이루진다는 것의 의미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특징적 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사례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 <표 I-3-1>과 같다. 조사는 2013년 5월부터 9월 사이, 연구진의 현지 방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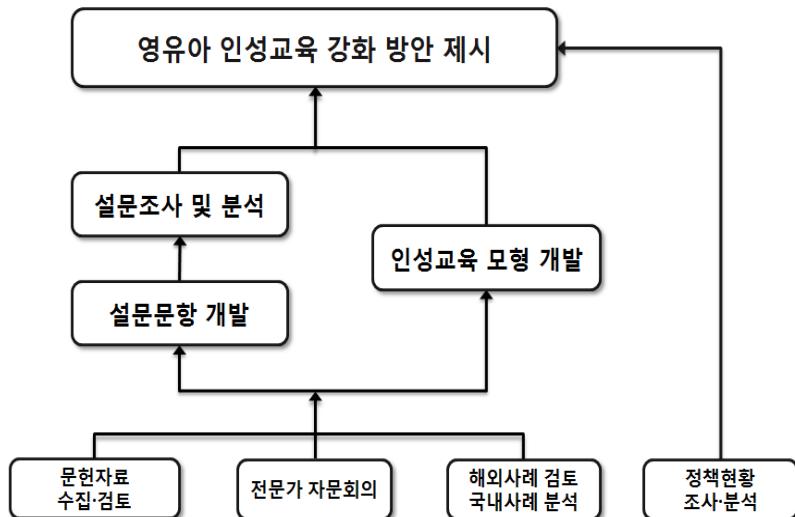
〈표 I-3-2〉 인성교육 우수 기관 사례 분석 대상

지역 권역	유치원	어린이집
서울·경기	세아 (사립)	상록수 (국공립)
충청	중앙 (공립 단설)	사이언스신성 (직장)
강원	삼포 (공립 병설)	효자 (국공립)
경상	연산 (공립 단설)	수정삼성 (민간)
호남·제주	한라대부설 (사립)	삼도 (국공립)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련자 간담회 개최

인성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 정립 및 종합적 지원 방향,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개발된 인성교육 모형에 대한 타당화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수행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3-1]과 같다.



[그림 I-3-1] 연구 수행 절차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에 있어 인성교육의 의미와 특성을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학교폭력과의 관련성,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의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리,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1. 영유아기 인성교육

가. 인성교육이란?

인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성의 개념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성품이며 곧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라, 2011). 한편 영어사전에서는 이를 ‘character’, ‘human nature’, ‘human instinct’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계학(1991)은 인성을 ‘personality(개성)’로 정의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를 성격 또는 인격, 일본에서는 인격,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성의 의미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스티븐 코비(1994)는 인성이 ‘personality(성격)’을 의미하기보다는 ‘character(성품)’에 가깝다고 보았다(김규수, 2011, 재인용). 이처럼 인성이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도 각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이 정의하는 인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Loke는 인성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장명립 외, 2012, 재인용), Lickona는 “도덕적으로 선을 인식하고 선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것”을 인성으로 정의하였다(박찬옥, 2010, 재인용). 인성을 정신, 물리적 체계의 역동적 조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Allport와 Adler는 인성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에 자신을 적응 및 적용시키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역동적 조직으로 보았으며(박찬옥, 2010, 재인용), Pervin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성을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독특하게 반응하는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박현진·김숙자, 2012). 인성을 인간의 품성이나 마음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학자들이 있는 반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성을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이근철(1996)은 인성을 사람이 지니는 “총체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격, 성격, 성질, 품격 등의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고 보았다(박행모, 2003, 재인용).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공통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독특한 성질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진찬(1998) 또한 개성과 인격, 도덕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성을 정의하였다(박행모, 2003, 재인용).

이러한 인성에 대하여 노력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박균섭, 2011)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김영인(1995)은 인성교육을 바람직한 품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이라고 하였고(박행모, 2003 재인용), 안영진(2010)은 인성교육을 개인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함으로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성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배양시키는 것, 즉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희영 외, 2012, 재인용). 원인숙(2010)은 인성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하며 인간다운 품성, 도덕적 인격으로 인간이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바람직한 품성”(정희영 외, 2012, 재인용)이라고 했고, 안범희(2005)에 따르면 영미권에서는 인성교육을 Character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때의 Character는 인격, 성격 또는 성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편 남궁달화(2002)는 인성교육을 “정서교육,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더불어 사는 도덕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극범(1998) 또한 동일한 입장에서 인성교육을 지식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고 정서교육, 가치교육, 도덕교육이 인성교육으로, “사람의 됨됨이, 성격, 행동,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였고(정희영 외, 2012, 재인용), 곽노의(2011)는 한국교육학회(1998)의 의견을 인용하여 인간의 마음은 지적, 정의적, 행위적 요소로 구성되므로 이때의 인성교육은 심성교육, 특히 정의적인 측면에서 원만한 심성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가치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영국 학자인 J. Arthur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볼 때 도덕교육(moral education)과 가치교육(value education)에 대한 한 가지 특수한(specific) 접근방법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설명하며, 결과적으로는 인성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Arthur, 2005). 이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동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학자들이 도덕교육이나 가치교육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을 보거나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비해 Arthur는 오히려 인성교육을 도덕교육의 일부 또는 특정한 부분으로 정의함으로써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인성교육 정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인성을 바라보고 성격보다는 인간다운 성품을 의미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정서교육, 가치교육, 도덕교육이 포괄되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고자 한다. 즉 인성(character)을 일정한 사회나 도덕의 영향을 받는 일부로 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진 성격화된 인격으로 풀이하고, 인성교육에서는 정의적, 인지적(가치적), 도덕적 교육이라는 관련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나. 인성교육의 내용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바람직한 인성’이라는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음의 <표 II-1-1>에서 보듯이, 학자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큰 범주로 나눈다면 어렵지 않게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성의 범주를 이미 구분하여 세부 인성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공통적 범주를 선택해본다면,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적 덕목(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 포함), 윤리·도덕적 덕목(공동체의식, 민주시민의식 등 포함), 그리고 전통적 덕목(예절, 경로효친, 애국심 등)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동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분류 간에도 일정 부분 중복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연구자의 시각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II-1-1]에 나타나 있다.

〈표 II-1-1〉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성교육의 내용

구분	인성교육 내용 구성 요소	
이원영 외 (1992)	기본 생활 습관	청결, 물질만능 배제, 근면, 질서, 예절
	사회 정서적 덕목	인내, 타인입장 존중, 협동, 양보, 긍정적 사고, 타인신뢰, 주체의식
	윤리 도덕적 덕목	공중도덕 준수, 정직, 생명존중, 책임감, 전통윤리 존중
허경철 외 (1994)	기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자아학립	정직, 근면, 성실, 자주
	효도와 경애	기본예절, 효도, 경애
	공동체 의식	질서, 공공규칙준수, 시민자질, 합리적 의사결정, 타인존중, 공익
조연순 외 (1998)	민주시민의식	준법, 봉사, 협동,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타인존중의식	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자기존중의식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2007)	청결, 정리정돈, 질서, 습관, 절제, 예절, 자아개념, 자기조절, 감정과 욕구조절, 협력, 타인입장 배려, 타인존중, 바른 태도로 말하기와 듣기, 공공규칙 지키기, 나라사랑하기, 타문화 존중, 전통예술에 친숙하기, 다양한 문제해결하기	
김태영 외 (1999)	논리성, 창의성, 감성, 도덕성, 사회성, 예절성	
박효정·정광희 (2000, 2001)	정직, 타인배려(연민, 관용, 양보, 친절, 봉사, 헌신), 공공질서의식(준법, 공중질서), 경로효친, 생명존중, 환경보호, 성윤리, 정의(공정성, 용기, 민주성), 평등의식, 사회연대의식(책임과 협동, 공익 우선, 신의), 애국애족(나라사랑, 민족사랑, 인류애), 절제(절약, 자기통제, 인내)	
7차 개정 초등학교 도덕교육 과정	개인생활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가정, 이웃, 학교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
	사회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국가, 민족생활	국가애,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통일, 인류애
이돈희 (2002)	경로효친, 정직, 결제, 근면과 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과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과 협동, 민주성,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의식, 환경보호, 성윤리, 정보윤리	
개정 초등학교 도덕교육 과정(2007)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호, 준법, 정의, 배려, 애국, 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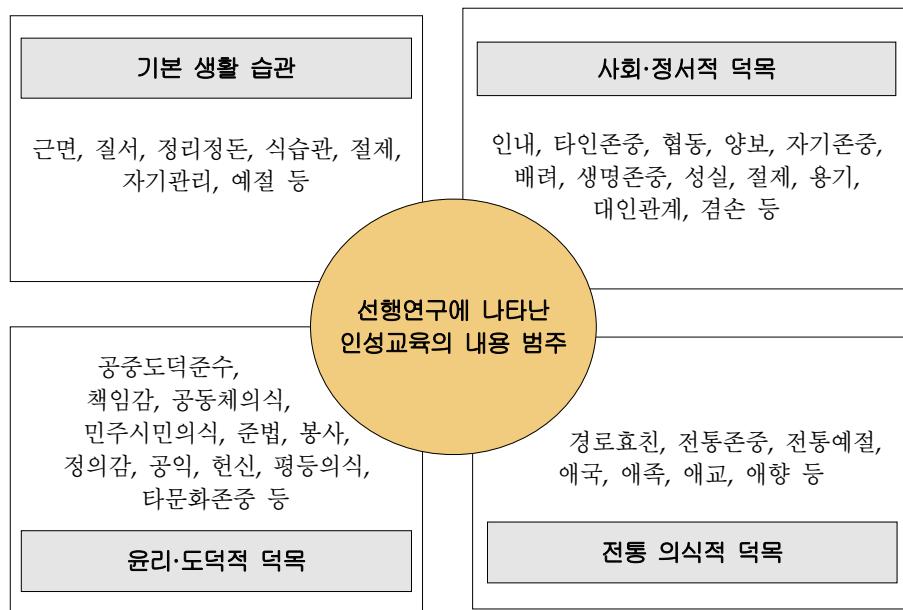
(표 II-1-1 계속)

구분	인성교육 내용 구성 요소				
개정 초등 바른생활 교육과정(2011) 김영옥 외 (2009) 서은주 양정은 (2009)	기본 생활 습관	내 일 스스로 하기			
	예절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규범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			
최민수 (2011)	기본 생활 습관	청결, 정리정돈, 질서, 식습관, 예절, 절제			
	사회 정서적 덕목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협력, 대인관계기술 등			
	윤리 도덕적 덕목	공중도덕 준수, 정직, 책임, 타문화 존중, 전통윤리 존중, 생명존중			
김숙자 외 (2011)	개인 영역	내면적 자아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조절		
		외현적 자아	용기, 인내, 정직, 성실, 겸손, 책임감, 자주성		
	공동체 영역	대인관계	친절, 타인존중, 신뢰, 친사회성, 친사회적 기술, 배려, 관용, 우정, 사랑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 질서, 정의감, 협동심, 봉사		
		민족성	애국심, 전통존중		
		세계시민성	인류애, 지속가능성, 타문화존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11)		배려, 존중, 책임, 신뢰성, 정의, 공정성, 시민성			
장명림(2012)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경로효친)			
Eyre & Eyre(1993)	기본 생활 습관	자기관리와 절제			
	사회 정서적 덕목	평온함, 자신감, 존중, 사랑, 양보와 이해심, 친절과 다정함			
	윤리 도덕적 덕목	정직, 용기, 정절과 순결, 책임, 성실과 신뢰, 정의와 자비			
Akin (1995)	신뢰, 존중, 책임감, 정의감, 배려, 시민의식				
Lamb & Feeny(1995)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도덕적 규범에 대한 자각, 순종				
Leming (1996)	자기통제, 건강, 친절, 스포츠맨십, 자신감, 의무, 신뢰, 진실, 장인정신, 협동				
Greenawalt (1996)	시민정신	민주주의(권위 존중과 수용, 평등,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의의 자유, 관용), 애국심(용기, 충성),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이타주의(공손 동정, 예의범절), 정직(진실, 신뢰)			
	자기에 대한 존중	자아수용(전념, 인내, 자기통제, 절약), 자기존중(지식, 절제, 육체·정신·경제적 처지 수용), 직업윤리(성취, 협동, 신용, 성실, 자신감, 생산성, 창의성)			

(표 II-1-1 계속)

구분	인성교육 내용 구성 요소	
Berkowitz & Grych(2000)	사회 정서적 덕목	자기조절, 감정이입, 친사회적 성향, 자기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윤리 도덕적 덕목	규범준수, 양심, 도덕적 추론, 정직, 이타성
Josephson (2002)	신용(정직, 통합성, 신뢰감, 충성심), 존중(정중, 예의, 존엄성, 자율성, 관용, 수용), 책임감(책무감, 자기규제), 공정(과정중시, 공평, 정당), 배려, 민주시민의식	
Lickona et al. (2003)	도덕적 인지	도덕적 인식, 도덕적 사치인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관점선택, 자기에 대한 지식
	도덕적 감정	양심, 자긍심,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기, 자기통제, 겸손
	도덕적 행동	수행능력, 의지, 습관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이타주의, 충성심, 궁贯穿, 순종, 용기, 시간엄수, 예의, 너그러움, 관용, 책임감, 정직, 자제력, 균면성, 자기-존중, 권위존중	

자료: 장명립 외(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최민수(2011). '영유아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 모색'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II-1-1] 선행연구의 인성교육 내용 범주

다.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Puka(1999)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역사를 총괄하면서 여섯 가지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기본적인 가치와 덕(values and virtues)의 지도(instruction), 둘째, 행동 규범의 준수, 셋째,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 해주기, 넷째, 바람직한 행동특성이나 가치를 모방하기, 다섯째, 역사나 문학, 종교 속의 도덕적 모범 사례를 들려주고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기, 여섯째, 아이들이 좋은 특성을 연습해보고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해 볼 수 있도록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나 사회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해 주기 등이다(Arthur, J., 2005, 재인용). Puka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성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앞 절에서 살펴본 인성교육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가치와 덕, 행동규범, 도덕 등은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이를 instruction하게 함으로써 직접적 교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치와 덕, 도덕, 행동규범은 아동들에게 여하튼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이야기해주기나 모범 사례를 들려주는 것이나 행동모방을 유도하기, 봉사 기회주기 등은 직접 교수가 아닌 체험적 교육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에서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필요 한 사항을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옥(2010)은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들이 나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 생활습관형성을 통한 습관적 외현 행동의 습득만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박찬옥, 2010:586). 즉 유아 인성교육은 덕목이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고 자발적 동기에 의해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병석(2009)을 인용하면서,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활동 분위기 연출,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역할놀이, 협동학습, 토론하기, 발표하기, 책 만들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노래 부르기 등 체험과 놀이 위주 인성교육 방법 사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꾀력하였다.

최민수(2011)는 구체적인 영유아 인성교육 방법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역할놀이, 문학적 접근, 자연체험, 토론식 문제해결, 게임,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연계, 기본생활습관 교육 강화, 생활주제에 따른 활동별 접근,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명상 또는 요가를 통한 인성교육, 영상매체, 바깥놀이,

전래노래 놀이, 숲 체험, 꽃, 텃밭 가꾸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인식되고 계획된다면 지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민수, 2011:27~38).

한편 우영효(2010)는 인성교육의 방법을 3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덕목전수 모형으로, 기본적인 덕목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시켜 습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본보기, 학습시키기, 실천하기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다. 본보기는 역사나 현존 인물 가운데 덕행의 본이 될 사람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학습은 고전, 문학 등의 양서를 읽고 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모형인 가치생성 모형은 도덕발달 이론에 근거한 방법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를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하여 도덕적 인식과 안목을 기르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통합 모형으로, 이는 앞서의 두 모형을 절충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우영효, 2010:29). 이 외에도 봉사활동과 명상을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들었다.

우영효의 영유아기 인성교육 방법은 먼저 살펴보았던 Puka(1999)의 방법과 비슷한 면이 있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즉, 인성교육이 덕목이나 행동 규범에 대한 전달과 지도라는 측면과 실천이나 체험, 봉사활동 등의 행동적 측면의 강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Kohlberg 방식의 아동 중심 가치생성 모형은 우영효의 설명에는 제시되고 있어 Puka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면 가치생성 모형식 인성교육을 도입한다면 보다 세심하고 교육 계획과 교사의 전문적 지도 요령이 필요해 보인다.

2.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가. 학교폭력의 의미와 실태

학교폭력은 그 범주와 유형에 따라,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内外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

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박경아(2003)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개인 및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심웅철(1996)은 좁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넓게는 교내뿐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8, 재인용). 이를 요약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말하며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위해까지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²⁾에 의하면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는 하루에 약 90~100 통에 달하며, 특히 왕따 및 집단 괴롭힘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2012년 1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전국 117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총 38,930건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이 11.1%에서 30.7%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은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2. 6)에서 강제적 심부름(46.0%), 사이버 폭력(34.9%)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의 물리적 폭력에서 점차 언어 및 심리적 폭력으로 그 유형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진’ 등의 집단화 경향(66.2%)이 나타나는 것도 학교폭력의 특징이라고 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2. 6).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후유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자살 징후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의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1,677명 중 31.4%가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에 대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 및 자살시도와 직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http://www.jikim.net>; 2013년 4월 30일 검색)

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양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그 개념 및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눈에 띠는 폭력 즉, 신체적 위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점차 눈에 띠지 않는 심리적 폭력인 따돌림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왔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도 신종 학교폭력의 하나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표 II-2-1>과 같다.

<표 II-2-1>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내용	예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 신체의 일부를 손, 발로 때리는 행위
	감금	- 화장실 등 일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약취·유인	- 폭행 및 협박을 함으로써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언어폭력	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성격 또는 능력 등을 공격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사이버 상에 퍼뜨리는 행위
	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외모 등에 대해 놀리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사이버 상에 퍼뜨리는 행위
	협박	- 특정인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으려대며 위협하는 행위
금품갈취	공갈	- 금품 등 물건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기 - 금품을 빼앗아오도록 시키기
강요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따돌림	- 고립감 및 모욕감 주기 - 바보 취급하거나 놀리기
성폭력	성폭력	- 폭행 및 협박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 및 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허위 글을 사이버 상에 올리는 행위 - 사이버를 통한 성희롱

자료: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교사용’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최근 우리나라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응'하는 방안이다. 즉,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의 예방교육 확대', '부모교육 확대와 책무성 강화'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복수담임제 도입과 상담인력의 확충,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17개소), 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대책으로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그 중 한 가지 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아기에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질서, 나눔, 배려, 협력 등 유아기에 습관화해야 할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근본대책의 실천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선택 활동 및 바깥놀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누리과정의 운영과 토의, 협동학습, 현장학습, 역할놀이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2년도에는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선정하였고 인증기관에 대해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기가 인성의 기초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 2012)는 점은 본 방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2-2 참조).

〈표 II-2-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목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직접 대책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철저히 대응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 은폐 시 엄중조치로 책무성 확보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신고체계 일원화 - 조사·지원기능 체계화 - 가해·피해학생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학생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 - 학교단위 예방교육 체계화
근본 대책	4. 부모교육 확대 및 부모의 책무성 강화 - 부모교육·자원봉사 확대
	목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 실천
	5.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바른생활습관, 학생생활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게임·인터넷 심의·규제 및 예방·치유교육 확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7대 실천 정책의 내용을 재구성함.

2)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4대악(惡) 근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는 2013년 7월 23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계부처가 협동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3. 7. 23.).

주요 대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교

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에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³⁾’이 현재 300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Kiva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자’, ‘적극적 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또한 단위학교 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칭 ‘꿈키움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선정된 학교마다 또래보호 활동,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

주요대책	세부내용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장려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중심 ‘어울림 프로그램’: 2017년까지 전 학교에 확대 보급 - ‘꿈키움 학교’ 3,000개교 육성 - 대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확충, 학교 내 대안교실 시범운영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폭력 예방: 바른 언어 교육 전개, 바른 언어 선도학교 운영 - 집단따돌림 대응: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실시 - 사이버 따돌림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상담인력의 즉각적 대응 실시 - 초등학교: ‘U-안심알리미’ 무상보급 확대, 중·고등학교: 교내 순찰 및 또래 보호 강화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전담기관 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 설치 - 가해학생 전학 및 퇴학 시 대안교육 마련 - 위기학생 상담활동 강화: 전국 시·도교육청 ‘Wee 스쿨’ 설치 예정
학교역량 강화 및 부적절한 대처의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실시간 보고 체계 체계화 - ‘학교폭력 특별점검단’ 운영, 학교장 대상 법교육 실시
신고체계 개선 및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로 ‘117’ 지정, 신고 후 관리 강화(2주 이내 확인)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고화소 CCTV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3. 7. 23.) 내용 재구성함.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2012년도의 정책과 차별화된 점이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바른 언어 문화 선도학교 운영,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응으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초등학교의 ‘U-안심알리

3)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의 6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역할극, 집단상담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공감 및 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교육부 보도자료, 2013. 7. 23.)

미' 무상보급 확대, 중·고등학교의 교내 순찰과 또래 보호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전담치유기관을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학·퇴학 시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피해 수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가족힐링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선치료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의 은폐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건의 은폐나 축소, 부적절한 대처 시 학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발생한 사안을 즉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신고체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긴급전화로 '117'을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수준을 확대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3. 7. 23.).

라. 학교폭력과 영유아기 인성교육

엄청난 폭력·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미국의 범죄자들의 성장과정과 개인사를 조사하여 폭력성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던 Karr-Morse와 Wiley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4세가 되면 이미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bullying), 불끈 화내기(tantrum), 타인을 위협하는 관계 맷기 등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고 하였다 (Karr-Morse&Wiley, 1997:7). 더 나아가 태아시기와 생후 2년 기간(약 33개월) 동안인 영아시기에 이미 많은 아동들에게서 공격성과 폭력성의 씨앗(seeds)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Karr-Morse&Wiley, 1997:9). 그들은 폭력적인 성향이 자라가는 데 있어 영유아기가 인생에서 큰 기준 시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바로잡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양육자, 부모, 교사 등 주변의 사람들이 갖는 영향력의 중요성도 함께 짚고 있다.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시기인 영유아기(infancy)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결정적 발달의 단계이며, 이 시기에 아동은 타인을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학습과 사고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아동을 둘러싼 인적 환경의 질이 아

동의 공감능력과 애정, 고등 사고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Karr-Morse&Wiley, 1997:12)

Karr-Morse와 Wiley의 위와 같은 논의들은 폭력적인 성격이 길러지는 데 있어 영유아기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영유아기에 중재 혹은 예방적 교육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등 주변 인물의 인격적 수준과 긍정적 영향력의 중요성 또한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주의해 볼 지점이다.

김영옥 등(2007)은 유아기가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해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소성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습관 형성을 하는 데 가장 용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도 하므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적기임을 주장하였다(김영옥·송혜린·이현미, 2007). 다시 말해 유아기에 잘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손경원 등(2012)은 아동기의 사소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의 학교폭력과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언하였다(손경원·주향란, 2012).

결론적으로, 영유아기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후기 아동·청소년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가 큰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이미 가시화된 아동·청소년기에 사후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 폭력적 성향이 조성되지 않도록 근원부터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서는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교사와 부모를 위한 자녀 인성 교육 지도 등의 효과적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 정책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속하는 정책으로서 새롭게 제정되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유아기 교육·보육 공통 과정인 「3-5세 연

령별 누리과정」,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기관 선정 및 지원 등의 정부 사업,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지방 정책 사업들을 조사하고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보육 통합 「누리과정」의 도입

2012년 제정된 만 5세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면, 정부가 기본 구성 방향 중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만 5세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이다. 즉 유아기부터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협력 등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각 영역의 내용뿐 아니라 성격 및 목표에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이어서 5세 누리과정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13)고 명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누리과정이 인성교육 함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2012. 2. 6.)가 제시한 누리과정 관련 바른생활 습관 체득을 위한 실천 행동 예시는 다음의 <표 II-3-1>과 같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목표가 실천 내용으로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개 영역 모두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신체 인식하기(긍정적 자기 인식),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다른 사람과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청결, 식습관), 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규칙 준수 등)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성교육의 예로는,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타인의 이야기에 관심 갖기), 말하기(상대를 보며 말하기, 예절), 읽기(소중하게 책 다루기)를 들 수 있고, 사회관계영역에서는 영역 주제 자체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내용이 타인, 가정, 사회 등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와, 감정조절, 예절, 약속, 규칙준수 등 인성교육의 내용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영역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생명 존중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영역이 인성교육 강조를 기저에 깔고 있다고 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장명립 외, 2012).

〈표 II-3-1〉 누리과정의 바른생활 습관 체득을 위한 실천행동 예시

덕목	실천 행동 예시
질서	-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놓기 -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장소에서 차례 지키기
나눔	- 친구와 물건 나누어 사용하기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나눔 실천하기 등
배려	-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보살펴 주기 - 친구에게 양보하기 등
협력	-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기 -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기 등
존중	- 나와 친구의 차이점을 알고 존중하기 - 친구의 예술표현(그림, 동극, 율동 등)을 소중히 여기기 등
경로효친	- 등·하원 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하기 - 어른들께 존댓말 사용하기 등
갈등해결	-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 친구와 갈등(다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거나 도움 받기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 6.

나. 정부의 인성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부는 2011년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2012년에는 이어서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일선 유치원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집 개발 사업은 아동-부모-교사 모두를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며,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그림 II-3-1]과 같다.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교수활동용 DVD와 교재·교구를 개발하였고, 세대 간 지혜 나눔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보유 사이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의 6개 덕목이며 총 58개 활동으로 나뉘어 개발되었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그림 II-3-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체제

둘째,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모교육 자료가 있다. 부모교육 자료는 강연회 자료와 6개 덕목별로 개발된 가정통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강연회 자료는 부모들이 인성에 대해 이해하고 유치원과 일관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가정통신문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연계하여 자녀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수활동용 DVD 및 교재·교구 자료이다. 교수활동용 DVD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유치원 현장에 적용한 인성교육 활동 수업 시연 동영상 자료도 포함되었다. DVD에 수록된 활동 관련 동영상 및 그림, 사진 자료들은 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인성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며, 전달력 및 심미감이 높도록 개발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 및 동화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34~35).

2)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지원 사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보다 실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하여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아기의 바른 인성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고 선도하여 인성교육 우수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천의지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이 사업의 인성교육 계획은 2012년 2월에 중앙 정부가 착수하였고, 시·도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2012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유치원 140개, 어린이집 140개 등 총 28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최종심사는 각 부처 5인씩 10인의 중앙선정위원회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최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II-3-2〉 지역별 인성교육 우수기관 선정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유 치 원	어 린 이 집
우 수 기 관 수	유 치 원	어 린 이 집																
13	26	7	5	6	5	7	7	5	6	5	4	5	2	26	37	140	13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우 수 기 관 수	유 치 원	어 린 이 집																
7	4	7	6	9	7	9	6	9	7	11	6	11	8	3	2		278개원	

주: 선정 이후 2013년 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 취소되어 최종 278개 기관이 됨.

자료: 교육부(2013). 인성교육 우수기관 2차년도 재심사 계획. 내부자료

이 사업의 재정은 2012년 총 사업비로 2,100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수 기관 심사 및 운영비, 인증현판 제작·보급 및 현장심사비,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연간 운영 경비 등으로 활용되었다. 최종 선정된 280개원에는 2012년 8월에 1년간의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기관 규모에 따라 3년 동안 차등 지원되며 차등 수준은 1개 기관당 약 6,000천원 내외이다. 또한 최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기관(총 32개) 중 시·도별로 가장 모범이 되는 기관을 각 1개원씩 선정·운영하고 시·도별로 운영 경비를 위한 추가 재정이 지원된다.

다. 시·도 교육청별 인성교육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해 보았다. 경기·강원·광주·충청남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2013년 주요시책 및 세부시책 중 하나로 ‘인성교육’(또는 ‘창의·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광주·충청남도는 ‘품성교육’, 또는 ‘인간교육’이라는 시책 하에 인성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중점이 되는 몇 가지 덕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지역이었다. 이 외에 서울시는 ‘정직·약속·용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전북은 공동체 의식, 전남은 자기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함양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충북은 ‘행복 4중주(SPTC)’를 통한 인성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학생(Students), 부모(Parents), 교사(Teachers), 지역사회(Community)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천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인성교육 업무 계획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등 총 5개 지역뿐이었다. 이를 통해 유아기의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3-3 참조).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기 인성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유아기 인성교육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다. 대구시는 유치원 교육과정 안에서 유아기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화구연대회, 수업발표대회, 연구 교사제, 수업기술 나누기 카페 운영 등 유아교육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시도 유치원 기본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며 나눔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다. 서울시는 실천적 생활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걸개그림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들머리 1분 인성 교육’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나부터 인사하기’ 운동과 함께 이를 위한 홍보자료를 보급한다. 광주시의 ‘친절 3운동’도 실천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의 실천이다. 부산시는 유치원별 ‘패밀리데이(가족의 날)’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는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학생, 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 공감 대구인성교육 범시민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도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을 강조한다. 제주도 또한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하는 효경교육으로 ‘1010 책 읽어주는 아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II-3-3〉 전국 시·도 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현황

[시교육청]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서울 특별시	교육의 기본 회복	도덕·인성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약속·용서 프로젝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적 생활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대상 걸개그림을 활용 인성교육 - ‘정직·약속·용서 생활본’ 등 자료 발간 - ‘행복 눈맞춤’ 출석부를 활용한 감성적 인성교육 ◦ 토론·협력 수업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심과 책임감 함양 위한 토론·협력형 수업 - 토론·협력형 수업 방법 교원연수 ◦ 서울학습공동체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

(표 II-3-3 계속)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교사의 궁지와 보람 찾기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 있는 학교별 나라사랑 교육 실시 ◦ 독도탐방 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고취 ● 교사와 학생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활성화 ◦ 학교 구성원이 공감, 실천하는 학교규칙 운영 ● 교권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 ● 학교 상담활동 지원 강화 	
부산 광역시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교육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10대 실천 덕목」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덕목(존중·질서·협동·예의·자주·책임 등) 실천 ◦ 인성교육 강사 인력풀 제공 ● 효·예절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문화지원본부 연계 효 교육 프로그램 ◦ 밥상머리교육 실천 프로그램 ◦ 부모지원센터 연계 '찾아가는 부모교육' ◦ '조부모의 날' 운영 ● 언어문화 개선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언어문화 개선 교육 ◦ 찾아가는 우리말 바로쓰기 현장 교육 확대 ◦ 바른말 고운말 청소년 연극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자료 제공 ● '바른 인성 첫걸음'을 위한 유아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인성교육 내실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운영 - 바깥놀이 및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기본생활습관 형성 위한 '인성교육 10대 덕목' 실천 - 1유치원 1인성교육 운영 - '바른 인성 첫걸음'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 인성교육 교원 연수 - 인성교육 현장적용연구회 운영 ◦ 가정과 연계한 유아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부모교육 지원 - 유치원별 '패밀리데이'를 통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 	○
대구 광역시	배려와 예절을 실천하는 인간교육	심성·감성 계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중심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동행 행복 시간 운영 ◦ 동식물 기르기로 생명 사랑 실천하기 ◦ 학생 문화·예술 인성교육 및 인성 교육 체험 활동 	○

(표 II-3-3 계속)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대구 광역시	배려와 예절을 실천하는 인간교육	심성·감성 계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공감 운동: 행복 공감 마·미·눈 캠페인 ◦ 전 교과 실천적 인성교육: 수업들머리 1분 인성 교육 자료 보급 ◦ ‘나부터 인사하기’ 운동 ◦ 예절교육체험센터 운영 ◦ 시대 공감 대구인성교육 범시민운동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창의와 소질을 살리는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 교육 지원단 및 모델학교 운영 ◦ 창의·인성 개발지도 자료 보급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인성교육 활성화: 마주보는 행복시간 및 몸·마음 튼튼 기초 체력 기르기 운영 ◦ 유아교육 연구·연수 활동 ◦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인증제 운영 	<input type="radio"/>
인천 광역시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바른 품성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 [역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체험 중심학교 운영 ◦ 1교 1효 프로그램 브랜드화 추진 ◦ 학교급별 효 체험 지도자료 개발 ◦ 효 체험 수업 담당자 연수 실시 ◦ 효행의 달 및 효행의 날 지정 운영 ◦ 경로효친상제 운영 • 인천사랑 교육 •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역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보호 인프라 및 유관기관 지원네트워크 구축 ◦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대응 역량 강화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모델학교 및 수업연구회 운영 지원 ◦ 창의·인성교육 연수 	
광주 광역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학생 생활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인성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 인성교육실천 사례 발표대회 ◦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상 운영 	

(표 II-3-3 계속)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광주 광역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유아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기본과정 운영의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강화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 인성교육 우수기관 운영 - 친절 3운동(예: 고맙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 	○
대전 광역시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교육	민주시민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인성교육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민 예절교육 순회 강사제」 운영 ◦ 「1교 1인성교육 브랜드화」 운영 ◦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학교 운영 ◦ 효 교육 강화 ●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칙 준수 문화 확산 ◦ 양성평등교육 강화 ◦ 밝고 전진한 사이버 문화 확산 ● 나라사랑 통일교육 ●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울산 광역시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 강화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과정 통한 실천 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 초·중·고등학생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사제동행 체험활동 확대 ● 인성교육 브랜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인성브랜드 U.S.G(Ulsan Smile Greetings) 운동 ◦ 프렌디(Friend+Daddy) 스쿨 운영 ◦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 ●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상머리·수업머리 인성교육 ◦ 실천과제 중심의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 인성교육 3차원 6덕목 실천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덕성(정직, 책임), 사회성(공감, 소통), 감성(긍정, 자율) ◦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 	
세종 특별 자치시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창의·인성 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체험중심 올리사랑 운동 ◦ '세종인재' 양성 프로그램 ◦ 민주시민 나라사랑 실천 교육 ● 창의·인성 교육과정 	

(표 II-3-3 계속)

[도교육청]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경기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민주시민 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와 나눔의 생활 실천으로 바른 인성 함양 • 인권교육 강화로 교육 및 학생인권 존중 풍토 조성 	
충청 북도	진취적인 품성 함양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반올림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교육 전 영역에서 희망, 사랑, 행복의 반올림 ◦ 7대 덕목 실천(실력, 품성, 복지, 청렴, 신뢰, 친절, 공감) • 행복 4중주(SPTC)를 통한 인성교육(특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우보우 공감 프로그램(학생-Students) ◦ 세대공감 프로그램(부모-Parents) ◦ 사제공감 프로그램(교사-Teachers) ◦ 사랑나눔 공감 프로그램(지역사회-Community) 	
충청 남도	품성과 실력의 감성형 인재	바른 품성을 갖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품성 5운동 실천(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 교육과정 중심 바른 품성 실천 문화 조성 	
전라 북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 교육 실천	인권 우호 적인 교육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특성화된 인성교육 실시 • 창의·인성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과 연구회 지원 ◦ 교과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전라 남도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나눔과 배려의 인성교육 소통·협력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연계 창의·인성교육 추진 • 자기관리능력 함양 • 한국인 정체성 확립 지도 • 대인관계능력 함양 •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강화 	
경상 북도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속에서 인성 짹 퇴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모델 적용 ◦ 예체능 체험 학습 기회 확대 ◦ 사례·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 수업 • 소통과 고통으로 건전한 생활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 1상설 '토론의 장' 운영 ◦ 인성교육 실천 주간 행사 ◦ 사제동행 띠 상담 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 체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사랑의 날' 운영-밥상머리 교육 	

(표 II-3-3 계속)

지역	인성교육 주요시책	인성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아 대상 사업 여부
		세부시책	세부내용	
경상 북도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인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나들이 날’ 운영 • 나눔과 배려의 교육 기부 활성화 ◦ 1기관 1교육 기부 운동 및 프로그램 참여 ◦ 사회와 지역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확산 	
경상 남도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찾고 키워주는 창의인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인성교육 실천 강화 ◦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지원 • 나눔과 배려로 교육기부 확산 ◦ 경남교육기부(e-나누미) 운영 및 교육기부운동 ◦ 교육기부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생 자치활동 강화 ◦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 학생인권 감수성 교육 지원 • 친구사랑 운동 전개 • 봉사활동 내실화 	
제주 특별 자치도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확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중심 인성교육 실천 ◦ 사례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도덕, 국어, 사회) • 가정·학교가 함께 하는 효경교육 ◦ 밥상머리 교육 및 가족사랑 실천의 날 운영 ◦ 1010 책 읽어주는 아빠 운동 전개 • 사제동행 소통문화 조성 ◦ 너와 나의 약속, 매니페스토 실천 ◦ 학생회·동아리 중심의 바른 언어사용 캠페인 ◦ 1교 1특색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 인성 및 수련활동 ◦ 섬김 리더십 악영캠프, 가족 체험캠프 	○
		배려·나눔 교육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끈 잇기 내실화 ◦ 1:1 멘토링 활동 • 의녀반수 김만덕의 배려정신 계승 •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료: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라. 전국 보육정보센터별 인성교육 관련 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육정보센터는 시·도 및 일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2013년 현재 총 68개 센터에 이르고 있다(<http://central.childcare.go.kr/2013.10.7.인출>). 그 중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25개 센터이

며 12개 시·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 중 37%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이와 관련한 사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II-3-4〉 전국 보육정보센터 인성교육 사업 추진 현황

시도	센터명	사업 및 프로그램
서울	강남구	- 어린이대상 반편견 교육 인형극 개최 - 인성교육관련 교사교육
	강동구	- 누리과정을 연계한 인성함양 교사교육 하반기 1회 - 힐링 교사교육
	도봉구	- 부모교육 년 2회
	동대문구	- 자료제공: 교사온라인카페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안 (한국어린이인성교육연구회 발간)
	동작구	- 상반기 1회 "영유아 인성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마포구	-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상반기 3회)
	성동구	- "교사인성교육"
	영등포구	- 보육교직원 60명 대상, "유아인성교육"
	은평구	- "독거노인돕기 일손일자 프로그램"
부산	부산	- 부모교육: "창의인성교육과 창의성개발 부모역할 - 교사교육: "유아교육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계양구	- 교사교육 하반기 2회
인천	광주	- 교사교육: "보육교사 인성교육"
광주	경기	- 교사교육: 1회 실시. "영유아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제"
경기	군포시	- 자료제공: "인성교육우수실천사례집"
	성남시	- 교사교육: "교사인성강화교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안양시	- 자료제공: "부모인성자료집(가제)" 자체 발간
	광명시	- 교사교육: "보육교사 인성교육"
	울산	- 교사교육: "자기분석세미나"-교사인성함양
울산	울산	- 교사교육: 교사와 원장 각각 진행.
강원	강원	- 자료제공: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우수사례 및 적용 프로그램개발 수록
충북	충북	- 교사교육: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제"
충남	천안시	- 교사교육: "소통하는 원장으로 거듭나는 교육" (교직원 인성함양 목적)
전북	전북	- 교사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 인성교육 진행 (6개 어린이집 각 2회씩)
전남	전남	- 교사교육(연1회)
경남	진주시	- 교사교육: 3월 신학기준비 및 인성교육, 4월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직원 인성교육

자료: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교육 담당자의 전화 면접 조사 결과에 의함.

가장 수가 많은 사업으로는 영유아 인성교육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지역 센터도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볼 때 교육청에 비하면 사업의 규모가 작고 구체적이고 적은 사업의 숫자를 보이고 있으나,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만을 대하는 교사, 부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역할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교육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부족해 보이고, 동일 시·도 내에서도 기초 지자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전히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표 II-3-4 참조).

III. 외국의 영유아기 인성교육

본 장에서는 외국의 인성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진행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자 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나 덴마크, 스웨덴 등이 속하는 전자의 경우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고,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일본, 핀란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미국

가. 인성교육의 특징

미국은 다양한 민족아래 국가적 정체성과 통합 등에 대한 갈등을 겪어왔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인성교육은 국가의 통합과 더불어 훌륭하고 도덕적인 시민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학교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미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연계,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특히 초기 미국공립학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년 이후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의 미국 인성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법(No Child Left Behind)에 의한 인성교육의 주요덕목은 배려, 정의와 공정, 존중, 책임감, 진정성 또는 신뢰성, 봉사, 시민의 덕과 시민성 등으로 도덕성 뿐 아니라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다(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 2012).

또 다른 특징은 학교 외 사설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이다. 미국의 교육은 주정부와 그 하위체계인 지방정부에 일임되어 있어 교육구청의 주도에 의해 개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외에民間에 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 각 대학을 비롯하여 연구소 및 사설기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뿐 아니라 지도자 양성과정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연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문용린, 1995).

미국의 인성교육은 이를 학업적인 부분과 별개의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 및 문제행동의 감소 등 학교생활 전반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폭력, 성, 약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1)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⁴⁾

민간 비영리단체인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은 1994년,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과 에이린 R. 그로왈드(Eileen Rockefeller Growald)에 의해 설립되었다. CASEL은 국가 수준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학업·사회·정서 학습(ASELA)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회·정서 학습 도구를 지원한다(염철현, 2012).

CASEL의 SEL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의 근본적인 사회·정서적 역량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며, 다섯 가지 핵심역량으로서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인간관계 기술(Relationship),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을 강조한다 [그림 III-1-1]. 유아기 단계에서는 특히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영은, 2010).

4) 자료: casel 홈페이지(<http://www.casel.org>; 2013년 4월 30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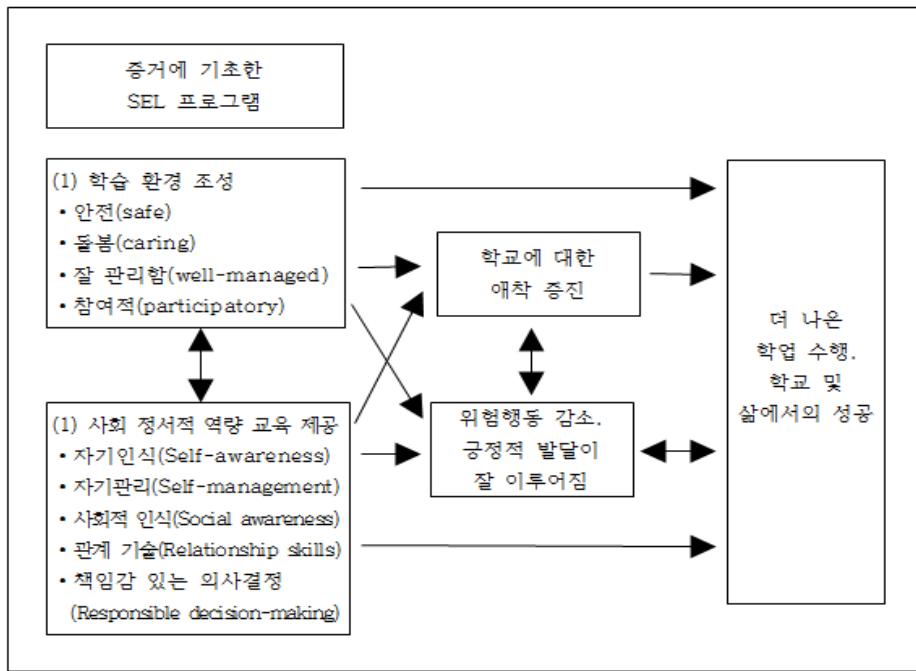
자료: CASEL 홈페이지(<http://www.casel.org>; 2013년 4월 30일 검색)

[그림 III-1-1]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핵심 역량

사회·정서 학습(SEL)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및 삶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안전하고 참여적이며 배려가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와 부정적인 행동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학업성적의 향상 및 삶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SEL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그림 III-1-2]에 제시하였다.

CASEL은 SEL 프로그램이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부모와 학교가 협력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장영은, 2010). 그것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 강조, 가정에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부모의 자녀 과제에 도움 제공, 학교 일에 대한 부모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녀의 담임교사와 의사소통 기회 갖기 등이다.

최근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SEL의 적용은 사회적 기술 습득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애착 증진, 건강하고 윤리적인 선택 증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저항,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기분을 다루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품행 문제, 공격적 행동, 정서적 문제 등의 고위험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CASEL 홈페이지(<http://www.casel.org>; 2013년 4월 30일 검색)

[그림 III-1-2] CASEL SEL 프로그램의 논리 모형

2) Tools of the Mind

앞서 살펴본 SEL과 같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관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기본 커리큘럼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의 도구(Tools of the Mind) 교육과정’은 매우 차별적인 접근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 러시아 출신의 Bodrova 박사가 Leong 박사와 함께 비고츠키 이론을 미국의 유아 교실에 들여 오겠다는 시도로 제시된 교육 방법으로, 인지 및 사회·정서적 자기조절(self-regulation) 향상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즉 인성교육의 기본요소로서 자기조절 능력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2013년 현재 미국 전역 18개 주 112개 교육청 및 보육시설 운영 단체와 캐나다의 토론토, 벤쿠버, 서레이 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Tools of the mind 홈페이지 <http://www.toolsofthemind.org>; 2013년 12월 23일 검색).

Tools of the Mind는 아동이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지적 역량을 발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습 과정에서 또래들과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기조절자’가 되어야 하고,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때 학생이 갖는 지위와 역할이란 학습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흥미를 가져야 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표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을 위한 노력과 결과 간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놀이할 줄 알아야 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교사-학생 간 관계와 전체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Tools of the mind 홈페이지 <http://www.toolsofthemind.org>; 2013년 12월 23일 검색).

이 접근에서 ‘자기조절’이란 자기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원하지 않더라도 하던 놀이를 멈추거나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순종이나 지시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조절력이 있는 아동은 만족 지연이나 충동 억제를 할 수 있고 행동 이전에 대안을 고려하며 가능한 결과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자기조절은 사회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행동에 모두 적용되는 능력으로, Tools of the Min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세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어린이는 6세에는 교사의 지시를 따를 줄 모르고 중고등학생 때는 반성적(reflective) 사고를 할 줄 모른다. (<http://www.toolsofthemind.org/philosophy/self-regulation>; 2013년 12월 23일 검색)

자기조절의 교육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조력(비고츠키의 비계: scaffolds)이며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통해 자기조절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실 중앙 집단활동이 자기조절을 배울 수 있는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자기자신이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이 커리큘럼의 보급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Bodrova와 Leong 박사가 이끌고 있는 Tools of the Mind 협회는 매년 이 교육과정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교재·교구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Tools of the Mind 교육과정을 가르칠 자격이 생긴다.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특히 남의 감정에 대해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이 접근의 교재와 지도 방법은 엄격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승인을 받은 교사에 한해서 보급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2) Second Step

Second Step 프로그램은 교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으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4세에서 1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충동적·공격적 행동 감소와 사회 정서적 능력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감(empathy), 충동조절 및 문제해결(impulse control and problem solving), 분노조절(anger management) 능력 향상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http://www.unomaha.edu>; 2013년 2월 20일 검색). 1986년 시애틀에 있는 아동위원회(Committee for Children) 최초로 개발한 아래 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반두라(A.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인지행동치료, 언어적 중재를 통한 자기조절을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학습방법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사진들을 보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모델링, 연습, 기술 강화, 역할놀이, 직접적 교수 등이 사용된다. Second Step 프로그램은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간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경우 주 1~2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메뉴얼에 따라 총 33개의 수업 카드가 있고 14주(일주일에 2회) 또는 28주(일주일에 1회)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참여 아동 및 청소년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며 화를 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히게 된다(Jakob, J. R., 2000).

이 뿐 아니라 6회기에 걸친 부모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내용이 가정에서도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표 III-1-1>과 같다(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 2012).

<표 III-1-1> Second Step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수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유아 및 초등 수준	사진으로 구성된 수업 카드, 교사 지침서, 교실 및 가정 비디오, 가정통신문 및 포스터, 손인형 및 노래 CD(유아에 해당)
중등 수준	수업 카드, 포스터 및 비디오, 교사 지침서, OHP 필름 자료, 과제를 위한 자료 및 가정통신문

자료: 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2012).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사용 메뉴얼 개발 연구. 법무부.

Second Step 프로그램은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격적 행동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쉬우며, 아동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Alvarez&Anderson-Ketchmark, 2009).

3) Get Real About Violence

Get Real About Violence 프로그램은 Second Step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학교 및 지역 기반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준별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Get Real About Violence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수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유치원~3학년	29회기의 수업, 비디오 3개와 포스터 3개
4~6학년	22회기의 수업, 비디오 2개, 포스터 2개와 오디오 자료
6~9학년	12회기의 수업, 비디오 3개, 포스터 3개, 오디오 자료와 놀이 카드
9~12학년	28회기의 수업, 비디오 7개, 포스터 3개, 놀이 카드와 CD

자료: <http://www.promoteprevent.org>(2013년 4월 30일 검색)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범위의 폭력 행동에 초점을 두고 폭력에 대한 갈등 해결 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250명을 대상으로 실험-통제 집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싸움에 덜 관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감소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보였다(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 2012).

4) 기타: CDP, LFS, VLF

CASEL에 따르면, 미국의 SEL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약 80개가 개발되었다(염철현, 2012). CDP(Child Development Project)도 사회·정서 학습(SEL)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생라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CDP는 협동학습, 공감 및 타인 이해 능력, 친사회적 행동의 학습, 원만한 대인관

계 능력, 도덕적 추론과 자기 통제 능력을 교육하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부모 용, 지역사회용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가 가능하다(문용린, 1995).

한편 캘리포니아는 변호사 협회 주관으로 법의식 교육(Law in a Free Society)을 실시하고 있다. 중요한 목표는 법에 대한 이해와 존경의 확산이며, 권위, 정의, 사적권리, 책임, 자유, 다양성, 소유, 참여의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대상은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이다(홍순정·강경희, 2011).

동부지역에서는 하버드대 로버트 셀만(R. Selman)을 중심으로 VLF(Voices for Love and Freedom) 즉, ‘사랑과 자유를 위한 이야기’가 개발되었다. 이는 자유와 사랑을 주제로 한 동화를 듣고, 토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인성을 기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문용린, 1995). 1996년부터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2. 일본

가. 유토리(ゆとり) 교육의 개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지폐’, ‘등교기피 현상’, ‘학급 붕괴’ 등은 일본 교육의 위기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종혁, 2007). ‘유토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여유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정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1970~80년대의 지나친 경쟁과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발이 집대성된 교육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여유(유토리) 교육’에서의 ‘여유’는 학생, 학교, 가정, 교사, 부모, 사회 전체의 여유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곽재석·구자역·김현진·김창환·정광희·최상덕, 2005). 또한 ‘여유 교육’에서의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여유나 생각하는 여유가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유는 학습자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나. 유토리 교육의 전개

일본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청소년들의 심신장애, 이지폐,

등교거부 등 각종 병리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일본 교육계는 그 원인을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주력하면서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지적으로는 우수하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간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열린 교육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인간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전후 처음으로 교과 시간수가 줄어들었으며, 교과 외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2년까지 이어져 ‘여유교육’의 실현 노력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1989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과열된 학력경쟁 개선을 위해 경쟁질서의 재편을 과제로 제기하면서, ‘주체적인 학습체험’을 도모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및 ‘마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학습 방식의 ‘생활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문부성의 교사용 해설서에는 ‘아동중심주의’의 사고를 도입하였다. 1995년 4월 발족된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는 1996년 7월 1차 보고서에서 ‘여유 속에서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2001년 1월에는 문부과학성이 ‘교육개혁 국민회의’의 교육개혁 권고안을 수용하여 소위 ‘레인보우플랜’이라 칭하는 ‘21세기 교육신생플랜’을 발표하였는데, 목표는 확실한 학력과 풍부한 마음의 육성, 즐겁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정비,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의 추진, 세계 수준의 대학 만들기 등이었다. 2002년부터 실시된 완전 학교 주 5일제 하에서 여유 있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전개해 아이들에게 풍부한 인간성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김지은, 2008).

그러나 2004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 고교 1학년(15세)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일본은 2000년 평가에서 8위였던 ‘독해력’이 14위로, 1위였던 ‘수학적 응용력’이 6위로 떨어져, ‘여유 교육’을 표방한 주 5일제 수업과 교과과정의 난이도 하향조정 등이 학력저하를 불러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문부과학성은 ‘확실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향상액션플랜’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2월, 새로운 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2일 공시·시행되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일본의 교육이 개인의 존엄성, 진리와 정의의 추구와 함께 공공정신을 존중하고 인간성과 창조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며 전통을 계승해야 함을 명시하였다(한겨레신문, 2007. 1. 13.).

결론적으로 2008년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30여년 만에 수업 시수를 늘림으로써 이제까지의 ‘여유 교육’ 노선을 전환하였지만 적어도 2000년 대 초기까지의 일본의 교육개혁은 학생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여유와 자유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더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 인성 중심의 유아놀이 교육

일본에서는 영재교육과 조기교육을 표방하는 명문 사립유치원 진학을 출세와 직결시키려는 부모들도 여전하지만 가혹한 이지폐 등 일련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근본적인 인성교육을 요구하면서 이를 표방하는 놀이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인성교육 방향은 *Cultivating Richness in Mind*로, 이는 학업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들의 휴머니티(humanity)와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Kokoro(心) no Note”(notebooks for moral education)을 보급하고 성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최준환 외, 2009 재인용).

일본의 인성교육은 주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민수, 2011). 일본의 인성교육 내용은 교사 및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기, 친구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친구에게 생각을 전하고 친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기, 친구의 장점을 이해하고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 경험하기, 친구와 함께 하는 일에 완수하려는 의지 갖기, 친구와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며 배려하기, 친구와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규칙의 중요함 알고 지키기, 지역사회와의 연장자나 다른 사람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등이다.

3. 핀란드

핀란드의 사례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KiVa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광의의 입장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가 아닌 초등 이상이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다른 아이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 컴퓨터 게임을 교육 방법에 도입하는 등 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장에 포함하였다.

가. KiVa 괴롭힘 방지(Antibullying) 프로그램 개요

핀란드는 정부차원에서 KiVa 왕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kivakoulu.fi>; 2013년 2월 20일 검색). 2009년 도입된 이래 2011년 기준 핀란드 전 학교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참여 학교에 비해 참여 학교의 학교폭력이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유아기는 제외되어 있다. KiVa 프로그램은 크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프로그램(universal program)과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시적 프로그램(indicated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교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위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KiVa 괴롭힘 방지(Antibullying) 프로그램의 특징

KiVa 프로그램은 또래 간 괴롭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학급 대다수 아이들이 관여하는 집단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괴롭힘에 참여하는 다양한 역할유형에 대한 연구와 공격적 아동, 특히 폭력 가해자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들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 2012).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를 돋는 주변인의 행동은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거나 증명하는 전략적 행동으로서의 괴롭힘을 쓸모없게 만들며 이러한 주변인의 행동변화가 가해자가 얻는 사회적 보상을 줄여 약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괴롭힘 행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의 행동을 변화 시켜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iVa 프로그램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방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효능감과 공감을 늘리는 방법을 제공하며, 괴롭힘에 반대하는 개인의 사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서 괴롭힘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른 아이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 가상 학습환경, 비디오 영상 수업, 소규모 그룹 활동 등이 진행된다.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한 학년도에 20시간을 희기로 하

여 구성되며, 괴롭힘을 유지시키는 집단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키고, 피해자를 돋는 전략을 증가시켜 피해자 방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구체적인 목표를 둔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7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KiVa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중재 시작 5개월 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9개월에도 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ivaprogram.net/program>; 2013년 2월 20일 검색). 또한 학교에 대한 선호, 학업 동기, 학업 성취에서도 역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식 접근을 하고 있는 미국, 정책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일본, 그리고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 환경에 영향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개입했던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을 어떤 것인가?

미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SEL은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활동과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둔다. 학교폭력을 줄이고 인성의 바른 성장을 위해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Second Step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 가이드 프로그램을 두고 교육내용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이 가정과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과 연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Tools of the Mind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교육내용에 있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 지도를 중요시함으로써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 접근에서는 특히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가 자기조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임으로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미국의 프로그램화 된 인성교육 과정들은 일정 회기 동안 정해진 교육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유치원에서, 어느 학교에서 진행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서와 잘 짜인 교육 자료가 수반되고 있다. Ger Real About Violence 프로그램에서는 유치원생일 경우 29회기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비디오와 포스터가 각 3개씩 부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의 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덕목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적 수업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 지도 내에서의 인성교육만으로 과연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애초 교육의 구상과는 달리 학력 저하 및 학습 의욕의 저하 등이 지적되면서 2008년 유토리 교육이 폐기에 이르게 되긴 하였으나 일본의 여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는 인성교육을 국가 수준에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 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아기 인성교육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인성 교육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인성교육의 포괄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행동적 측면(습관 형성과 같은)을 강조하는 것이 영유아시기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결국 내재적인 측면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할 때 영유아기 인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요소는 가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배려, 질서, 협력은 습관 형성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 국민적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KiVa 안티불링 프로그램은 비록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해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 아동, 특히 유아기에 있는 아동들의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유아가 있을 때 이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나더라도 타인을 괴롭히거나 나쁘게 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갖는 공감과 자기효능감 교육의 효과는 영유아기에 진행될 때 개인에 대해 매우 장기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연속적·심층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 또한 교육 방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접근법이다.

IV.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2012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 사업’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 시사점 등을 수집하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는 데 본 장의 목적이 있다. 아래 제시된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들은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부모 및 가정, 교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지역 내 자원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우수 유치원 사례

가. 공립 유치원의 경우

1) 연산유치원

가) 기관 특성⁵⁾

부산시에 위치한 연산유치원은 공립 단설 기관으로, ‘건강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서로 돋는 어린이’라는 교육 목표 하에 연령별 특색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월, 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총 3학급으로 개원 한 이래로 2008년에는 부산시 교육청 지정 표현생활 시범연구학교, 2009년도에는 부산시교육청 유치원 평가 최우수 유치원, 2010년도에는 흡연예방교육 시범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학급 수는 총 6학급으로 만 3세가 1반, 만 4, 5세가 각각 2반, 특수학급이 1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원아 수 130명과 교직원 22명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5) 자료: 연산유치원 홈페이지(<http://yonsan.kg.kr>; 2013년 6월 3일 검색)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기본생활습관 강조

연산유치원은 ‘질서, 배려, 협력’의 덕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이 고루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강조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서 통장 살찌우기’와 ‘다독 어린이 독서 인증제도’ 및 ‘꽃 울타리 만드는 다양한 책 읽기’ 활동을 통해 유아기의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바른 인성 첫 걸음’을 위한 연산유치원의 약속 실천(예의·질서·존중·협력의 생활화, 기본생활습관 교육), 녹색성장교육(학급별 텃밭 가꾸기), 애국조례를 통한 인성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예절실’ 운영을 통한 다도 교육 및 전통 예절 교육, 독거노인 돋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맛과 멋을 경험하고 ‘효’를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기르고자 하였다.

(2)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두며 일주일에 1회는 ‘가족의 날(Family Day)’로 정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에서 해본 활동을 가족이 함께 모여 경험해 보고 그 과정에서 유아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유치원에서 이야기해보거나 가족 활동 모습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가족 간 대화 증진과 공동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 문화의 기회가 제공되며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가족축제, 동전 모으기를 통한 사랑 나누기 등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지역사회 인사를 통한 인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3) 신체활동 확대

기초체력 증진을 통한 인성교육으로는 매일 아침 ‘워킹타임(운동장 걷기)’, 생활주제에 따른 ‘튼튼 체육의 날’, 기타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상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장애우와 더불어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시사점

연산유치원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양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속에서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인성교육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우와 더불어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기에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돋는 것은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평생동안 지속되는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실천은 바람직하다.

둘째,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의 인성교육은 가정 뿐 아니라 기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담당하는 인성교육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가족의 날(Family Day)' 활동은 가정에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을 연계하며 기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가족 축제, 지역사회 봉사, 녹색성장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동이 시행되고 있다.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발달의 균형을 이루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유아들의 인성교육에 바람직하다.

2) 중앙유치원

가) 기관 특성

대전시에 위치한 공립 단설 중앙유치원은 유아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에서 올바른 인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사람을 육성하고자 설립되었다. 중앙유치원은 1986년 개원하여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2007년 유치원 시범 평가 결과 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 학급 수는 총 6학급(종일 1학급, 특수 1학급 포함)으로 총 원아 수는 112명,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중앙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새싹'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새싹'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기

의 인성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은 6가지 인성덕목별 운영계획, 기본생활교육, 독서교육, 생태자연체험 활동, 복지시설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급별 인성관련 특색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싹’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6가지 인성 덕목(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을 중심으로 생활주제별 연간교육활동을 수립하고, 월 1회 원장의 인성조회, 주 1회 원감의 동화를 통한 인성교육, 요일별·학급별 유치원 청소 등 봉사활동, 칭찬 릴레이, 칭찬왕 선발, 소중한 친구, 효도의 날 실시 등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새싹’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와 교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인성교육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6가지 인성덕목별 내용을 고루 포함한 활동을 선정하여 생활주제별로 연간계획안을 수립한다. 인성교육의 내용과 활동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경험중심, 생활중심, 활동중심 인성교육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급별 인성교육,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생태자연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유아 인성조회, 인성 예절 교실,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 인성 바른 최우수 어린이 집과의 ‘영차프로젝트’ 협력활동 실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대전 중앙유치원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용
학급별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인성 특색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세 개나리반: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 만 3세 민들레반: 함께 하는 미술활동을 통한 표현능력 신장 - 만 4세 진달래반: 전래놀이와 동요를 통한 인성교육 - 만 4세 은방울반: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 만 5세 국화반: 리듬악기 놀이를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 - 만 5세 장미반: 그림 동화책을 활용한 유아의 창의·인성 기르기 ○ 원감선생님이 들려주는 인성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원감선생님이 각 학급을 순회하며 인성관련 책읽기 활동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독서 골든벨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유치원에서 연령별로 다른 인성관련 도서를 일정기간 동안 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한 후, 퀴즈를 풀어 최종 문제 까지 맞히는 유아는 징을 올리는 독서 골든벨 활동을 실시

(표 IV-1-1 계속)

활동	내용
생태자연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가꾸기 활동 - 산책활동을 하며 다양한 꽃들과 식물들을 살펴보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며 정서순화 활동을 실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나눔과 절제 생활을 위한 아나바다 - 시장놀이, 역할 공감 및 배려를 위한 병원놀이, 타인 존중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 존중과 질서교육을 위한 소방대피훈련, 원내 캠프 활동, 전통놀이 한마당 등의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교육

(2) 교원 인성교육

인성교육과 인성덕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기 바른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직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월 1회 또는 수시로 총 20회 전 직원 협의회를 실시하여 인성관련 업무 협의를 하고, 월 1회 총 8회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해 인성관련 연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앙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 인성교육 활동을 정리하면 <표 V-1-2>와 같다.

<표 IV-1-2> 대전 중앙유치원의 교원 인성교육 활동

활동	내용
교직원 전통 차 예절 연수	- 강사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3회에 걸쳐 전통 차 예절, 인사하기, 절하기, 방식에 앉는 법, 한복 입는 법 등의 연수 실시
인성 전문가 초청 강연	- 전문가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인성교육 관련 연수 실시
문화체험 활동	-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교직원 인성함양과 인성관련 역량 강화

(3) 가정·지역사회와의 인성교육 연계

인성 교육의 일상화를 위하여 가정과의 인성교육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인성교육 활동에 대한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영차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표 IV-1-3〉 대전 중앙유치원의 가정·지역사회 인성교육 연계

활동	내용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인성자료 리플릿 배부/홈페이지에 유아 활동 탐재 ○ 인성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 자녀의 인성교육을 포함한 부모 면담 및 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다비다의 집'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총 6회 '다비다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안마 해드리기, 신체·음률·동극 공연하기, 편지 드리기 등 활동 실시 - 어르신들의 유치원 방문을 통한 인성교육 2회 실시 ○ 최우수 바른 인성 어린이집과 유보 협력 '영차프로젝트' 선도 유치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인성교육 최우수 기관과의 인성 관련 활동 및 정보 등 협력으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시 - 인성교육을 위한 교직원 협의회 실시, 유아들의 각 기관 상호 방문

다) 시사점

중앙유치원의 인성교육의 특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유치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성 관련 리플릿을 가정에 배부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가정과의 연계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우수 인성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통한 인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단위로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또한 감소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일차적 교육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승미·장영은·박정은, 2011). 따라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 유아, 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모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 인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삼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 기관 특성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삼포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서 총 19명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고, 3세 6명, 4세 6명 등 12명, 그리고 5세 7명 등으로 구성된 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도 총 40명의 아동이 6학년까지 재학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서, 주변 환경은 홍천과 춘천의 경계지역 가까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 건물과는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는 별도로 떨어진 단독 단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교실은 공간이 넓은 편이다. 원래 하나였던 교실을 2013년 들어 2개로 분리, 개조하였다고 한다. 학교건물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며, 아동 수가 적은 탓에 도서관, 시청 각실, 영어교실, 회의실 등 다양한 실내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운동장 또한 매우 넓은 편이고 열린 정문 밖으로는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며 학교 뒤편으로는 낮은 산도 가까이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유치원 교사는 2명이고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감은 교감이 맡고 있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특징

삼포초등병설유치원의 인성교육이 가진 특징은 우선 누리과정에 충실하면서 생활주제에 따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덕목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삼포초등병설유치원은 특히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활동을 인성교육의 관련 덕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고 연간 계획 속에서 누리과정의 6가지 덕목이 제대로 키워지고 있는지 유아평가, 교육활동평가, 부모 평가 등을 통해 인성교육 운영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아동들과의 공동 활동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 현장 학습 등을 할 경우는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와 함께 하여 유아들이 형제 관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도서관이나 체육활동실, 영어교실 등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는 농어촌 유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환경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장 한 쪽에 아이들이 돌보는 텃밭이 있어 사계절 농작물 기르기를 가까이에서 하고 있고 근처에 숲이 있어 다양한 숲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농어촌의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내용

특징적인 구체적 교육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바깥 놀이 확대

바깥 놀이 확대를 통한 인성교육(“햇빛 놀이”)이다. 유치원교육과정 중 자연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자연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여 자연친화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텃밭 가꾸기, 산책, 산과 들, 숲을 이용한 체험활동, 식물기르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내 텃밭을 마련하고 모종 심기부터 수확하기까지 유아들이 밭작물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흥미,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기르도록 하고 홍천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하는 숲 유치원과 협약을 맺어 월별로 숲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나) 독서활동

독서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주제와 유아의 수준에 알맞은 도서를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하여 책 읽기를 생활화하고 다양한 독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가정연계를 위해 가정에 도서를 대여하여 부모로 하여금 자기 전 책 읽어주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사 또한 하루 한 권씩 책을 읽어주며 독서통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다문화 이해 및 장애통합교육

다문화 이해 및 장애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배려와 존중, 협력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다문화 이해와 장애통합교육을 위한 월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국가의 특징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장애에 대한 관심폭을 넓혀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라) 유·초 연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유·초 연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협의하여 교육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촌 학교이니 만큼 특히 체험활동이나 현장학습 시 함께 진행하여 학가족 사회에서 부족할 수 있는 형제관계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려와 협력의 태도를 기르고 있다.

다) 시사점

본 사례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삼포유치원은 전형적인 농촌의 소규모 유치원이지만 대규모-대도시 유치원에 비해 유아기 인성교육

을 위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형제 관계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지역 환경을 잘 활용하여 자연에 근접한 생활 속에서 자연과 함께 놀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키워나가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것이 결국 인성교육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색은 넓은 공간이다. 그 자체로 큰 건물은 아니지만 적은 수의 아동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넓은 운동장이나 텃밭은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무의식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경쟁보다는 서로 관용적이고 양보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이 주는 너그러움이 눈에 띄었다.

면담을 통해 봤을 때, 원장을 맡고 있는 교장의 역할 또한 병설유치원의 교육 수준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설유치원의 운영에 학교장이 얼마나 큼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지에 따라 유아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적 체험이 달라지므로, 병설유치원일수록 원장이 유아들에게 직접 ‘어른’으로서 다가가고 예절과 효,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1) 세아유치원

가) 기관 특성⁵⁾

서울시 강북 지역에 위치한 세아유치원은 사립 기관으로, 199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활동하는 유아, 연구하는 교사, 격려하는 부모’라는 교육방침 아래 활동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활동중심 통합교육과정은 ‘아동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가 연계되는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둔다. 또한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자발적으로 탐구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학급 수는 총 4학급으로 만 3세가 2반, 만 4, 5세가 각각 1반이며 총 원아 수는 71명이다. 교원은 원장 1인, 교사 5인, 강사 3인으로 총 9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아유치원은 2012년도,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자연친화교육

세아유치원은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자연물과의 교감을 중시하면서 특색활동으로 ‘자연친화교육’을 하고 있다. 매달 생활주제에 맞추어 특정의 자연물(예: 흙, 꽃, 곤충, 과일 등)을 선정하고 탐구하기(자연탐구), 놀이하기(의사소통, 신체건강운동, 사회관계), 표현하기(예술경험)의 활동형태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한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 그림책으로 접근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자연과 그림책을 접목하는 방식의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즉, 존중, 나눔, 배려, 협력, 질서, 효의 6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각 덕목이 잘 드러나는 그림책을 1주당 약 1권을 선정하여 그림책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각 덕목과 그림책의 주제는 해당되는 달의 생활주제와도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교육과정 안에서 전 활동에 걸쳐 인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유아들은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책 속의 자연물을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각 영역에서의 실제 활동과도 연계되며 점차 유아들의 흥미를 높여간다. 이에 따라 세아유치원의 내부와 외부 환경은 여러 가지 자연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들이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부모 참여

부모 참여를 통한 인성 교육의 효과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1년에 약 2회 정도 부모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학기에는 부모 참여 수업을 통해 자연 및 그림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인성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학기에는 그간에 이루어진 자연친화 활동을 토대로 하여 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연과 아름다움, 미술활동이 연계되어 나타난 작품 감상과 다양한 활동 체험을 통해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시사점

세아유치원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물과 그림책, 인성교육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자연물과 실제로 접촉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는 곧 자연 이외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

와 마음가짐과도 연결되므로 자연스럽게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 배려하고 돌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을 토대로 올바른 인성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을 중심으로 구성한 실내·외 환경과 함께 생활주제와 연계한 그림책, 자연물, 인성덕목 중심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성을 습득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안에서 행해지는 인성교육은 유아시기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

가) 기관 특성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한라대학교 부설유치원은 가정, 사회, 국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제주한라대학교 부설유치원은 2004년 개원하였고, 학급 수는 총 12학급으로 원아 수는 344명,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은 3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유치원이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제주한라대학교 부설유치원의 특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생활주제와 관련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사랑의 주인공, 고·미·안 운동, 하루에 1가지 칭찬하기, 편지쓰기 등 실천 위주의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1) 특징

놀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바르게 인사하기, 고운말 쓰기 등 기본예절교육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주제에 맞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인성교육을 강화한 특색교육으로 5세는 제주오름 등반활동, 4세는 창의쑥쑥 입체활동, 3세는 감각을 깨우는 자연활동, 방과후 5세는 자연친화교육, 방과후 4세는 자연이 주는 행복한 놀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내용

(가)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초 인성 확립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본생활습관교육을 통해 유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놀이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기본과정의 내실화와 올바른 인성습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교육내용과 주제의 활동에 맞게 인성교육의 덕목을 바탕으로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매일 바깥놀이와 대근육활동을 1시간 이상 확보하여 산책, 복합놀이시설 이용, 운동놀이, 물·모래놀이, 동·식물 관찰 및 기르기, 텃밭 가꾸기 등 실외활동을 운영한다.

(다)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바르게 인사하기, 고운말 쓰기 등을 강화한 고·미·안 운동을 전개하여 인성교육의 덕목인 배려, 존중, 협력, 효, 나눔, 질서 등의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하고 남을 배려하는 품성의 기초를 마련한다.

(라)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인 유아의 발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화, 개별면담을 통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가정에서의 바른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노력한다.

(마) 교직원 인성교육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 및 연찬회, 동아리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연령별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교사들 간의 수업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인성교육 연수 및 원격 연수를 통한 바른 인터넷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매월 ‘교원 연수의 날’을 정하여 교원들 간의 교감을 나누며 협력하고, 양로원 방문을 통해 인성교육의 덕목인 효와 나눔,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3) 인성교육 활동의 예

제주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은 연령별, 학급별, 부모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인성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면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제주 한라대부설유치원의 유아 인성교육 활동

활동명	내용
사랑 나눔 가족축제	○ 대상: 모든 연령, 부모 -놀이마을, 맛있는 세상, 건강마을, 사랑과 나눔의 배움터, 포토마을, 호기심마을, 협동놀이 마을
사이버 인성교육 인터넷 교육	○ 대상: 모든 연령 -인터넷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총 10회 과정으로 구성한 후 4~11월 중 자유롭게 전개
감각을 일깨우는 자연활동	○ 대상: 3세 -생활주제와 유아의 빨달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월 1-2회 실시(산책활동, 미각교육 등)
자연이 주는 행복한 놀이	○ 대상: 4세 -꽃물을 들여요, 가을 열매로 만든 곤충들, 꿀 비누 만들기
아기용마들의 축제	○ 대상: 모든 원아, 부모 -1부 열린마당, 2부 흥겨운 마당, 3부 모다드렁 한마당

다) 시사점

제주한라대학교 부설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주오름 등반활동, 감각을 깨우는 자연활동 등 자연친화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유아기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을 가진 것들과 공기, 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탐색과 관찰을 통해 가까이서 느끼고 교감하는 활동에서 오는 역동적인 느낌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로움을 증진시켜주며 나아가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르게 한다. 또한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책무성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성 덕목이다(류청산·진홍섭, 2003). 그러나 자연체험 활동을 통한 관찰 학습에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인성교육과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인 인성교육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우수 어린이집 사례

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 상록수어린이집

가) 기관 특성

상록수어린이집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으로, 1983년 9월에 '행촌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다. 1996년, 종로구립 상록수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로 2005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2006년에는 종로구 우수보육사례 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2009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로 지정되었다. 2010년에는 종로구 우수보육시설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지정, 2012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본 기관은 0세의 영아에서 취학 전 유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기쁨을 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급 수는 총 8학급으로 만 0~1세가 1반, 만 2~4세가 각각 2반, 만 5세가 1반이며 총 원아 수는 163명이다. 교원은 원장 1인, 담임교사 13인, 시간연장교사 3인, 비담임교사 3인, 취사부 2인 외에 보육도우미, 영양사, 차량기사, 간호조무사가 각 1인으로 총 25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상록수어린이집 운영안내, 2013).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상록수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롱잔치 등을 개최하여 나눔과 공경을 실천하고 있으며, 인근에 있는 약 10여개의 박물관을 활용하여 '박물관아 놀자'라는 주제로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처 공원에서 '동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무대에서의 예절과 예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가을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숲 체험' 등 가족 연계 활동을 통한 인성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나바다 바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 중 하나로 약 14명의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이 되며 영유아들은 이를 통해 근검과 절약 정신을 길러나가게 된다. ‘독서 통장’을 실천하면서 공공의 물건을 아껴쓰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절교육 및 전통놀이

예절교육과 전통놀이를 통한 가르침도 본 기관 인성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연수를 통해 국악, 전통놀이를 체험함으로써 교사들의 인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들의 경우에는 북 등의 전통악기를 다름으로써 전통과 예의범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전통놀이를 생활화하고 있다.

(3) 주제 관련 인성덕목 실천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매월마다 질서, 존중, 효, 나눔, 배려 등의 인성교육 덕목을 선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연령별로 수준과 기간을 달리하여 계획하고 있다.

(4) 바깥놀이

영아반에서는 질서 지키기, 인사하기 등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강조하며 바깥놀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책을 하면서 얻는 일상생활에서의 배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 시사점

상록수어린이집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유아의 인성교육이 가정 또는 기관의 책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동시에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과 지원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천은 의미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요축제나 숲 체험, 바자회 등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는 영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약정신과 질서, 나눔,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성의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봄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바른 인성을 형성해나가도록 돋는 것은 영유아들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효자어린이집

가) 기관 특성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효자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로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원은 150명이나 현원은 134명이며 교직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중 다문화가정 출신 아동이 6명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춘천시 중 맞벌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지로 구시가지의 중앙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층 또는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며 어린이집 건물도 오래된 듯 보인다. 원장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신축 허가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가며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그마한 잔디밭과 놀이터가 딸려있는 이층 건물이다. 어린이집에 이웃하여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이 센터와 다문화 교육 관련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매주 다문화 여성아동이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 실습 등을 하고 보조 인력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가정연계를 통한 아동 개개인의 특성 이해

효자어린이집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기본이라고 보고 원장과 교사들은 아동 발달과 진단, 부모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자체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즉 영유아 개인의 환경, 부모, 발달적 특성, 행동, 언어습관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접근을 활용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어 심리치료나 지역 사회 내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말을 활용하여 아버지 캠프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2) 지역사회 문화 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정서안정과 인성교육

아동의 문화적 경험과 인성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 지역 사회 문화에 특히 관심이 많은 원장은 직접 지역문화(소양댐, 청평사, 김유정문학촌 등) 해설사 교육을 받아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을 위해서는 10

주에 걸쳐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명화 감상’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원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예절교육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써서 ‘효자어린이집’ 출신 아동들이 기본 생활이 ‘반듯하다’라는 지역 내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여성 인력이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울려져 생활하는 데 편견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시사점

효자어린이집 사례는 영유아들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문화체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성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사회가 가진 문화적·인적 자원을 잘 이용하여 예술대 교수를 초빙하기도 하고 다문화 어머니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여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연계가 바르게 기능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원장은 꾸준히 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해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효자어린이집 아이들은 밖에서 많이들 칭찬을 들어요. 체험활동 같은 걸 가면 누구보다 질서를 참 잘 지킨다고 주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인사 잘하고 쓰레기 줍기도 잘 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길, 엄마 일을 스스로 잘 도우려한다든지 바른 태도를 보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꾸준한 인성교육만이 아이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효자어린이집 원장 면담 중, 2013년 9월 12일)

효자어린이집 사례는 원장의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교사와 부모, 그리고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더하여 특색 활동으로서 문화적 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교사와 부모교육에도 활용한다. 특히,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의 위치와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과 저소득, 맞벌이가 많은 지역 환경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문화체험을 통한 아동의 인성발달을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으로 보인다. 지역환경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특색 활동을 구안하여 인성교육과의 연결점을 찾는 사례이다.

3) 삼도어린이집

가) 기관 특성

삼도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공립 어린이집으로, 2006년 3월에 개원하였다. 2008년,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평가 재인증 심사에 통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원훈은 “마음껏 놀고 정성껏 돋고 힘껏 생각하는 행복한 어린이”이다. 학급 수는 총 8학급으로 만 1세 1반, 만 2~4세가 각각 2반, 만 5세가 1반이며 총 원아 수는 89명이다. 교원은 원장과 원감 각 1인, 교사 13인(시간연장 교사 2인 포함), 차량 담당,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5인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삼도어린이집 운영안내, 2013).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누리과정의 충실햄 이행

삼도어린이집은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즉, 누리과정 안에서 나눔 포스터 만들기, 송편 빗기를 통한 효와 나눔 실천, 장애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가정 연계(부모 참여)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현장학습 김밥도우미 참여, 단오제 부모참여 수업, 1박 2일 가족힐링캠프, 인성관련 부모 교육을 실시(2달에 1회)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족 규칙 만들기, 요리 실습 등의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인성교육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교사 인성 함양 강조

교사들의 인성 함양 및 교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독서를 권장하고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 시사점

삼도어린이집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통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이 기관에서의 교육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볼 때 인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가족힐링캠프 등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삼도어린이집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인성 함양과 교양 수준을 먼저 높이고자 실천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인성이 영유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법인 및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1) 수정삼성어린이집

가) 기관 특성

부산시에 위치한 수정삼성어린이집은 삼성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인 어린이집으로 1995년에 개원하여 2004년,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현장체험사례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2012년 부산지역의 인성교육 최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학급 수는 만 1~5 세까지 총 5학급으로 총 원아 수는 132명,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은 1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특징

수정삼성어린이집에서는 ‘마음씨앗 가꾸기’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은 교수, 프로그램 개발자, 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교사교육과 전문가의 현장방문 지원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유아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통제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

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 호기심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덕목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있다.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효과검증 연구를 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친사회적 행동, 자기조절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삼성어린이집에 보급·적용되고 있다.

(2) 내용

(가) 프로그램의 구성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은 기존의 삼성보육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2007)’을 기초로 ‘표준보육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통합·연계하여 2012년 새롭게 보완하였다.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생활습관, 자아개념, 대인관계, 주도성, 도덕성으로 선정하고, 연령별로 강조하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연령에 따른 인성교육활동의 예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에 제시된 활동은 총 480개로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누적적, 반복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표 IV-2-1〉 수정삼성어린이집 연령별 인성교육 활동의 예

연령	활동명	구성 요소
만 1세	- 혼자서도 푸카푸카	기본생활습관·개인생활습관
	- ‘안녕’하고 기분좋게 인사해요	기본생활습관·공동생활습관
만 2세	- 선생님, 친구와 인사해요	기본생활습관·공동생활습관
	- 혼자서도 잘해요	자아개념·인지적 자아
만 3세	-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아요	대인관계·협력
	- 친구에게 연하장을 보내요	대인관계·의사소통
만 4세	- 내가 키웠어요	주도성·성취동기
	- 사랑의 쿠폰	도덕성·도덕적 행동
만 5세	- 소중한 자연, 내가 지켜요	도덕성·도덕적 판단력
	-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요	도덕성·도덕적 행동

1~2세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3세는 대인관계를, 4~5세는 주도성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령에 적합한 인성교육 활동을 1주에 2

개 반복 학습을 통해 심화하여 적용하고, 가정에서도 연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인성교육 활동의 예는 <표 IV-2-1>에 제시하였다.

(다) 인성교육 지도 원리

'마음씨앗 가꾸기'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는 통합성, 지속성, 관계성, 자율성, 체험중심의 5가지 원리에 따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발달 수준, 흥미를 기초로 가정·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진행한다. 둘째, 꾸준한 반복과 일관성 있는 지도로 내면화, 습관화되도록 진행한다. 셋째, 교사·영유아·부모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한다. 넷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평가해보도록 안내하고, 격려한다. 다섯째,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행동하도록 한다.

다) 시사점

수정삼성어린이집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1~2세는 기본생활습관, 3세는 대인관계, 4~5세는 주도성과 도덕성으로 연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중점 내용을 정하여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확산이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면 향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요소에 있어서도 발달 특성상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인성 요소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가) 기관 특성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 종사자 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이다. 2008년에 배재학당과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당해년도 3월에 개원하였다. 2009년에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을 통과하였고 2013년에 평가 재인증을 받았다. 2012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본 기관은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행복한 어린이’를 원훈으로 삼고 있다. 만 1~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 96명과 유아 204명으로 총 300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다. 연령별 각 4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은 원장과 원감 각 1인, 담임교사 28인 외에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원, 관리인, 위생원 등 총 49명의 교원이 있다. 부지가 넓은 장점을 활용하여 실외놀이터 2곳이 갖추어져 있고 평일 17:30~22:30까지 시간외 연장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운영계획서, 2013).

나) 인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

(1) 6가지 인성교육 덕목 실천

본 어린이집은 원훈에 해당하는 ‘도덕적인 어린이’에 중점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실천해왔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는 6가지 즉, 예절, 질서, 나눔, 협력, 존중, 절제의 덕목을 선정하여 생활주제에 따라 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아의 경우 특히 ‘협력, 존중, 절제’ 덕목을 중심으로, 영아의 경우 ‘예절, 질서, 나눔’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절약을 하거나 영유아들 간 다툼이 줄어드는 등 ‘절제’와 ‘나눔’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만남’을 통한 바른 인성 배양 교육 프로그램

본 어린이집의 특징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는 ‘만남을 통한 바른 인성 배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7가지 항목(조부모, 부모, 친구, 동생, 지역사회, 그림책, 자연)을 중심으로 ‘만남’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각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활동의 예는 <표 IV-2-2>와 같다.

(3) 교사교육

자체연수인 부장교육 연수에서는 연령별 부장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연령별 인성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계획을 세운다. 외부연수의 경우 공문 공람을 통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2〉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예

항목	활동
조부모	-‘실버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조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할머니, 할아버지께 부채 선물하기, 영상 편지 보내드리기, ‘절기’와 연계하여 전통, 예절, 효 등에 대해 다루어보는 기회 제공
부모	-어린이집에 놀잇감 제공 등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지역사회	-배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나눔 실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물놀이 등의 행사를 개최
그림책	-영유아들의 인성함양에 적절한 주제를 다룬 그림책을 선정하여 제공
자연	-거북이, 물고기 기르기 등을 통해 동식물과 친밀감을 갖게 하며 영유아들의 정서를 다루어 줌

다) 시사점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얻게 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6가지를 선정하여 생활주제에 따라 해당 덕목을 실천하였다. 모든 덕목에 대한 교육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연령별, 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덕목을 매달 한 가지씩 중점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둘째, ‘만남’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영유아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성교육 우수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인성교육 우수 기관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각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들을 한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의 <표 V-3-1>과 같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시 둑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숲이나 동물, 식물 등 자연에 대한 체험이나 예술과 문화, 전통놀 이를 체험하는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이 결국 인성교육의 가장 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데 기관장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 사례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우수기관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아이들과 가까운 산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가고 추운 겨울에도 조심하면서 애들과 함께 가지요. 등산을 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간에 협동과 배려의 기회가 생기고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탁 트인 정상에 오르면, 올라가면서 힘들었던 것 보다 거기서 느끼는 희열을 아이들도 한껏 맛볼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무의식적 일상적 스트레스를 날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 인성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해요. (2013년 4월 서울 S유치원 원장 면담)

둘째,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가능한 환경 속에서 넓은 공간을 향유하게 하고 신체적 활동을 최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의 첫 번째 요소와도 상통하는 면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속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실내 공간은 개개인으로 보면 결코 충분히 넓은 공간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바깥놀이 시간을 늘려 공간적 여유를 주고자 한다는 점이 초점이 된다. 사방이 벽으로 싸인 실내 공간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신체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함으로써 좁은 공간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 주려는 의도이다. 연산유치원이나 삼포초등병설유치원의 신체활동 강화, 바깥놀이 시간 최대화 등의 방법이 이러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성교육 우수 기관은 인성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한 잘 활용하고 있다. 연산, 중앙, 삼포초, 사이언스신성 등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정·부모와의 지속적인 연계성 유지가 인성교육의 성공과 관련이 있음을 꼽았다.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활동과 주제를 부모에게 잘 전달하고 가정에서 연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이 가진 인성적 문제가 부모와의 협력 속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있을 때 이를 잘 활용하고 아동들이 가정과 기관을 넘어서 사회가 있고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가야 한다는 기본적 개념을 가지게 하는 것 또한 인성교육에서 꼭 필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표 IV-3-1〉 인성교육 우수 사례 종합

구분	특징적 요소	시사점	
연산	-가정·지역사회 연계('가족의 날') -신체활동 확대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의 통합적 지원	
중앙	'새싹' 바른 인성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교원, 가정 및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극대화	
유치원	삼포초 병설	-바깥 놀이 확대('햇빛 놀이') -다문화 이해 및 장애통합교육 -유·초 연계 활동	-바깥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의 지속성 극대화
	세아	-자연친화교육	-자연을 통해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 및 존중감 갖기
	한라대 부설	-놀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체험을 통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전개
	상록수	-지역사회 자원 활용(동요 축제, '박물관아 놀자') -예절교육 및 전통놀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동의 다양화 -전통놀이를 통한 예절 습득
어린 이집	효자	-다양한 문화적 경험 제공	-다양한 문화적 경험 제공을 통한 정서안정과 인성교육
	삼도	-누리과정의 충실히 이해 -가정 연계(부모 참여) -교사 인성 함양	-누리 공통 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방안 마련 -교사 인성의 중요성 강조
	수정삼성	'마음씨앗 가꾸기'	-연령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이언스 신성	'만남'을 통한 바른 인성 배양	-관계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V.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실태와 요구

본 연구에서 진행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현황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교사와 부모의 요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가. 응답자 특성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000개원을 표집하여 각 기관의 원장 또는 교사 1명과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연령이 높은 반일수록 인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여 교사의 경우 가능한 한 연령이 높은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원장과 교사, 부모가 각각 1,004명으로 총 2,00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V-1-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교사		부모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전체	100.0(1,004)	전체	100.0(1,004)
성별	남 여	0.9(9) 99.1(995)	2.8(28) 97.2(97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9.4(295) 37.5(377) 25.7(258) 7.4(74)	2.5(25) 69.1(694) 26.6(267) 1.8(18)
근무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50.2(504) 49.8(500)	중졸 이하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5(5) 24.3(244) 30.7(308)

(표 V-1-1 계속)

교사		부모	
구분	비율(빈도)	구분	비율(빈도)
기관 유형	유치원	공립 19.4(195) 사립 30.8(309)	학력 4년제 대학 졸업 41.6(418) 대학원 재학 이상 2.9(29)
	어린이집	국공립 5.2(52) 법인 2.9(29) 법인 외 1.1(11) 민간 39.9(401) 직장 0.7(7)	가구 250만원 미만 3.9(39) 250~350만원 미만 26.5(266) 350~450만원 미만 35.9(360) 450~550만원 미만 21.9(220) 550만원 이상 11.9(119)
	직위	원장/원감 16.1(162) 교사 83.9(842)	관리자 6.9(69) 전문직 10.3(103) 사무 종사자 52.6(528)
	경력	5년 미만 24.1(242) 5~10년 미만 35.6(357) 10~15년 미만 20.1(202) 15년 이상 20.2(203)	직업 (부) 서비스 종사자 10.0(10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7.2(72) 장치/기계조작 종사자 2.7(27) 기타 9.0(92) 무응답 1.3(13)
	기간	현 1년 미만 6.4(64) 기관 재직 1~3년 미만 40.6(408) 3~5년 미만 22.1(222) 5년 이상 30.9(3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9(541) 비맞벌이 46.1(463)

나. 교사와 부모의 인식

1) 인성교육의 의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V-1-2>와 같다. 전체의 48.8%가 인성교육의 의미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배려·양보하는 행동 배양이 23.2%, 이해·공감 자세 배양이 13.0%, 윤리·도덕적 덕목 교육이 7.7%, 자기 존중 태도 배양이 5.1%, 규칙, 질서 준수가 0.8%, 부모, 교사에게 순종이 0.7%, 전통적 덕목 교육이 0.6%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 간 배려·양보하는 행동습관 형성 19.4%,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 형성 11.9%, 윤리·도덕적 덕목 교육 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 모두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교사와 영유아의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은 대부분 기본생활습관 형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2〉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의미

단위: %(명)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배려· 양보 행동 지도	이해· 공감 양성	윤리· 도덕적 덕목 교육	자기 존중 태도 배양	규칙· 질서 준수	부모· 교사에 순종	전통적 덕목 교육	계	$\chi^2(df)$
교사	48.8	23.2	13.0	7.7	5.1	0.8	0.7	0.6	100.0(1,004)	
부모	47.5	19.4	11.9	8.5	5.0	4.2	2.5	1.1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49.4	22.0	15.3	6.9	3.8	1.0	1.0	0.6	100.0(504)	11.4(7)
어린이집	48.2	24.4	10.8	8.4	6.4	0.6	0.4	0.6	100.0(500)	
교사경력										
5년미만	53.3	20.2	12.0	8.3	4.5	1.2	0.0	0.0	100.0(242)	
교 5~10년미만	46.5	26.3	13.4	6.7	5.0	0.6	0.3	1.1	100.0(357)	26.1(21)
사 10~15년미만	47.5	20.3	13.4	9.4	5.9	1.5	1.0	1.0	100.0(202)	
15년이상	48.8	24.1	13.3	6.9	4.9	0.0	2.0	0.0	100.0(203)	
지역유형										
대도시	47.6	22.3	11.8	10.7	5.7	0.7	0.2	0.9	100.0(422)	
중소도시	49.0	23.8	14.9	4.8	4.8	1.0	1.2	0.4	100.0(504)	23.2(14)
농어촌	53.8	24.4	7.7	10.3	3.8	0.0	0.0	0.0	100.0(78)	
연령										
30대이하	48.5	19.1	10.7	8.1	5.7	4.6	2.2	1.1	100.0(719)	
40대이상	44.9	20.4	14.7	9.5	3.2	3.2	3.2	1.1	100.0(285)	8.4(7)
학력										
고졸이하	51.8	20.9	10.4	5.6	3.6	4.4	2.0	1.2	100.0(249)	
대졸이상	46.1	18.9	12.3	9.4	5.4	4.1	2.6	1.1	100.0(755)	7.0(7)
부 가구소득(단위:만원)										
모 250미만	43.6	17.9	23.1	5.1	5.1	0.0	5.1	0.0	100.0(39)	
250~350미만	50.0	18.4	9.8	7.9	4.5	5.6	2.3	1.5	100.0(266)	
350~450미만	41.9	23.1	12.2	8.1	6.4	5.6	1.9	0.8	100.0(360)	35.5(28)
450~550미만	55.0	15.0	9.5	9.1	5.0	1.8	3.2	1.4	100.0(220)	
550이상	46.2	19.3	16.0	10.9	1.7	2.5	2.5	0.8	100.0(119)	
자녀연령										
영아	56.7	9.3	13.4	10.3	4.1	4.1	1.0	1.0	100.0(97)	
유아	46.5	20.5	11.7	8.3	5.1	4.2	2.6	1.1	100.0(907)	9.3(7)

2)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77.0%)와 비교적 중요하다(22.2%)는 의견이 전체의 99.2%로 대부분의 교사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교사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86.7%)는 응답에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모들에게 질문한 결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조금 중요함에 26.7%, 보통 2.1%,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50만원 이상인 부모와 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매우 중요하다(82.4%, 70.7%)는 응답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1-3〉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

단위: %(명)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chi^2(df)$	평균
교사	0.1	0.7	22.2	77.0	100.0(1,004)		4.76
부모	0.7	2.1	26.7	70.5	100.0(1,004)		4.67
기관유형							
유치원	0.0	0.8	19.8	79.4	100.0(504)	4.6(3)	4.79
어린이집	0.2	0.6	24.6	74.6	100.0(500)		4.73
교사경력							
5년미만	0.0	0.8	26.4	72.7	100.0(242)		4.72
5~10년미만	0.0	0.8	22.7	76.5	100.0(357)	19.0(9)*	4.76
10~15년미만	0.5	0.5	25.7	73.3	100.0(202)		4.72
15년이상	0.0	0.5	12.8	86.7	100.0(203)		4.86
교사연령							
20대	0.0	1.0	25.8	73.2	100.0(295)		4.72
30대	0.3	0.8	24.7	74.3	100.0(377)	16.3(9)	4.73
40대	0.0	0.4	18.2	81.4	100.0(258)		4.81
50대이상	0.0	0.0	9.5	90.5	100.0(74)		4.91

(표 V-1-3 계속)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비교적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계	$\chi^2(df)$	평균
지역유형							
교 대도시	0.2	0.9	20.4	78.4	100.0(422)		4.77
사 중소도시	0.0	0.6	23.2	76.2	100.0(504)	3.9(6)	4.76
농어촌	0.0	0.0	25.6	74.4	100.0(78)		4.74
성별							
모	0.6	2.0	26.6	70.7	100.0(976)	3.9(3)	4.67
부	3.6	3.6	28.6	64.3	100.0(28)		4.54
연령							
30대이하	0.7	2.6	25.5	71.2	100.0(719)	5.3(3)	4.67
40대이상	0.7	0.7	29.8	68.8	100.0(285)		4.67
학력							
부 고졸이하	1.2	1.2	31.3	66.3	100.0(249)	6.0(3)	4.63
모 대졸이상	0.5	2.4	25.2	71.9	100.0(755)		4.68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0.0	20.5	79.5	100.0(39)		4.79
250-350미만	0.4	3.0	31.6	65.0	100.0(266)		4.61
350-450미만	1.4	2.2	29.7	66.7	100.0(360)	22.8(12)*	4.62
450-550미만	0.5	1.4	22.7	75.5	100.0(220)		4.73
550이상	0.0	1.7	16.0	82.4	100.0(119)		4.81
자녀연령							
영아	0.0	6.2	24.7	69.1	100.0(97)	9.5(3)*	4.63
유아	0.8	1.7	26.9	70.7	100.0(907)		4.67

주: 각 경우의 기대빈도가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 $p < .05$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청소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65.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17.7%),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 교육 약화(12.5%),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4.4%) 순이었다.

이는 지역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농어촌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와는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로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약화(14.1%)를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10.3%)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핵가족화가 덜 된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1-4〉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교사와 부모의 인식)

단위: %(명)

	청소년, 핵가족화로 성인기까지 영향	핵가족화로 개인기주의 팽배	지식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 약화	가정에서 인성교육 부재	계	$\chi^2(df)$
교사	65.4	17.7	12.5	4.4	100.0(1,003)	
부모	57.1	21.1	16.6	5.2	100.0(996)	
기관유형						
유치원	66.1	16.7	13.1	4.2	100.0(504)	1.2(3)
어린이집	64.7	18.8	11.8	4.6	100.0(499)	
교사경력						
5년미만	63.2	16.5	16.9	3.3	100.0(242)	
교 5~10년미만	67.5	18.5	10.4	3.6	100.0(357)	
사 10~15년미만	67.2	18.9	9.0	5.0	100.0(201)	12.2(9)
15년이상	62.6	16.7	14.3	6.4	100.0(203)	
지역유형						
대도시	69.4	17.3	8.6	4.8	100.0(421)	
중소도시	61.3	19.2	15.5	4.0	100.0(504)	15.2(6)*
농어촌	70.5	10.3	14.1	5.1	100.0(78)	
성별						
모	57.2	21.3	16.5	5.1	100.0(969)	
부	55.6	14.8	18.5	11.1	100.0(27)	2.4(3)
연령						
30대이하	58.3	21.0	15.3	5.3	100.0(713)	
40대이상	54.1	21.2	19.8	4.9	100.0(283)	3.2(3)
학력						
고졸이하	51.8	23.3	20.4	4.5	100.0(245)	
부 대졸이상	58.9	20.4	15.3	5.5	100.0(751)	5.6(3)
모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74.4	20.5	5.1	0.0	100.0(39)	
250-350미만	51.1	22.3	18.6	8.0	100.0(264)	
350-450미만	55.8	23.7	15.8	4.8	100.0(355)	20.5(12)
450-550미만	63.0	16.9	15.5	4.6	100.0(219)	
550이상	58.0	18.5	20.2	3.4	100.0(119)	
자녀연령						
영아	64.9	23.7	7.2	4.1	100.0(97)	
유아	56.3	20.8	17.6	5.3	100.0(899)	7.4(3)

* $p < .05$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성교육은 이미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아이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21.4%, 특기교육 등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 17.9%, 인성은 타고난 것이므로 교육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3.6%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적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30대 이하(54.2%), 고졸 이하(66.7%)인 부모가 가정 및 기관교육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 250-350만원 미만인 부모가 가정 및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1-5〉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부모의 인식)

	단위: %(명)						
	가정 및 기관교육 으로 충분	인성적 문제가 없음	기타 특기교육 우선	교육적 접근은 맞지 않음	기타	계	X ² (df) [*]
전체	53.6	21.4	17.9	3.6	3.6	100.0(28)	-
성별							
모	53.8	19.2	19.2	3.8	3.8	100.0(26)	-
부	50.0	50.0	0.0	0.0	0.0	100.0(2)	-
연령							
30대이하	54.2	20.8	20.8	4.2	0.0	100.0(24)	-
40대이상	50.0	25.0	0.0	0.0	25.0	100.0(4)	-
학력							
고졸이하	66.7	0.0	16.7	0.0	16.7	100.0(6)	-
대학이상	50.0	27.3	18.2	4.5	0.0	100.0(22)	-
가구소득(단위:만원)							
250-350미만	77.8	11.1	11.1	0.0	0.0	100.0(9)	-
350-450미만	38.5	30.8	23.1	7.7	0.0	100.0(13)	-
450-550미만	50.0	0.0	25.0	0.0	25.0	100.0(4)	-
550이상	50.0	50.0	0.0	0.0	0.0	100.0(2)	-
자녀연령							
영아	66.7	16.7	16.7	0.0	0.0	100.0(6)	-
유아	50.0	22.7	18.2	4.5	4.5	100.0(22)	-

주: 경우의 수가 통계치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3) 인성교육의 목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도덕적 인품 함양'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성 향상 26.9%, 올바른 자기 이해 16.0%, 공감·이해 능력 향상 14.9%,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 11.3%, 학교·사회 폭력 예방 2.3%, 경쟁력 갖춘 개인으로의 성장 0.7%, 학교 적응력 향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6〉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목적

										단위: %(명)
	도덕적 인품 함양	사회성 향상	올바른 자기 이해	공감·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	학교·사회 폭력 예방	경쟁력 갖춘 인간	학교 적응력 향상	계	X ² (df)
교사	27.1	26.9	16.0	14.9	11.3	2.3	0.7	0.6	100.0(1,004)	
부모	26.1	21.2	20.5	19.2	6.0	4.8	1.3	0.9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28.2	23.0	16.3	15.9	13.5	1.6	0.6	1.0	100.0(504)	18.2(7)*
어린이집	26.0	30.8	15.8	14.0	9.0	3.0	0.8	0.2	100.0(500)	
교사경력										
5년미만	30.6	26.0	15.7	14.0	7.9	2.9	1.7	1.2	100.0(242)	
5~10년미만	26.6	26.3	14.6	17.1	11.8	2.5	0.6	0.3	100.0(357)	26.8(21)
10~15년미만	28.7	30.2	16.3	13.4	9.4	2.0	0.0	0.0	100.0(202)	
15년이상	22.2	25.6	18.7	13.8	16.3	1.5	0.5	1.0	100.0(203)	
교사연령										
20대	29.8	24.1	16.3	16.3	8.1	3.1	1.0	1.0	100.0(295)	
30대	25.7	27.9	14.9	15.9	12.5	2.1	0.5	0.5	100.0(377)	28.6(27)
40대	26.4	31.4	15.9	10.9	12.4	2.3	0.4	0.0	100.0(258)	
50대이상	25.7	17.6	21.6	18.9	13.5	0.0	1.4	1.4	100.0(74)	
성별										
모	25.7	21.5	20.5	19.1	6.0	4.9	1.3	0.9	100.0(976)	
부	39.3	10.7	21.4	25.0	3.6	0.0	0.0	0.0	100.0(28)	6.2(7)
연령										
30대이하	26.6	22.0	20.4	18.6	5.6	4.6	1.4	0.8	100.0(719)	
40대이상	24.9	19.3	20.7	20.7	7.0	5.3	1.1	1.1	100.0(285)	26(7)
가구소득(단위:만원)										
부	250미만	33.3	25.6	23.1	17.9	0.0	0.0	0.0	100.0(39)	
모	250~350미만	21.8	21.4	19.2	22.9	5.6	6.8	1.5	0.8	100.0(266)
	350~450미만	26.7	15.6	23.6	19.7	5.3	6.1	1.7	1.4	100.0(360)
	450~550미만	28.6	25.0	20.0	16.4	6.4	2.7	0.9	0.0	100.0(220)
	550이상	26.9	29.4	14.3	15.1	10.1	1.7	0.8	1.7	100.0(119)
자녀연령										
영아	25.8	28.9	16.5	14.4	5.2	7.2	2.1	0.0	100.0(97)	
유아	26.1	20.4	20.9	19.7	6.1	4.5	1.2	1.0	100.0(907)	8.0(7)

* p < .05

결과는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도덕적 인품 함양이 28.2%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어린이집은 사회성 향상이 3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모들에게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덕적 인품을 가진 인간으로의 성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 관계 및 사회성 향상 21.2%, 올바른 자기 이해 20.5%, 타인에 대한 공감·이해 능력 향상 19.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550만원 이상 부모의 경우 또래 관계 및 사회성 향상(29.4%)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영아를 가진 부모는 또래 관계 및 사회성 향상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아를 가진 부모는 도덕적 인품 함양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응답한 다소 비율이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인성교육의 주체

영유아기의 인성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주체가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의 93.4%가 가정이라고 응답하였고,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5.6%, 사회 및 국가라는 응답이 0.6%, 학교(초·중등)라는 응답이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치원 교사(95.2%)가 어린이집 교사(91.6%)에 비해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6.6%)가 유치원 교사(4.6%)보다 높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학교(초·중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V-1-7〉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주체

단위: %(명)

	가정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사회, 국가	학교 (초중등)	계	$\chi^2(df)$
교사	93.4	5.6	0.6	0.4	100.0(1,004)	
부모	85.6	12.7	1.1	0.6	100.0(1,004)	

(표 V-1-7 계속)

	가정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사회, 국가	학교 (초중등)	계	$\chi^2(df)$
기관유형						
유치원	95.2	4.6	0.2	0.0	100.0(504)	9.0(3)*
어린이집	91.6	6.6	1.0	0.8	100.0(500)	
교사경력						
5년미만	91.7	7.0	0.4	0.8	100.0(242)	
5~10년미만	92.7	5.6	1.4	0.3	100.0(357)	10.7(9)
10~15년미만	94.1	5.4	0.0	0.5	100.0(202)	
교 15년이상	96.1	3.9	0.0	0.0	100.0(203)	
사 교사연령						
20대	90.8	8.1	0.7	0.3	100.0(295)	
30대	92.8	5.8	0.5	0.8	100.0(377)	12.2(9)
40대	96.1	3.5	0.4	0.0	100.0(258)	
50대이상	97.3	1.4	1.4	0.0	100.0(74)	
지역유형						
대도시	93.4	5.7	0.5	0.5	100.0(422)	
중소도시	93.8	5.2	0.8	0.2	100.0(504)	3.8(6)
농어촌	91.0	7.7	0.0	1.3	100.0(78)	
연령						
30대이하	85.8	12.7	1.0	0.6	100.0(719)	0.5(3)
40대이상	84.9	13.0	1.4	0.7	100.0(285)	
가구소득(단위:만원)						
부 250미만	84.6	15.4	0.0	0.0	100.0(39)	
250~350미만	85.7	13.5	0.4	0.4	100.0(266)	
350~450미만	83.1	14.2	1.9	0.8	100.0(360)	13.8(12)
450~550미만	87.7	11.8	0.5	0.0	100.0(220)	
550이상	89.1	7.6	1.7	1.7	100.0(119)	
자녀연령						
영아	84.5	13.4	1.0	1.0	100.0(97)	0.4(3)
유아	85.7	12.7	1.1	0.6	100.0(907)	

* $p < .05$

부모들에게 질문한 결과,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어린이집 12.7%, 초중등 학교 1.1%, 사회·국가 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와 모,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부모들이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역할이 가정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인성교육의 효과적 방법

영유아기 인성교육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V-1-8>과 같다.

<표 V-1-8>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효과적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단위: %(명) $\chi^2(df)$
교사	31.9	20.2	12.9	12.6	10.4	4.6	3.4	3.2	0.1	100.0(1,004)	
부모	3.9	18.9	25.1	24.4	12.2	4.6	3.3	7.4	0.3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34.5	19.4	13.1	12.1	8.5	6.0	3.4	2.4	0.0	100.0(504)	15.6(8)
어린이집	29.2	21.0	12.8	13.2	12.2	3.2	3.4	4.0	0.2	100.0(500)	
교교사경력											
사 5년미만	30.2	17.8	12.8	17.8	8.7	3.7	2.9	5.8	0.0	100.0(242)	
5~10년미만	32.8	20.2	11.5	11.8	9.8	5.6	4.2	2.8	0.3	100.0(357)	28.1(24)
10~15년미만	30.2	20.8	16.3	10.4	11.4	4.0	3.5	2.5	0.0	100.0(202)	
15년이상	34.0	22.7	12.3	10.3	12.3	4.4	2.5	1.5	0.0	100.0(203)	
성별											
모	3.9	19.1	25.2	24.1	12.3	4.5	3.4	7.4	0.1	100.0(976)	
부	3.6	14.3	21.4	35.7	7.1	7.1	0.0	7.1	3.6	100.0(28)	20.4(8)*
학력											
고졸이하	2.4	24.1	28.5	17.3	13.3	4.8	4.0	5.2	0.4	100.0(249)	
대학이상	4.4	17.2	24.0	26.8	11.8	4.5	3.0	8.1	0.1	100.0(755)	19.0(8)*
부가구소득(단위:만원)											
도 250미만	0.0	20.5	17.9	30.8	20.5	2.6	2.6	5.1	0.0	100.0(39)	
250~350미만	2.6	15.8	31.6	19.9	14.3	7.5	3.0	4.9	0.0	100.0(266)	
350~450미만	5.0	18.1	25.6	22.5	13.1	3.6	3.9	7.8	0.6	100.0(360)	57.9(32)*
450~550미만	5.5	20.5	20.0	26.8	11.4	3.6	2.3	10.0	0.0	100.0(220)	
550이상	1.7	25.2	21.0	33.6	3.4	3.4	4.2	7.6	0.0	100.0(119)	
자녀연령											
영아	0.0	22.7	27.8	21.6	13.4	2.1	4.1	7.2	0.0	100.0(97)	
유아	4.3	18.5	24.8	24.7	12.0	4.9	3.2	7.4	0.2	100.0(907)	17.0(8)*

① 교사: 가정에서 부모가 인성지도를 주도함, 부모: 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주도함

② 식사, 의복, 위생 등 생활습관을 잘 들이도록 지도함

③ 도덕과 예절에 대해 매일 대화하며 설명하고 가르침

④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

⑤ 건강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것을 지도함

⑥ 옛날 고전이나 그림책 등으로 인성을 지도함

⑦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하도록 함

⑧ 아동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잡도록 엄격히 지도함

⑨ 동·식물을 길러보도록 함

* $p < .05$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지도를 하도록 지원한다'는 의견이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식사, 의복, 위생 등 생활습관을 잘 들이도록 지도한다'는 응답이 20.2%, '도덕과 예절에 대해 매일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응답이 12.9%, '말로 설명하지 않고 교사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응답이 12.6%, '건강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것을 지도한다'는 응답이 10.4%, '옛날 고전이나 그림책 등으로 인성을 지도한다'는 응답이 4.6%,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3.4%, '아동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잡도록 엄격히 지도한다'는 응답이 3.2%, '동·식물을 길러보도록 한다'는 응답이 0.1%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표 V-1-7>에서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대부분(93.4%)을 차지한 결과와 맥을 같아 한다.

영유아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도덕과 예절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 24.4%, 생활습관을 잘 지도함 18.9%, 자유롭게 행동하며 건강 및 자신감을 갖도록 함 12.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부모가 도덕과 예절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6)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량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하는 역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높은 점수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이 가장 높은 점수(5점 척도 4.78)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각각 4.7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응답비율을 보더라도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교사가 전체의 80.9%를 차지하여 독보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78.1%)이 높았다. 반면 '영유아에 대한 열의'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

항목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	매우 중요	단위: %(명), (점)	
					계	평균 (5점 척도)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식	0.1	2.1	20.4	77.5	100.0(1,004)	4.75
영유아에 대한 열의	0.1	4.3	24.9	70.8	100.0(1,004)	4.67
영유아 개인차를 이해하는 능력	0.1	2.8	21.1	76.1	100.0(1,004)	4.73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지식	0.1	2.3	25.1	72.5	100.0(1,004)	4.70
영유아 감정 공감 및 이해하는 능력	0.1	3.3	18.6	78.1	100.0(1,004)	4.75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	0.1	2.5	16.6	80.9	100.0(1,004)	4.78

7) 학교폭력근절과 인성교육의 관련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관련 있다’는 의견이 99.2%였다. 즉, ‘매우 관련이 크다’는 응답이 64.7%, ‘조금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32.5%였다. 이는 교사경력, 교사연령, 지역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와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 ‘매우 관련이 크다(72.9%, 73.0%)’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젊은 교사에 대해 학교폭력예방의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교사가 매우 관련이 크다에 69.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대도시 69.0%, 중소도시 60.5% 순이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관련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이 조금 있음 38.1%, 관련이 별로 없음 2.0%, 전혀 관련이 없음 0.5% 순으로 나타나 유아기 인성교육과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을 크거나 관련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97.5%)을 알 수 있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과 유아기 인성교육이 관련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높아 유아기 인성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 최하층(250만원 이하)을 제외한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득층에 대해 인성교육 중요성의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10〉 교사와 부모가 인식하는 학교폭력과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관련성

단위: %(명)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함	별로 관련이 없음	조금 관련이 있음	매우 관련이 큽	계	$\chi^2(df)$
교사	0.7	2.1	32.5	64.7	100.0(1,004)	
부모	0.5	2.0	38.1	59.4	100.0(1,004)	
교사경력						
5년미만	0.0	3.7	38.8	57.4	100.0(242)	
5~10년미만	1.7	1.4	31.9	65.0	100.0(357)	225(9)**
10~15년미만	0.5	2.0	32.7	64.9	100.0(202)	
15년이상	0.0	1.5	25.6	72.9	100.0(203)	
교사연령						
교 20대	1.0	3.1	38.3	57.6	100.0(295)	
사 30대	0.8	0.8	33.7	64.7	100.0(377)	20.7(9)*
40대	0.0	3.1	26.4	70.5	100.0(258)	
50대이상	1.4	1.4	24.3	73.0	100.0(74)	
지역유형						
대도시	0.5	2.4	28.2	69.0	100.0(422)	
중소도시	0.6	1.6	37.3	60.5	100.0(504)	16.6(6)*
농어촌	2.6	3.8	24.4	69.2	100.0(78)	
연령						
30대이하	0.4	2.5	38.8	58.3	100.0(719)	
40대이상	0.7	0.7	36.5	62.1	100.0(285)	4.4(3)
가구소득(단위:만원)						
부 250미만	0.0	2.6	30.8	66.7	100.0(39)	
모 250-350미만	0.0	1.5	47.7	50.8	100.0(266)	
350-450미만	0.8	2.5	41.1	55.6	100.0(360)	35.9(12)***
450-550미만	0.0	1.8	30.9	67.3	100.0(220)	
550이상	1.7	1.7	23.5	73.1	100.0(119)	
자녀연령						
영아	1.0	2.1	33.0	63.9	100.0(97)	
유아	0.4	2.0	38.7	58.9	100.0(907)	1.7(3)

* $p < .05$, ** $p < .01$, *** $p < .001$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 영유아기의 인성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타인 이해’ 즉, ‘공감’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 존중(21.6%), 자기 통제(15.9%), 배려(15.0%), 양보(4.2%), 협동(4.1%)과 공동체 의식(4.1%), 생명 존중(2.2%), 준법 의식(0.4%) 순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인성 요소로 교사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1〉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인성 요소(교사와 부모의 인식)

단위: %(명)

	타인 이해	타인 존중	자기 통제	배려	양보	협동	공동체 의식	생명 존중	준법 의식	계	$\chi^2(df)$
교사	32.4	21.6	15.9	15.0	4.2	4.1	4.1	2.2	0.4	100.0(1,004)	
부모	24.9	22.2	17.7	14.1	6.8	3.1	5.6	4.7	0.7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32.7	22.0	17.5	13.9	2.8	4.2	4.2	2.4	0.4	100.0(504)	8.5(8)
어린이집	32.0	21.2	14.4	16.2	5.6	4.0	4.0	2.0	0.4	100.0(500)	
교사경력											
5년미만	25.2	25.2	19.8	13.6	5.0	3.7	5.0	1.2	0.8	100.0(242)	
5~10년미만	37.0	20.4	13.2	15.7	3.9	2.8	3.9	2.5	0.6	100.0(357)	38.0(24)
10~15년미만	36.1	18.8	13.4	11.9	5.4	7.4	4.0	3.0	0.0	100.0(202)	
교사 15년이상	29.1	22.2	18.7	18.7	2.5	3.4	3.4	2.0	0.0	100.0(203)	
사교사연령											
20대	31.2	25.1	17.6	11.9	4.7	3.7	4.1	1.0	0.3	100.0(295)	
30대	36.9	18.8	13.8	15.1	2.9	4.5	5.0	2.7	0.3	100.0(377)	30.8(24)
40대	31.4	19.8	16.7	17.1	5.4	3.9	3.1	2.3	0.4	100.0(258)	
50대이상	17.6	28.4	17.6	20.3	4.1	4.1	2.7	4.1	1.4	100.0(74)	
지역유형											
대도시	35.3	20.1	16.6	14.7	3.1	3.6	4.7	1.7	0.2	100.0(422)	
중소도시	29.4	23.8	15.9	13.9	5.6	4.8	4.0	2.0	0.6	100.0(504)	28.7(16)
농어촌	35.9	15.4	12.8	24.4	1.3	2.6	1.3	6.4	0.0	100.0(78)	
연령											
30대이하	26.1	23.1	17.7	12.8	7.0	3.1	4.9	4.6	0.7	100.0(719)	
40대이상	21.8	20.0	17.9	17.5	6.3	3.2	7.4	4.9	0.7	100.0(265)	11.1(8)
학력											
고졸이하	19.7	22.9	18.5	16.9	5.6	3.2	5.6	6.8	0.4	100.0(249)	
대학이상	26.6	22.0	17.5	13.2	7.2	3.0	5.6	4.0	0.8	100.0(755)	13.2(8)
지역유형											
부모 대도시	31.0	22.7	14.5	10.0	7.6	3.1	5.5	4.5	1.2	100.0(422)	
부모 중소도시	21.5	20.7	19.7	16.5	6.4	3.6	6.2	5.0	0.0	100.0(497)	56.0(16)***
부모 농어촌	14.1	28.2	22.4	21.2	4.7	0.0	2.4	3.5	2.4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41.0	17.9	20.5	10.3	2.6	0.0	7.7	0.0	0.0	100.0(39)	
250~350미만	22.2	22.2	16.5	12.0	8.3	4.5	5.6	6.8	1.5	100.0(266)	
350~450미만	23.3	21.1	17.5	16.9	7.5	3.3	5.8	3.6	0.8	100.0(360)	43.8(32)
450~550미만	25.0	24.5	16.8	14.1	6.4	2.7	5.5	5.0	0.0	100.0(220)	
550이상	30.3	22.7	21.8	11.8	3.4	0.8	4.2	4.2	0.0	100.0(119)	
자녀연령											
영아	20.6	32.0	15.5	9.3	3.1	5.2	7.2	7.2	0.0	100.0(97)	
유아	25.4	21.2	18.0	14.7	7.2	2.9	5.4	4.4	0.8	100.0(907)	14.1(8)

*** $p < .001$

부모들에게 질문한 결과, '타인 이해'에 응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 존중 22.2%, 자기 통제 17.7%, 배려 14.1%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부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부모에 비해 타인 존중, 자기 통제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고졸 이하, 영아를 가진 부모가 타인 존중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가. 기관에서의 영유아기 문제 행동

1) 영유아의 문제 행동

가) 따돌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관 내에서 영유아들 간 따돌림 또는 배척 현상을 관찰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끔 볼 수 있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흔히 볼 수 있다'고 응답(1.8%)한 교사들도 있었다. '본 적 없다'는 응답은 48.0%였다.

〈표 V-1-12〉 따돌림 또는 배척 현상 관찰 경험

	본적 없음	가끔 볼 수 있음	흔히 볼 수 있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48.0	50.2	1.8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45.2	53.4	1.4	100.0(504)	4.6(2)
어린이집	50.8	47.0	2.2	100.0(500)	
설립유형					
유치원 국공립	40.0	58.5	1.5	100.0(195)	3.5(2)
사립	48.5	50.2	1.3	100.0(309)	
어린이집 국공립	42.3	51.9	5.8	100.0(52)	
법인	69.0	27.6	3.4	100.0(29)	
법인외	27.3	72.7	0.0	100.0(11)	13.1(8)
민간	50.9	47.4	1.7	100.0(401)	
직장	71.4	28.6	0.0	100.0(7)	
지역유형					
대도시	44.3	53.1	2.6	100.0(422)	
중소도시	51.6	47.2	1.2	100.0(504)	7.2(4)
농어촌	44.9	53.8	1.3	100.0(78)	

(표 V-1-12 계속)

	본적 없음	가끔 볼 수 있음	흔히 볼 수 있음	계	$\chi^2(df)$
교사경력					
5년미만	50.4	47.9	1.7	100.0(242)	
5~10년미만	47.9	50.7	1.4	100.0(357)	8.4(6)
10~15년미만	46.0	50.0	4.0	100.0(202)	
15년이상	47.3	52.2	0.5	100.0(203)	
교사연령					
20대	49.8	48.8	1.4	100.0(295)	
30대	47.5	50.4	2.1	100.0(377)	5.9(6)
40대	44.2	53.5	2.3	100.0(258)	
50대 이상	56.8	43.2	0.0	100.0(74)	

또래를 따돌림 또는 배척하는 성향을 지닌 영유아들의 비율은 ‘한 반에서 10% 이내’가 91.8%로 가장 높았고 ‘한 반에서 20% 정도’는 6.3%, ‘한 반에서 30% 정도’는 1.9%였다(표 V-1-13 참조).

〈표 V-1-13〉 따돌림 또는 배척 성향을 지닌 영유아의 비율

	한 반에서 10% 이내	한 반에서 20% 정도	한 반에서 30% 정도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91.8	6.3	1.9	100.0(522)	
기관유형					
유치원	92.8	5.4	1.8	100.0(276)	0.8(2)
어린이집	90.7	7.3	2.0	100.0(246)	
지역유형					
대도시	92.3	6.4	1.3	100.0(235)	
중소도시	91.0	7.0	2.0	100.0(244)	3.5(4)
농어촌	93.0	2.3	4.7	100.0(43)	
교사경력					
5년미만	88.3	8.3	3.3	100.0(120)	
5~10년미만	93.5	5.4	1.1	100.0(186)	4.9(6)
10~15년미만	89.9	7.3	2.8	100.0(109)	
15년이상	94.4	4.7	0.9	100.0(107)	

성별에 따라 따돌림(그룹 짓기)을 하는 영유아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아가 90.6%로 남아(9.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4 참조).

〈표 V-1-14〉 따돌림에 대한 남녀 빈도

	남	여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9.4	90.6	100.0(307)	
기관유형				
유치원	7.5	92.5	100.0(174)	1.8(1)
어린이집	12.0	88.0	100.0(133)	
지역유형				
대도시	10.9	89.1	100.0(129)	
중소도시	8.7	91.3	100.0(161)	0.7(2)
농어촌	5.9	94.1	100.0(17)	
교사경력				
5년미만	9.0	91.0	100.0(78)	
5~10년미만	10.2	89.8	100.0(108)	0.1(3)
10~15년미만	8.9	91.1	100.0(56)	
15년이상	9.2	90.8	100.0(65)	
교사연령				
20대	6.3	93.7	100.0(95)	
30대	9.2	90.8	100.0(119)	2.4(3)
40대	12.7	87.3	100.0(71)	
50대 이상	13.6	86.4	100.0(22)	

나) 공격성

영유아들 중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영유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음’이 39.1%, ‘전혀 그렇지 않음’이 11.2%, ‘매우 그러함’이 4.3% 순이었다.

지역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함’에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50.2%)가 중 소도시(42.1%)와 농어촌(41.0%)에 비해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23.1%)이 중소도시(14.1%)와 대도시(5.5%)에 비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대도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격성향의 영유아가 있다’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 간 영유아의 인성 발달 정도 비교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표 V-1-15〉 ‘공격성향 영유아가 있음’에 대한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χ ² (df)
전체	11.2	39.1	45.4	4.3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9.3	41.3	44.4	5.0	100.0(504)	5.5(3)
어린이집	13.0	37.0	46.4	3.6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5.5	40.5	50.2	3.8	100.0(422)	
중소도시	14.1	39.5	42.1	4.4	100.0(504)	33.0(6)***
농어촌	23.1	29.5	41.0	6.4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11.2	40.5	44.6	3.7	100.0(242)	
5~10년미만	9.8	38.1	48.5	3.6	100.0(357)	7.3(9)
10~15년미만	14.4	40.6	41.1	4.0	100.0(202)	
15년이상	10.3	37.9	45.3	6.4	100.0(203)	
교사연령						
20대	10.2	41.0	45.1	3.7	100.0(295)	
30대	9.8	38.7	47.2	4.2	100.0(377)	6.6(9)
40대	12.4	39.1	44.2	4.3	100.0(258)	
50대 이상	17.6	33.8	41.9	6.8	100.0(74)	

*** p < .001

영유아들 중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행동에 있어 남녀 간 성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차이가 있음’이 29.6%, ‘전혀 차이가 없음’이 13.4%, ‘매우 차이가 있음’이 1.0% 순이었다. 즉, 공격적인 행동이나 따돌림 등의 행동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 차이가 없다’에 응답 한 비율은 어린이집(57.8%)이 유치원(54.2%)에 비해 높았고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유치원(32.9%)이 어린이집(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 조사대상 교사의 담당 아동 연령이 낮아 성별차이를 적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V-1-16〉 공격성향을 가진 영유아에 대한 성별 차이 유무

	전혀 차이가 없음	차이가 없음	차이가 있음	매우 차이가 있음	계	X ² (df)
전체	13.4	56.0	29.6	1.0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11.3	54.2	32.9	1.6	100.0(504)	11.4(3)**
어린이집	15.6	57.8	26.2	0.4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11.6	57.8	29.6	0.9	100.0(422)	
중소도시	14.3	53.8	31.0	1.0	100.0(504)	6.0(6)
농어촌	17.9	60.3	20.5	1.3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15.7	52.1	30.6	1.7	100.0(242)	
5~10년미만	11.5	58.3	29.7	0.6	100.0(357)	6.5(9)
10~15년미만	14.4	57.9	27.2	0.5	100.0(202)	
15년이상	13.3	54.7	30.5	1.5	100.0(203)	
교사연령						
20대	13.9	53.9	30.5	1.7	100.0(295)	
30대	12.5	56.0	30.8	0.8	100.0(377)	4.9(9)
40대	13.6	58.9	27.1	0.4	100.0(258)	
50대 이상	16.2	54.1	28.4	1.4	100.0(74)	

** $p < .01$

성별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영유아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아가 98.0%로 여아(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V-1-17〉 공격적 행동을 하는 영유아의 성별 비교

	남	여	계	X ² (df)
전체	98.0	2.0	100.0(307)	
기관유형				
유치원	98.9	1.1	100.0(174)	1.4(1)
어린이집	97.0	3.0	100.0(133)	
지역유형				
대도시	99.2	0.8	100.0(129)	
중소도시	97.5	2.5	100.0(161)	2.5(2)
농어촌	94.1	5.9	100.0(17)	
교사경력				
5년미만	97.4	2.6	100.0(78)	2.2(3)
5~10년미만	98.1	1.9	100.0(108)	

(표 V-1-17 계속)

	남	여	계	$\chi^2(df)$
교사경력				
10~15년미만	96.4	3.6	100.0(56)	
15년이상	100.0	0.0	100.0(65)	
교사연령				
20대	97.9	2.1	100.0(95)	
30대	96.6	3.4	100.0(119)	
40대	100.0	0.0	100.0(71)	3.1(3)
50대 이상	100.0	0.0	100.0(22)	

다)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함

응답자의 반에 소심하거나 발달이 늦은 영유아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다.

〈표 V-1-18〉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영유아

	있음	없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53.2	46.8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57.7	42.3	100.0(504)	8.4(1)**
어린이집	48.6	51.4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57.8	42.2	100.0(422)	
중소도시	50.8	49.2	100.0(504)	7.7(2)*
농어촌	43.6	56.4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55.0	45.0	100.0(242)	
5~10년미만	56.3	43.7	100.0(357)	4.1(3)
10~15년미만	49.0	51.0	100.0(202)	
15년이상	49.8	50.2	100.0(203)	
교사연령				
20대	56.6	43.4	100.0(295)	
30대	55.2	44.8	100.0(377)	6.6(3)
40대	49.2	50.8	100.0(258)	
50대 이상	43.2	56.8	100.0(74)	

* $p < .05$, ** $p < .01$

이는 기관유형, 지역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관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소심하거나 발달이 늦은 영유아가 '있다'는 응답은 유치원(57.7%)이 어린이집(48.6%)보다 높게 나타났고 '없다'는 응답은 어린이집(51.4%)이 유치원(42.3%)보다 더 높았다.

지역유형별로는 대도시(57.8%)와 중소도시(50.8%)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농어촌은 '없다'는 응답(56.4%)이 더 높았다. 이는 비교적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어촌의 환경 특성이 영유아의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반에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영유아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반에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5~10% 미만이 43.7%로 가장 높았고 10~15% 미만이 23.5%, 15% 이상이 17.7%, 5% 미만이 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경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의 경우 15% 이상이라는 응답에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1-19〉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영유아 수(비율)

	단위: %(명), 명						
	5%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이상	계	X ² (df)	평균 아동 수
전체	15.1	43.7	23.5	17.7	100.0(451)		2.44
지역유형							
대도시	16.1	46.9	25.1	11.8	100.0(211)		2.33
중소도시	15.3	40.7	21.1	23.0	100.0(209)	11.6(6)	2.52
농어촌	6.5	41.9	29.0	22.6	100.0(31)		2.68
교사경력							
5년미만	9.4	38.5	24.8	27.4	100.0(117)		2.70
5~10년미만	14.4	44.3	25.1	16.2	100.0(167)	19.1(9)*	2.43
10~15년미만	23.5	42.4	18.8	15.3	100.0(85)		2.26
15년이상	15.9	51.2	23.2	9.8	100.0(82)		2.27
교사연령							
20대	11.0	42.5	25.3	21.2	100.0(146)		2.57
30대	17.6	42.9	23.5	15.9	100.0(170)	6.7(9)	2.38
40대	15.5	46.4	20.0	18.2	100.0(110)		2.41
50대 이상	20.0	44.0	28.0	8.0	100.0(25)		2.24

* p < .05

라) 욕이나 비속어의 사용

영유아(주로 유아)들 간 욕이나 비속어 등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표 V-1-20〉 영유아들의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 사용 유무

	있다	없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6.7	63.3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41.7	58.3	100.0(504)	11.0(1)***
어린이집	31.6	68.4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39.6	60.4	100.0(422)	
중소도시	35.3	64.7	100.0(504)	3.7(2)
농어촌	29.5	70.5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35.1	64.9	100.0(242)	
5~10년미만	41.2	58.8	100.0(357)	5.1(3)
10~15년미만	34.2	65.8	100.0(202)	
15년이상	33.0	67.0	100.0(203)	
교사연령				
20대	41.4	58.6	100.0(295)	
30대	37.1	62.9	100.0(377)	8.4(3)*
40대	34.1	65.9	100.0(258)	
50대 이상	24.3	75.7	100.0(74)	

* $p < .05$, *** $p < .001$

이는 기관유형과 교사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비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이 특성상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연령의 유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이상인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로 다른 연령대의 교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담당 학급에 있는 경우 그 비율이 전체 인원에 대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5~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6%였고 10~1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의 유아들이 비속어, 욕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아동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5% 이상이라는 응답에는 20대의 교사가 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5% 미만이라는 응답에는 50대 이상의 교사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1-21〉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학급 내 비율

	단위: %(명), 명						
	5%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계	$\chi^2(df)$	평균 아동 수
전체	12.1	44.6	22.6	20.7	100.0(305)		2.52
지역유형							
대도시	13.0	42.0	20.3	24.6	100.0(138)		2.57
중소도시	12.2	46.3	23.1	18.4	100.0(147)	5.6(6)	2.48
농어촌	5.0	50.0	35.0	10.0	100.0(20)		2.50
교사경력							
5년미만	6.9	45.8	20.8	26.4	100.0(72)		2.67
5~10년미만	11.0	44.9	22.9	21.2	100.0(118)	11.8(9)	2.54
10~15년미만	10.9	50.9	18.2	20.0	100.0(55)		2.47
15년이상	21.7	36.7	28.3	13.3	100.0(60)		2.33
교사연령							
20대	5.8	50.0	20.2	24.0	100.0(104)		2.63
30대	9.8	48.2	23.2	18.8	100.0(112)	19.1(9)*	2.51
40대	20.3	36.5	24.3	18.9	100.0(74)		2.42
50대 이상	33.3	20.0	26.7	20.0	100.0(15)		2.33

* $p < .05$

2) 영유아기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처 행동

가) 공격적이거나 따돌림 하는 아동에 대한 대처

또래를 공격하거나 따돌리는 아동을 적절히 지도하여 그러한 행동을 줄이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조금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3.1%,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40.8%로 대부분의 교사가 공격적이거나 또래를 따돌리는 아동에 대해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역유형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고, 교사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에 5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V-1-22〉 공격적인 성향 및 따돌림에 대한 교사 대처 효과성

	거의 그렇지 못한 편임	별로 그렇지 못한 편임	조금 그런 편임	매우 그런 편임	계	χ ² (df)
전체	0.7	5.5	53.1	40.8	100.0(910)	
기관유형						
유치원	0.6	5.8	53.1	40.4	100.0(465)	0.2(3)
어린이집	0.7	5.2	53.0	41.1	100.0(445)	
지역유형						
대도시	0.7	7.7	47.3	44.3	100.0(402)	
중소도시	0.7	3.6	58.2	37.5	100.0(445)	14.2(6)*
농어촌	0.0	4.8	54.0	41.3	100.0(63)	
교사경력						
5년미만	0.9	8.2	58.0	32.9	100.0(219)	
5~10년미만	0.6	6.1	52.0	41.3	100.0(327)	17.5(9)*
10~15년미만	1.1	3.3	55.0	40.6	100.0(180)	
15년이상	0.0	3.3	47.3	49.5	100.0(184)	
교사연령						
20대	1.1	6.7	56.5	35.7	100.0(269)	
30대	0.3	6.1	54.5	39.2	100.0(347)	12.4(9)
40대	0.9	3.9	49.4	45.9	100.0(231)	
50대 이상	0.0	3.2	44.4	52.4	100.0(63)	

* p < .05

이러한 행동을 줄이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별 지도를 위한 시간 부족이 39.3%로 가장 높았고,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음이 26.8%,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알지 못함이 16.1%, 문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함과 기타 이유가 각각 8.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지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여러 명의 영유아들을 동시에 교육·보육해야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 상황에서 개별적인 인성 지도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V-1-23 참조). 그와 더불어 16.1%의 교사가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했음도 주목할 만하다. 즉, 일부 교사는 영유아가 보이는 공격적 행동 또는 따돌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른 지도 방법인지 알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교육, 지도 메뉴얼 또한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23〉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개인별 지도 위한 시간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음	구체적 지도방법을 알지 못함	문제 상황을 직시에 파악 못함	기타	계	$\chi^2(df)$
전체	39.3	26.8	16.1	8.9	8.9	100.0(56)	
기관유형							
유치원	43.3	20.0	20.0	13.3	3.3	100.0(30)	6.9(4)
어린이집	34.6	34.6	11.5	3.8	15.4	100.0(26)	
지역유형							
대도시	41.2	20.6	14.7	11.8	11.8	100.0(34)	
중소도시	42.1	36.8	10.5	5.3	5.3	100.0(19)	10.8(8)
농어촌	0.0	33.3	66.7	0.0	0.0	100.0(3)	
교사경력							
5년미만	30.0	25.0	30.0	10.0	5.0	100.0(20)	
5~10년미만	36.4	31.8	9.1	9.1	13.6	100.0(22)	9.5(12)
10~15년미만	62.5	12.5	12.5	0.0	12.5	100.0(8)	
15년이상	50.0	33.3	0.0	16.7	0.0	100.0(6)	
교사연령							
20대	33.3	23.8	28.6	9.5	0.0	100.0(21)	
30대	40.9	36.4	9.1	9.1	0.0	100.0(22)	21.8(12)
40대	45.5	18.2	9.1	0.0	27.2	100.0(11)	
50대 이상	50.0	0.0	0.0	50.0	0.0	100.0(2)	

나) 활발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대처 행동

활발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교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며 대처하고 있는 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표 V-1-23〉과 같다.

또래관계에 개입하여 친구를 만들어 준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비슷한 성향의 또래와 연결해준다는 응답이 16.5%, 자연스럽게 극복하기를 기다린다는 응답과 교사가 자주 놀이친구가 되어준다는 응답이 각각 10.3%, 부모 상담을 통해 성향을 바꾸도록 안내한다는 응답이 8.6%, 기타 응답이 3.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 지역유형, 교사경력 및 교사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 상담이나 교사의 직접 개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24〉 활발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

단위: %(명)

	개입하여 친구를 만들어줌	비슷한 성향의 또래와 연결해줌	자연스럽게 극복하기를 기다림	교사가 놀이친구가 되어줌	부모상담 진행함	기타	계	$\chi^2(df)$
전체	51.3	16.5	10.3	10.3	8.6	3.0	100.0(534)	
기관유형								
유치원	50.5	21.3	8.2	10.0	8.2	1.7	100.0(291)	19.2(5)
어린이집	52.3	10.7	12.8	10.7	9.1	4.5	100.0(243)	
지역유형								
대도시	49.6	16.4	11.5	10.2	8.6	3.7	100.0(244)	
중소도시	52.3	16.8	9.8	10.2	9.0	2.0	100.0(256)	27.6(10)
농어촌	55.9	14.7	5.9	11.8	5.9	5.9	100.0(34)	
교사경력								
5년미만	49.6	17.3	9.8	11.3	9.8	2.3	100.0(133)	
5~10년미만	51.7	20.4	10.4	9.0	4.0	4.5	100.0(201)	20.4(15)
10~15년미만	56.6	9.1	11.1	8.1	12.1	3.0	100.0(99)	
15년이상	47.5	14.9	9.9	13.9	12.9	1.0	100.0(101)	

다) 행동지도 전문 기관과의 연계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행동지도가 필요한 아이의 경우 지역 연계를 통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26.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전문기관 도움을 경험한 비율이 7% 가량 높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를 보였다.

〈표 V-1-25〉 문제아동 행동 지도 시 전문기관 도움 경험

단위: %(명)

	있음	없음	계	$\chi^2(df)$
전체	26.7	73.3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23.0	77.0	100.0(504)	7.0(1)**
어린이집	30.4	69.6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34.1	65.9	100.0(422)	
중소도시	20.8	79.2	100.0(504)	21.0(2)***
농어촌	24.4	75.6	100.0(78)	

** $p < .01$, *** $p < .001$

이렇게 행동지도를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95%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영유아들의 행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응답에 있어 기관유형, 지역유형, 교사경력, 교사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역에 있어 농어촌의 반대 비율이 조금 높음은 관심을 기울여볼 만한 결과이다.

〈표 V-1-26〉 행동 지도 시 전문기관 도움 찬성 유무

	찬성	반대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95.0	5.0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94.4	5.6	100.0(504)	0.7(1)
어린이집	95.6	4.4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95.3	4.7	100.0(422)	
중소도시	95.2	4.8	100.0(504)	1.3(2)
농어촌	92.3	7.7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95.9	4.1	100.0(242)	
5~10년미만	94.4	5.6	100.0(357)	0.9(3)
10~15년미만	95.5	4.5	100.0(202)	
15년이상	94.6	5.4	100.0(203)	
교사연령				
20대	96.6	3.4	100.0(295)	
30대	95.0	5.0	100.0(377)	2.9(3)
40대	93.8	6.2	100.0(258)	
50대 이상	93.2	6.8	100.0(74)	

나. 인성교육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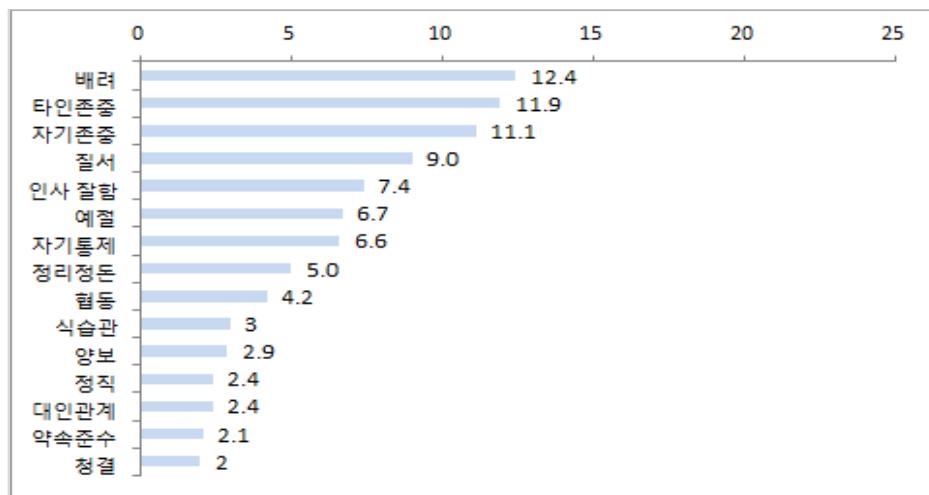
1)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덕목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덕목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그림 V-1-1], [그림 V-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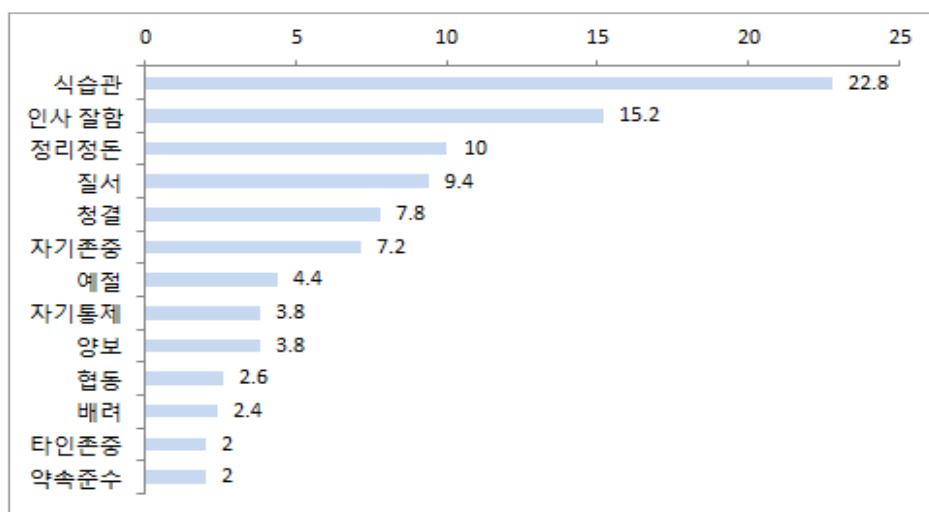
가) 유아

유아의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으로는 배려(12.4%), 타인 존중(11.9%), 자

기 존중(11.1%), 질서(9.0%), 인사 잘함(7.4%), 예절(6.7%), 자기 통제(6.6%), 정리 정돈(5.0%), 협동(4.2%), 식습관(3.0%), 양보(2.9%), 정직(2.4%), 대인관계(2.4%), 약속 준수(2.1%), 청결(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1]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유아)



[그림 V-1-2]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영아)

나) 영아

영아의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으로는 식습관(22.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인사 잘함(15.2%), 정리 정돈(10.0%), 질서(9.4%), 청결(7.8%), 자기 존중(7.2%), 예절(4.4%), 자기 통제(3.8%), 양보(3.8%), 협동(2.6%), 배려(2.4%), 타인 존중(2.0%), 약속 준수(2.0%)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가 식습관 및 인사하기 등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과 아직은 양보나 협동, 배려, 타인 존중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발달 특성과 연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65.0%, 보통이라는 응답이 19.1%, 매우 잘 이루어진다가 15.0%,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0.8%로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1-27〉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별로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단위: %(명)
전체	0.8	19.1	65.0	15.0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0.6	15.5	67.5	16.5	100.0(504)	9.8(3)*
어린이집	1.0	22.8	62.6	13.6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0.9	20.6	63.0	15.4	100.0(422)	
중소도시	0.8	17.7	66.5	15.1	100.0(504)	2.6(6)
농어촌	0.0	20.5	66.7	12.8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0.8	20.7	63.2	15.3	100.0(242)	
5~10년미만	1.7	21.6	62.5	14.3	100.0(357)	13.5(9)
10~15년미만	0.0	17.8	68.8	13.4	100.0(202)	
15년이상	0.0	14.3	68.0	17.7	100.0(203)	
교사연령						
20대	1.4	21.4	61.4	15.9	100.0(295)	
30대	0.5	18.6	68.2	12.7	100.0(377)	18.6(9)*
40대	0.8	20.2	65.5	13.6	100.0(258)	
50대 이상	0.0	9.5	62.2	28.4	100.0(74)	

* $p < .05$

3) 인성교육의 방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들 응답을 집단 구분 없이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살펴보았다. 5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인성교육 방식은 원장이 교사에게 인성교육 중요성 강조로 4.33점이었고 다음으로 누리과정에 충실히으로써 인성교육을 하는 데 중점을 둘(4.13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갖추고 있음(4.02점) 등의 순이었다. 민간업체나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활용한다는 응답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해당 방식별 응답 비율을 보면, 원장이 교사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기관이 90.1%, 누리과정에 충실히 인성교육 86.4% 등이었으나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은 74.0%,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곳은 72.9%로 나타나 가정에 대한 연계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인성교육 방법은 비교적 활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8〉 인성교육 진행 방법

단위: %(명), (점)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평균
	그렇지 않음						
① 누리과정 중심 인성교육에 중점	0.3	1.1	12.3	58.5	27.9	100.0(1,004)	4.13
② 교육부 발간 자료 활용	1.8	8.6	26.3	39.4	23.9	100.0(1,004)	3.75
③ 민간업체 프로그램 구입 및 활용	4.2	18.0	27.4	30.9	19.5	100.0(1,004)	3.44
④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1.3	4.6	20.1	49.3	24.7	100.0(1,004)	3.92
⑤ 교사에게 인성교육 중요성 강조	0.5	0.8	8.6	45.1	45.0	100.0(1,004)	4.33
⑥ 인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구비	0.3	2.3	19.5	50.4	27.5	100.0(1,004)	4.02
⑦ 인성교육 교육환경 조성	0.2	2.3	20.2	53.0	24.3	100.0(1,004)	3.99
⑧ 인성교육 위한 교사교육 및 훈련	0.5	5.4	24.3	45.9	23.9	100.0(1,004)	3.87
⑨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별도 마련	0.9	6.7	19.5	44.9	28.0	100.0(1,004)	3.92

4) 인성교육의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61.7%로 가장 높았고, 인사하기 등 예절교육, 가정연계활동 등이 20.0%

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현장학습 등 체험활동 등의 순서였으나 부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동·식물 기르기 등의 응답은 적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이 기본생활습관지도와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고,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교사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인성교육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특히 예절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가정연계활동, 대화, 체험활동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을 내용으로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면 대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구입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29〉 인성교육의 내용(복수 응답)

	단위: %, 명											
	생활 습관 지도	예절 교육	가정 연계 활동	그림 책 활용	대화	체험 활동	교사 솔선 수범	프로 그램 활용	부모 교육	동식물 기르기	기타 ¹	사례 수
전체	61.7	29.6	24.3	14.5	13.6	13.0	11.9	8.1	6.5	2.7	2.7	1,004
기관유형												
유치원	63.7	31.2	27.2	14.7	11.5	10.1	10.9	8.7	6.0	3.4	2.2	504
어린이집	59.6	28.0	21.4	14.4	15.8	16.0	12.8	7.4	7.0	2.0	2.2	500
지역유형												
대도시	59.7	29.1	25.1	16.8	13.7	12.3	11.4	9.5	5.7	2.4	3.3	422
중소도시	63.1	31.0	23.2	12.3	13.3	13.3	13.1	7.3	6.7	3.0	2.2	504
농어촌	62.8	23.1	26.9	16.7	15.4	15.4	6.4	5.1	9.0	2.6	2.6	78
교사경력												
5년미만	58.3	33.9	24.0	12.8	14.5	12.0	14.5	7.9	7.4	2.1	1.2	242
5~10년미만	63.9	25.2	21.8	14.3	14.6	14.8	11.5	8.7	6.7	2.5	2.5	357
10~15년미만	57.4	34.7	21.3	19.8	11.4	13.9	12.4	5.4	5.4	3.0	2.0	202
15년이상	66.0	27.1	32.0	11.8	13.3	10.3	8.9	9.9	5.9	3.4	1.5	203
교사연령												
20대	25.1	26.1	2.0	13.6	10.5	7.1	9.8	3.7	0.0	0.0	1.6	295
30대	19.9	24.7	4.2	15.6	10.1	10.1	8.0	4.2	0.3	0.5	2.6	377
40대	22.5	29.5	0.4	13.6	7.8	12.8	5.8	7.0	0.8	0.0	0.0	258
50대 이상	23.0	27.0	1.4	13.5	8.1	14.9	5.4	5.4	1.4	0.0	0.0	74

주: 1) 질문지의 선택지 중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응답 비율을 포함함.

5) 특별히 신경 쓰는 활동

교사로서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신경쓰는 점을 물었을 때 61.4%가 ‘기본생활습관 지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입장이 13.5%였고 부모의 연계방안 모색과 교육계획안 작성 및 수업 준비가 9.3%였다. 특별히 신경쓰지는 않는다는 응답은 0.3%에 지나지 않았다.

〈표 V-1-30〉 인성교육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

단위: %(명)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중점 프로그램 계획, 실시	부모 연계 방안 모색	계획안 작성, 수업 준비	지역 사회 연계	기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음	계	$\chi^2(df)$
전체	61.4	13.5	12.9	9.3	2.3	0.3	0.3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58.7	17.9	11.3	9.7	2.0	0.2	0.2	100.0(504)	21.1(6)**
어린이집	64.0	9.2	14.6	8.8	2.6	0.4	0.4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61.4	17.3	10.7	8.3	1.9	0.5	0.0	100.0(422)	
중소도시	59.1	11.5	15.3	10.9	2.8	0.0	0.4	100.0(504)	40.2(12)***
농어촌	75.6	6.4	10.3	3.8	1.3	1.3	1.3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64.0	11.2	12.0	10.3	2.5	0.0	0.0	100.0(242)	
5~10년미만	58.3	13.4	13.4	10.4	3.1	0.8	0.6	100.0(357)	17.9(18)
10~15년미만	63.4	13.9	11.4	9.4	2.0	0.0	0.0	100.0(202)	
15년이상	61.6	16.3	14.8	5.9	1.0	0.0	0.5	100.0(203)	
교사연령									
20대	63.7	12.5	11.2	9.2	2.7	0.3	0.0	100.0(295)	
30대	58.6	14.9	13.8	10.3	2.1	0.3	0.0	100.0(377)	25.9(18)
40대	65.1	12.8	11.2	7.4	2.7	0.0	0.8	100.0(258)	
50대 이상	52.7	13.5	21.6	10.8	0.0	0.0	1.4	100.0(74)	

** $p < .01$, *** $p < .001$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교사로서 신경쓴다는 응답은 유치원에서 더 많이 나왔다. 즉, 인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부분에 있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지

역별 비교에서도 응답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관심을 두는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중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든지 교육계획안 작성과 수업 준비에 신경을 쓰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누리과정의 의한) 덕목의 지도

누리과정에 의해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 등이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다고 보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V-1-31~36 참조).

가) 배려

먼저 ‘배려’ 덕목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95점을 보여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80.4%가 배려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배려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고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역 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표 V-1-31〉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배려’ 교육 정도

단위: %(명), (점)

	전체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X ² (df)	평균
전체	0.1	0.8	18.6	65.3	15.1	100.0(1,004)		3.95
기관유형								
유치원	0.0	0.4	15.5	66.3	17.9	100.0(504)	13.7(4)**	4.02
어린이집	0.2	1.2	21.8	64.4	12.4	100.0(500)		3.88
지역유형								
대도시	0.0	1.2	14.9	66.1	17.8	100.0(422)		4.00
중소도시	0.0	0.4	21.2	65.3	13.1	100.0(504)	3.4(8)	3.91
농어촌	1.3	1.3	21.8	61.5	14.1	100.0(78)		3.86
교사경력								
5년미만	0.4	1.7	17.4	66.1	14.5	100.0(242)	15.8(12)	3.93
5~10년미만	0.0	0.8	20.2	63.6	15.4	100.0(357)		3.94

(표 V-1-31 계속)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교사경력								
10~15년미만	0.0	0.5	22.8	64.4	12.4	100.0(202)		3.89
15년이상	0.0	0.0	13.3	68.5	18.2	100.0(203)		4.05
교사연령								
20대	0.0	1.0	20.3	62.7	15.9	100.0(295)		3.94
30대	0.3	1.1	20.2	62.3	16.2	100.0(377)	14.2(12)	3.93
40대	0.0	0.0	17.4	69.8	12.8	100.0(258)		3.95
50대 이상	0.0	1.4	8.1	75.7	14.9	100.0(74)		4.04

** $p < .01$

나) 존중

누리과정의 인성교육 주제 덕목 중 ‘존중’에 대해서는 배려 덕목보다 조금 낮은 3.91이 평균 활용 점수로 나왔다. 전체의 74.3%가 존중에 대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77%로 어린이집 69.6%보다 조금 높았다. 앞서의 배려 덕목에 대한 교육 실천 현황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2〉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 교육 정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단위:%(명), (점)
전체	1.2	25.5	54.9	18.4	100.0(1,004)		3.91
기관유형							
유치원	0.4	22.6	55.6	21.4	100.0(504)	13.7(3)**	3.98
어린이집	2.0	28.4	54.2	15.4	100.0(500)		3.83
지역유형							
대도시	1.2	24.4	55.5	19.0	100.0(422)		3.92
중소도시	1.0	25.6	54.8	18.7	100.0(504)	3.4(6)	3.91
농어촌	2.6	30.8	52.6	14.1	100.0(78)		3.78
교사경력							
5년미만	2.1	20.7	59.1	18.2	100.0(242)		3.93
5~10년미만	1.1	29.7	52.7	16.5	100.0(357)	17.4(9)*	3.85
10~15년미만	0.5	30.7	49.5	19.3	100.0(202)		3.88
15년이상	1.0	18.7	59.1	21.2	100.0(203)		4.00

(표 V-1-32 계속)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교사연령							
20대	1.7	25.4	54.2	18.6	100.0(295)		3.90
30대	1.1	29.4	49.6	19.9	100.0(377)	14.2(9)	3.88
40대	0.8	21.7	62.8	14.7	100.0(258)		3.91
50대 이상	1.4	18.9	56.8	23.0	100.0(74)		4.01

* $p < .05$, ** $p < .01$

다) 협력

누리과정 인성교육 덕목 중 ‘협력’에 대한 교육 실천 현황을 보면, 5점 척도 평균 4.09로서, 총 6개 덕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유치원이 어린이 집보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이나 교사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33〉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협력’ 교육 정도

단위: %(명), (점)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전체	0.3	15.2	59.6	24.9	100.0(1,004)		4.09
기관유형							
유치원	0.2	12.3	59.9	27.6	100.0(504)	9.0(3)*	4.15
어린이집	0.4	18.2	59.2	22.2	100.0(500)		4.03
지역유형							
대도시	0.2	13.5	61.1	25.1	100.0(422)		4.11
중소도시	0.2	16.1	58.5	25.2	100.0(504)	5.3(6)	4.09
농어촌	1.3	19.2	57.7	21.8	100.0(78)		4.00
교사경력							
5년미만	0.8	18.2	58.3	22.7	100.0(242)		4.03
5~10년미만	0.0	18.8	59.7	21.6	100.0(357)	26.3(9)**	4.03
10~15년미만	0.5	12.4	63.4	23.8	100.0(202)		4.10
15년이상	0.0	8.4	57.1	34.5	100.0(203)		4.26
교사연령							
20대	0.3	18.0	58.0	23.7	100.0(295)		4.05
30대	0.5	15.1	58.9	25.5	100.0(377)	6.0(9)	4.09
40대	0.0	13.6	62.4	24.0	100.0(258)		4.10
50대 이상	0.0	10.8	59.5	29.7	100.0(74)		4.19

* $p < .05$, ** $p < .01$

라) 나눔

인성교육 덕목 중 ‘나눔’에 대한 교육의 실천 정도에 대해 교사들은 평균 4.02점을 부여함으로써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보았다. 이는 기관유형이나 기관별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농어촌(85.9%) 지역이 대도시 지역(82.7%)이나 중소도시(81.9%)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매우 잘 이루어짐’에 대한 응답 비율을 농어촌이 낮아 평균 점수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대체로 잘 이루어진다 이상으로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이 다른 덕목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아 농어촌 지역에서 ‘나눔’ 교육에 대한 강조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1-34〉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나눔’ 교육 정도

단위:%(명), (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X ² (df)	평균
전체	0.1	1.0	17.8	58.7	22.4	100.0(1,004)		4.02
기관유형								
유치원	0.0	0.8	16.5	57.5	25.2	100.0(504)	6.2(4)	4.07
어린이집	0.2	1.2	19.2	59.8	19.6	100.0(500)		3.97
지역유형								
대도시	0.0	0.7	16.6	59.0	23.7	100.0(422)		4.06
중소도시	0.0	1.4	19.6	56.5	22.4	100.0(504)	20.5(8)**	4.00
농어촌	1.3	0.0	12.8	70.5	15.4	100.0(78)		3.99
교사경력								
5년미만	0.4	0.8	19.0	59.1	20.7	100.0(242)		3.99
5~10년미만	0.0	1.1	20.7	56.6	21.6	100.0(357)	12.9(12)	3.99
10~15년미만	0.0	1.5	16.3	61.4	20.8	100.0(202)		4.01
15년이상	0.0	0.5	12.8	59.1	27.6	100.0(203)		4.14
교사연령								
20대	0.0	1.0	20.7	55.9	22.4	100.0(295)		4.00
30대	0.3	1.3	17.0	57.8	23.6	100.0(377)	8.7(12)	4.03
40대	0.0	0.4	16.7	63.6	19.4	100.0(258)		4.02
50대 이상	0.0	1.4	14.9	56.8	27.0	100.0(74)		4.09

** p < .01

마) 질서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여섯 가지 인성교육 덕목 중 ‘질서’는 5점 척도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다른 덕목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85.2%의 교사가 질서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 점수에 의하면 공립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에서 질서교육 실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응답 비율에서 기관간, 설립유형간, 지역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35〉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질서' 교육 정도

	단위:%(명), (점)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전체	0.5	14.3	56.7	28.5	100.0(1,004)		4.13
기관유형							
유치원	0.6	12.9	55.2	31.3	100.0(504)	5.0(3)	4.17
어린이집	0.4	15.8	58.2	25.6	100.0(500)		4.09
지역유형							
대도시	0.5	12.8	57.3	29.4	100.0(422)		4.16
중소도시	0.4	15.7	56.3	27.6	100.0(504)	2.8(6)	4.11
농어촌	1.3	14.1	55.1	29.5	100.0(78)		4.13
교사경력							
5년미만	1.7	14.5	58.3	25.6	100.0(242)		4.08
5~10년미만	0.0	16.0	58.5	25.5	100.0(357)	32.7(9)***	4.10
10~15년미만	0.5	18.3	55.9	25.2	100.0(202)		4.06
15년이상	0.0	7.4	52.2	40.4	100.0(203)		4.33
교사연령							
20대	0.7	15.3	55.3	28.8	100.0(295)		4.12
30대	0.8	17.2	56.0	26.0	100.0(377)	14.2(9)	4.07
40대	0.0	11.2	60.1	28.7	100.0(258)		4.17
50대 이상	0.0	6.8	54.1	39.2	100.0(74)		4.32

*** $p < .001$

마) 효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덕목 중 하나인 '효'에 대한 교육의 실천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보면, 다른 다섯 개의 덕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이 3.72점이며, 기관별로나 지역별로도 모두 고른 응답 경향을 보인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교사는 전체의 63.8%에 불과하여 가장 잘 이루어지는 덕목으로 제시된 앞서의 '질서'에 비해

21.4% 차이가 난다. 즉, 교사들은 ‘효’ 덕목에 대한 교육 실천이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표 V-1-36〉 누리과정 내 인성교육 덕목 중 ‘효’ 교육 정도

단위: %(명), (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전체	0.4	3.6	32.2	51.0	12.8	100.0(1,004)		3.72
기관유형								
유치원	0.2	3.2	29.8	51.6	15.3	100.0(504)	8.0(4)	3.79
어린이집	0.6	4.0	34.6	50.4	10.4	100.0(500)		3.66
지역유형								
대도시	0.2	2.1	30.8	53.1	13.7	100.0(422)		3.78
중소도시	0.4	4.4	33.7	49.8	11.7	100.0(504)	9.5(8)	3.68
농어촌	1.3	6.4	29.5	47.4	15.4	100.0(78)		3.69
교사경력								
5년미만	0.8	4.5	31.4	51.7	11.6	100.0(242)		3.69
5~10년미만	0.6	3.1	36.1	46.8	13.4	100.0(357)	16.6(12)	3.69
10~15년미만	0.0	3.5	35.1	50.5	10.9	100.0(202)		3.69
15년이상	0.0	3.4	23.2	58.1	15.3	100.0(203)		3.85
교사연령								
20대	0.7	4.4	32.9	49.8	12.2	100.0(295)		3.68
30대	0.5	3.7	34.5	47.7	13.5	100.0(377)	10.6(12)	3.70
40대	0.0	1.9	30.2	55.8	12.0	100.0(258)		3.78
50대 이상	0.0	5.4	24.3	55.4	14.9	100.0(74)		3.80

다. 인성교육의 환경

1) 교육용 참고 자료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23.2%), 다음으로는 전공서적이나 기관자체 프로그램이 꼽혔다. 참고자료가 ‘없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는 주로 참고하는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유치원 교사는 38.9%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이 항목에 대해 7.4%만이 동의하였고 전공서적을 선택한 비율이 유치원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기관 내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19.6%가 선택하였으나 어린이집은 이 항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밖의 미디어매체 활동이나 인터넷카페, 사설기관 발간 자료집 등을 참고한다는 비율은 유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7〉 인성교육을 위한 참고자료

단위: %(명)

	교육부, 교육청 발간 자료	기관 자체 프로 그램	미디어 매체 활용	인터넷 카페	사설 기관 발간 자료집	기타	계	$\chi^2(df)$
전체	23.2	19.8	19.6	14.6	12.7	9.1	0.9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38.9	14.3	21.2	11.5	8.3	5.4	0.4	100.0(504) 17.1(6)***
어린이집	7.4	25.4	18.0	17.8	17.2	12.8	1.4	100.0(500)
설립유형								
유치원	국공립 사립	51.8 30.7	14.9 13.9	14.9 25.2	10.8 12.0	4.1 11.0	3.6 6.5	0.0 0.6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민간	5.8 13.8 0.0	21.2 31.0 36.4	23.1 10.3 0.0	23.1 13.8 27.3	15.4 17.2 18.2	9.6 10.3 18.2	1.9 3.4 0.0
직장	직장	7.5 0.0	25.2 28.6	18.5 14.3	17.0 28.6	17.5 14.3	13.2 14.3	1.2 0.0
지역유형								
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3.9 23.4 17.9	19.2 21.4 12.8	20.1 18.7 23.1	14.0 15.1 15.4	11.6 12.5 20.5	9.7 8.5 9.0	1.4 0.4 1.3
교사경력								
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18.2 19.3 27.2 32.0	20.7 22.7 19.8 13.8	18.6 19.9 18.3 21.7	16.1 16.0 12.9 12.3	15.7 14.8 10.9 7.4	8.7 6.4 10.9 12.3	2.1 0.6 0.0 0.0

** $p < .01$, *** $p < .001$

유치원 내에서도 공립과 사립은 참고하는 자료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립유치원의 51.8%가 ‘교육청 발간 자료’를 들었으나 사립유치원은 이 항목에 30.7%가 답한 반면 기관의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주 참고 자료로 답한 비율이 25.2%였다. 또한 사립교사들은 공립교사들에 비해 인터넷카페나 미디어매체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교사경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이 15년 이상, 10~15년 미만인 교사는 ‘교육부, 교육청 발간자료를 참

고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2.0%, 27.2%로 가장 높은 반면 5년 미만인 교사와 5~10년 미만인 교사는 '전공서적을 참고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0.7%, 22.7%로 가장 높아 경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2) 교사교육

교사들에게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7.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2.8%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교사가 인성교육 관련 교사교육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38〉 인성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57.2	42.8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59.3	40.7	100.0(504)	1.9(1)
어린이집	55.0	45.0	100.0(500)	
설립유형				
유 국공립	55.4	44.6	100.0(195)	2.0(1)
치 사립	61.8	38.2	100.0(309)	
원 국공립	61.5	38.5	100.0(52)	
어 법인	44.8	55.2	100.0(29)	
린 법인외	36.4	63.6	100.0(11)	6.3(4)
이 민간	54.9	45.1	100.0(401)	
집 직장	85.7	14.3	100.0(7)	
지역유형				
대도시	60.2	39.8	100.0(422)	
중소도시	56.5	43.5	100.0(504)	6.5(2)*
농어촌	44.9	55.1	100.0(78)	
교사연령				
20대	53.2	46.8	100.0(295)	
30대	58.6	41.4	100.0(377)	11.8(3)**
40대	54.7	45.3	100.0(258)	
50대 이상	74.3	25.7	100.0(74)	

* $p < .05$, ** $p < .01$

이러한 경향은 기관유형,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교사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바, 인성교육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대도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

총 지역의 교사는 이 같은 교육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인 경우,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74.3%로 가장 많았다.

인성교육 지도를 위한 교사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나 세미나가 어떤 기관에서 주최한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교육청'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자체 교육이 23.0%로 다음으로 높았다. 보육정보센터나 지자체가 주최가 된 경우도 21.6%로 나타났고 사설기관은 16.9%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기관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거의 절반인 49.5%가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포함)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은 42.5%가 보육정보센터(지자체 포함)에서 주최한 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V-1-39〉 교육 주최 기관

단위: %(명)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청	기관 자체 교육	보 육 정 보 센 터, 지 자 체	사 설 기 관	교 育 부, 보 건 복 지 부	기 타	계	$\chi^2(df)$
전체	31.4	23.0	21.6	16.9	4.2	3.0	100.0(574)	
기관유형								
유치원	49.5	25.4	2.3	16.1	4.7	2.0	100.0(299)	192.4(5)***
어린이집	11.6	20.4	42.5	17.8	3.6	4.0	100.0(275)	
설립유형								
국공립	58.3	23.1	2.8	7.4	5.6	2.8	100.0(108)	16.1(5)*
사립	44.5	26.7	2.1	20.9	4.2	1.6	100.0(191)	
국공립	12.5	15.6	50.0	15.6	0.0	6.3	100.0(32)	
어린이집	7.7	46.2	30.8	7.7	7.7	0.0	100.0(13)	
법인	0.0	25.0	75.0	0.0	0.0	0.0	100.0(4)	100.3(20)***
민간	12.3	19.1	42.3	19.5	3.6	3.2	100.0(220)	
직장	0.0	33.3	16.7	0.0	16.7	33.3	100.0(6)	
지역유형								
대도시	34.6	17.7	22.4	18.5	2.8	3.9	100.0(25)	
중소도시	29.8	27.4	20.7	15.8	4.2	2.1	100.0(288)	48.6(10)
농어촌	20.0	25.7	22.9	14.3	14.3	2.9	100.0(35)	

* $p < .05$, *** $p < .001$

또한 특징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사설기관에서 주최한 인성교육 지도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20%를 웃돌았으나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주최가 현저히 많았고, 어린이집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사립기관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육정보센터가 대부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법인이나 직장어린이집은 기관자체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영유아 인성교육 지도를 위해 받는 교육이 있는 경우 그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1-40>과 같다. ‘유아인성교육 또는 인성발달’이라는 교육명이 33%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예방이나 아동폭력 예방교육 등도 있었으며, 교사의 인성교육이나 자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V-1-40> 교사가 경험한 인성교육 강좌명

	비율(%)	수(명)
전체	100.0	412
유아인성교육, 인성발달	33.1	136
교사의 자질 및 인성교육	10.0	41
성품학교, 미덕학교, 예절교육	9.1	37
아동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3.9	16
아동학대 예방교육	3.4	14
기본생활습관지도	2.7	11
창의인성교육	1.9	8
누리과정	1.7	7
영유아 안전교육	1.0	4
부모교육	1.0	4

주: 1% 미만 삭제

3.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태

가. 인성교육의 실행

1)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본 양육 환경

가) 자녀에게 강조하는 가치

자녀양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성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운동 20.4%, 사회성, 대인관계 12.6%, 창의성 3.9%, 지적성취 2.4%, 경제의식 0.9%, 예술적 자질 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와 모,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

사한 경향을 보여 인성, 성격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졸 이상, 가구소득 550만원 이상 부모가 인성, 성격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2-1〉 자녀양육에서 가치를 두는 요소

	단위: %(명)								
	인성, 성격	건강, 운동	사회성, 대인 관계	창의성	지적 성취	경제 의식	예술적 자질	계	$\chi^2(df)$
전체	59.5	20.4	12.6	3.9	2.4	0.9	0.3	100.0(1,004)	
성별									
모	59.5	20.2	12.8	4.0	2.3	0.9	0.3	100.0(976)	
부	57.1	28.6	7.1	0.0	7.1	0.0	0.0	100.0(28)	5.8(6)
연령									
30대이하	60.1	20.9	11.8	3.9	2.4	0.7	0.3	100.0(719)	
40대이상	57.9	19.3	14.7	3.9	2.5	1.4	0.4	100.0(285)	3.0(6)
학력									
고졸이하	56.6	24.5	8.8	4.8	3.2	2.0	0.0	100.0(249)	
대학이상	60.4	19.1	13.9	3.6	2.1	0.5	0.4	100.0(755)	14.2(6)*
지역유형									
대도시	61.8	19.0	12.1	3.6	2.4	0.9	0.2	100.0(422)	
중소도시	56.9	23.5	12.3	4.2	2.2	0.6	0.2	100.0(497)	16.5(12)
농어촌	62.4	9.4	17.6	3.5	3.5	2.4	1.2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64.1	7.7	25.6	0.0	0.0	0.0	2.6	100.0(39)	
250-350미만	53.0	25.2	12.0	4.5	3.4	1.5	0.4	100.0(266)	
350-450미만	58.1	21.7	11.7	4.2	3.1	1.4	0.0	100.0(360)	43.1(24)**
450-550미만	61.8	18.6	13.2	4.5	1.4	0.0	0.5	100.0(220)	
550이상	72.3	13.4	11.8	1.7	0.8	0.0	0.0	100.0(119)	
자녀연령									
영아	59.8	15.5	14.4	6.2	3.1	1.0	0.0	100.0(97)	
유아	59.4	20.9	12.5	3.6	2.3	0.9	0.3	100.0(907)	3.6(6)

* $p < .05$, ** $p < .01$

2)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

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식사

일주일에 모든 식구가 식사하는 빈도(평일: 총 15회 중)에 대해 알아본 결과, 5-10회 미만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10회 이상 40.3%, 5회 미만 13.4%, 없음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2〉 온 식구 식사 빈도(평일: 총 15회 중)

	없음	5회 미만	5-10회 미만	10회 이상	계	$\chi^2(df)$	단위: %(명), (회) 평균
전체	1.7	13.4	44.5	40.3	100.0(1,004)		7.68
연령							
30대이하	1.7	13.6	44.8	39.9	100.0(719)	0.2(3)	7.64
40대이상	1.8	13.0	43.9	41.4	100.0(285)		7.79
학력							
고졸이하	1.2	9.2	40.2	49.4	100.0(249)	13.0(3)**	8.64
대졸이상	1.9	14.8	46.0	37.4	100.0(755)		7.36
지역유형							
대도시	2.4	13.7	47.4	36.5	100.0(422)		7.25
중소도시	1.0	12.9	41.0	45.1	100.0(497)	11.8(6)	8.10
농어촌	2.4	15.3	50.6	31.8	100.0(85)		7.36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6	7.7	56.4	33.3	100.0(39)		7.36
250-350미만	1.9	9.4	47.0	41.7	100.0(266)		7.88
350-450미만	0.8	8.9	40.3	50.0	100.0(360)	66.6(12)***	8.43
450-550미만	2.3	18.6	42.7	36.4	100.0(220)		7.24
550이상	2.5	28.6	51.3	17.6	100.0(119)		5.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	14.4	48.6	35.1	100.0(541)	13.3(3)**	7.28
비맞벌이	1.5	12.3	39.7	46.4	100.0(463)		8.15
자녀연령							
영아	3.1	10.3	53.6	33.0	100.0(97)	5.5(3)	7.15
유아	1.5	13.8	43.6	41.1	100.0(907)		7.74

** $p < .01$, *** $p < .001$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라 온 식구가 식사하는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학력,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평일 자녀와 식사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졸 이하 부모는 10회 이상이 49.4%로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부모는 5-10회 미만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350-4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른 소득가구의 식사 빈도가 5-10회 미만이 가장 높은 데 비해 10회 이상이 50.0%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비맞벌이 가구는 10회 이상이 48.6%로 가장 높은 데 비해 맞벌이 가구는 5-10회 미만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식구가 식사하는 빈도(휴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6회가 34.2%로 가장 높아 휴일은 대체로 온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4회

28.5%, 5회 16.1%, 3회 15.4%, 2회 4.6%, 1회 0.9%, 없음이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 학력, 지역유형,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5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주 4회가 35.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3〉 온 식구 식사 빈도(휴일: 총 6회)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	$\chi^2(df)$	평균
전체	0.3	0.9	4.6	15.4	28.5	16.1	34.2	100.0(1,004)		4.56
연령										
30대이하	0.1	0.7	4.7	14.9	29.1	16.8	33.7	100.0(719)	5.2(6)	4.57
40대이상	0.7	1.4	4.2	16.8	27.0	14.4	35.4	100.0(285)		4.53
학력										
고졸이하	0.4	0.4	4.4	16.9	25.7	16.5	35.7	100.0(249)	2.6(6)	4.59
대졸이상	0.3	1.1	4.6	15.0	29.4	16.0	33.6	100.0(755)		4.55
지역유형										
대도시	0.5	1.4	5.2	15.2	28.2	16.6	32.9	100.0(422)		4.51
중소도시	0.0	0.4	4.6	15.3	27.0	15.7	37.0	100.0(497)	17.6(12)	4.64
농어촌	1.2	1.2	1.2	17.6	38.8	16.5	23.5	100.0(85)		4.3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5.1	2.6	12.8	35.9	17.9	25.6	100.0(39)		4.36
250-350미만	0.4	0.8	4.9	13.9	28.6	17.7	33.8	100.0(266)		4.58
350-450미만	0.0	0.3	4.2	17.5	27.8	15.8	34.4	100.0(360)	28.4(24)	4.58
450-550미만	0.9	0.9	4.1	12.3	29.1	18.6	34.1	100.0(220)		4.60
550이상	0.0	1.7	6.7	19.3	26.9	8.4	37.0	100.0(119)		4.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	0.7	5.2	17.7	28.8	15.5	31.8	100.0(541)	8.0(6)	4.48
비맞벌이	0.4	1.1	3.9	12.7	28.1	16.8	36.9	100.0(463)		4.65
자녀연령										
영아	0.0	0.0	7.2	15.5	28.9	16.5	32.0	100.0(97)	3.1(6)	4.51
유아	0.3	1.0	4.3	15.4	28.4	16.1	34.4	100.0(907)		4.57

나)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평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시간이 30.4%로 가장 높았고 1~2시간 26.4%, 4시간 이상 18.9%, 3~4시간 17.4%, 1시간 미만 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 학력,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2-4〉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평일)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	계	$\chi^2(df)$	단위: %(명), (시간)
전체	7.0	26.4	30.4	17.4	18.9	100.0(1,004)		2.57
연령								
30대이하	7.1	25.2	29.9	17.8	20.0	100.0(719)	3.6(4)	2.63
40대이상	6.7	29.4	31.6	16.3	16.0	100.0(285)		2.42
학력								
고졸이하	6.5	23.6	32.5	20.7	16.7	100.0(249)	4.5(4)	2.58
대졸이상	7.2	27.3	29.7	16.3	19.6	100.0(755)		2.57
지역유형								
대도시	6.9	23.9	28.2	15.2	25.8	100.0(422)		2.90
중소도시	7.1	26.8	32.3	19.2	14.7	100.0(497)	27.5(8)***	2.37
농어촌	7.2	36.1	30.1	18.1	8.4	100.0(85)		2.06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13.2	23.7	15.8	34.2	13.2	100.0(39)		2.60
250-350미만	5.3	21.8	30.8	20.7	21.4	100.0(266)		2.76
350-450미만	5.6	26.4	30.8	16.4	20.8	100.0(360)	41.1(16)***	2.70
450-550미만	9.2	25.2	36.2	12.4	17.0	100.0(220)		2.38
550이상	9.2	39.5	21.8	16.8	12.6	100.0(119)		2.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2	33.5	30.5	13.1	12.8	100.0(541)		2.21
비맞벌이	3.9	17.9	30.3	22.2	25.9	100.0(463)	75.0(4)***	3.00
자녀연령								
영아	7.2	27.8	28.9	15.5	20.6	100.0(97)	0.6(4)	2.76
유아	7.0	26.2	30.5	17.6	18.7	100.0(907)		2.55

*** $p < .001$

한편,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2~3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농어촌은 1~2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부모가 3~4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가장 높은 반면, 550만원 이상인 부모는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맞벌이 부모는 1~2시간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고 비맞벌이 부모는 2~3시간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농어촌 지역과 55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의 평일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휴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4시간 이상이 57.7%로 가장

높았고 2~3시간 17.7%, 3~4시간 17.6%, 1~2시간 6.4%, 1시간 미만 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이하는 4시간 이상이 60.6%로 가장 높았고 2~3시간(19.5%), 3~4시간(13.0%), 1~2시간(6.5%), 1시간 미만(0.4%) 순이었으며, 대졸 이상도 고졸 이하와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5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3~4시간(19.1%), 2~3시간(17.1%), 1~2시간(6.4%), 1시간 미만(0.7%) 순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50-550만원 미만 가구인 경우 4시간 이상이 61.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졸 이상, 소득 450-550만원 미만일 때 어머니와 자녀의 휴일 놀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2-5〉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휴일)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	계	X ² (df)	평균
전체	0.6	6.4	17.7	17.6	57.7	100.0(1,004)		4.36
연령								
30대이하	0.3	6.3	16.3	17.8	59.4	100.0(719)	9.2(4)	4.40
40대이상	1.4	6.7	21.3	17.0	53.5	100.0(285)		4.26
학력								
고졸이하	0.4	6.5	19.5	13.0	60.6	100.0(249)	31.0(4)***	4.31
대졸이상	0.7	6.4	17.1	19.1	56.8	100.0(755)		4.38
지역유형								
대도시	0.5	7.3	14.9	15.9	61.4	100.0(422)		4.80
중소도시	0.8	5.8	17.7	17.5	58.1	100.0(497)	13.6(8)	4.16
농어촌	0.0	4.8	31.3	26.5	37.3	100.0(85)		3.41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5.3	2.6	13.2	23.7	55.3	100.0(39)		4.34
250-350미만	0.0	7.5	18.0	17.7	56.8	100.0(266)		4.28
350-450미만	0.3	6.9	18.6	15.3	58.9	100.0(360)	34.4(16)**	4.30
450-550미만	0.5	6.4	17.4	14.2	61.5	100.0(220)		4.59
550이상	1.7	3.4	16.0	28.6	50.4	100.0(119)		4.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0.6	6.5	20.3	18.5	54.2	100.0(541)	7.9(4)	4.29
비맞벌이	0.7	6.3	14.6	16.5	62.0	100.0(463)		4.45
자녀연령								
영아	1.0	2.1	18.6	19.6	58.8	100.0(97)	8.2(4)	4.70
유아	0.6	6.9	17.6	17.4	57.6	100.0(907)		4.33

** p < .01, *** p < .001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평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시간 42.2%, 1시간 미만 38.7%, 2~3시간 12.8%, 3~4시간 3.2%, 4시간 이상 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V-2-6 참조).

〈표 V-2-6〉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평일)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	계	X ² (df)	평균
전체	38.7	42.2	12.8	3.2	3.1	100.0(1,004)		1.19
연령								
30대이하	37.4	41.1	14.6	3.5	3.4	100.0(719)	8.6(4)	1.23
40대이상	41.8	45.0	8.2	2.5	2.5	100.0(285)		1.08
학력								
고졸이하	26.3	56.4	9.9	4.1	3.3	100.0(249)	5.2(4)	1.27
대졸이상	42.7	37.6	13.7	2.9	3.1	100.0(755)		1.17
지역유형								
대도시	36.4	40.9	14.4	3.6	4.8	100.0(422)		1.27
중소도시	38.9	43.6	12.0	3.2	2.2	100.0(497)	24.1(8)**	1.17
농어촌	48.8	40.2	9.8	1.2	0.0	100.0(85)		0.92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35.5	45.2	9.7	6.5	3.2	100.0(39)		1.20
250-350미만	37.1	48.9	9.8	2.3	1.9	100.0(266)	35.8(16)**	1.14
350-450미만	34.7	41.9	13.9	5.0	4.4	100.0(360)		1.29
450-550미만	39.1	41.4	15.0	2.7	1.8	100.0(220)		1.17
550이상	54.2	28.8	12.7	0.0	4.2	100.0(119)		1.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3	37.7	13.5	2.6	3.9	100.0(541)	75.0(4)**	1.19
비맞벌이	34.3	47.6	11.9	4.0	2.2	100.0(463)		1.19
자녀연령								
영아	33.3	38.5	20.8	5.2	2.1	100.0(97)	3.8(4)	1.27
유아	39.2	42.6	11.9	3.0	3.2	100.0(907)		1.18

** p < .01

지역유형,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유형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1~2시간이 가장 많은 데 비해 농어촌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1~2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550만원 이상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1시간 미만이 42.3%로 가장 높았으며 비맞벌이는 1~2시간이 47.6%로 가장

높았다. 즉, 아버지와의 평일 놀이 시간은 대도시일수록, 비맞벌이일수록 많고 55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휴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4시간 이상이 33.3%, 2~3시간 23.5%, 3~4시간 19.3%, 1~2시간 17.6%, 1시간 미만 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7〉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휴일)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	계	X ² (df)	평균
전체	6.2	17.6	23.5	19.3	33.3	100.0(1,004)		3.18
연령								
30대이하	5.3	17.1	21.3	21.2	35.1	100.0(719)	15.4(4)**	3.30
40대이상	8.6	18.9	28.9	14.6	28.9	100.0(285)		2.89
학력								
고졸이하	3.7	16.9	30.0	19.3	30.0	100.0(249)	10.4(4)*	3.09
대졸이상	7.1	17.9	21.3	19.3	34.4	100.0(755)		3.21
지역유형								
대도시	5.5	16.0	21.1	20.8	36.6	100.0(422)		3.47
중소도시	6.5	17.6	24.3	19.1	32.5	100.0(497)	14.2(8)	3.06
농어촌	8.5	25.6	30.5	13.4	22.0	100.0(85)		2.44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12.9	16.1	22.6	29.0	19.4	100.0(39)		2.51
250-350미만	4.9	17.8	23.5	22.0	31.8	100.0(266)		3.10
350-450미만	5.8	19.2	25.3	19.2	30.6	100.0(360)	31(16)*	3.07
450-550미만	8.2	16.4	23.2	10.5	41.8	100.0(220)		3.47
550이상	5.1	15.3	18.6	28.0	33.1	100.0(119)		3.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	18.3	24.4	17.0	33.5	100.0(541)	4.7(4)	3.19
비맞벌이	7.8	16.4	21.8	21.6	32.4	100.0(463)		3.17
자녀연령								
영아	4.2	17.7	16.7	24.0	37.5	100.0(97)	4.6(4)	3.56
유아	6.5	17.6	24.2	18.8	32.9	100.0(907)		3.14

* p < .05, ** p < .01

이러한 경향은 연령, 지역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는 4시간 이상이 35.1%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상은 2~3시간과 4시간 이상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2~3시간과 4시간 이상이 같은 비율로 가장 높았으나, 대졸 이상은 4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4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인데 비해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은 3~4시간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휴일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은 40대 이상, 고졸 이하,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녀 양육 방식: 칭찬해주기 정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어머니)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주하는 편임 60.7%, 매우 자주하는 편임 19.1%, 보통임 18.8%, 별로 자주하지 않음 1.3%, 거의 안 함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8〉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어머니)

	거의 안함	별로자주 하지않음	보통임	자주 하는편임	매우자주 하는편임	계	$\chi^2(df)$	평균
연령								
30대이하	0.1	1.4	18.6	61.1	18.8	100.0(719)	0.8(4)	3.97
40대이상	0.0	1.1	19.1	59.9	19.9	100.0(285)	3.99	
학력								
고졸이하	0.0	1.2	17.5	68.7	12.6	100.0(249)	11.2(4)*	3.93
대졸이상	0.1	1.3	19.2	58.1	21.2	100.0(755)	3.99	
지역유형								
대도시	0.2	1.2	16.1	56.6	25.8	100.0(422)	4.07	
중소도시	0.0	1.4	20.8	64.1	13.7	100.0(497)	24.1(8)**	3.90
농어촌	0.0	1.2	20.5	61.4	16.9	100.0(85)	3.94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2.6	10.5	68.4	18.4	100.0(39)	4.03	
250-350미만	0.0	2.3	20.7	57.9	19.2	100.0(266)	3.94	
350-450미만	0.0	0.6	18.6	64.7	16.1	100.0(360)	25.1(16)	3.96
450-550미만	0.0	1.8	16.5	56.4	25.2	100.0(220)	4.05	
550이상	0.8	0.0	21.8	60.5	16.8	100.0(119)	3.92	
자녀연령								
영아	0.0	1.0	22.7	52.6	23.7	100.0(97)	3.4(4)	3.99
유아	0.1	1.3	18.4	61.6	18.6	100.0(907)	3.97	

* $p < .05$, ** $p < .01$

이러한 경향은 연령, 학력, 지역유형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 자주하는 편임이 68.7%, 58.1%로 가장 높았으나 대졸 이상 어머니의 칭찬하는 정도가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아버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주하는 편임 50.7%, 보통임 30.4%, 매우 자주하는 편임 15.0%, 별로 자주 하지 않음 3.3%, 거의 안함 0.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지역유형, 자녀연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유형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농어촌 지역의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칭찬을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자녀의 행동에 대한 칭찬 정도(아버지)

	거의 안함	별로자주 하지않음	보통임	자주 하는편임	매우자주 하는편임	계	단위:%(명), (점) $\chi^2(df)$	평균
전체	0.6	3.3	30.4	50.7	15.0	100.0(1,004)		3.76
연령								
30대이하	0.7	2.7	29.9	51.5	15.3	100.0(719)	4.4(4)	3.78
40대이상	0.4	5.0	31.8	48.6	14.3	100.0(285)		3.71
학력								
고졸이하	1.2	4.1	33.3	51.4	9.9	100.0(249)	9.3(4)	3.65
대졸이상	0.4	3.1	29.5	50.4	16.7	100.0(755)		3.80
지역유형								
대도시	1.2	4.1	25.4	48.1	21.3	100.0(422)		3.84
중소도시	0.2	2.2	33.1	53.5	11.0	100.0(497)	37.1(8)***	3.73
농어촌	0.0	6.1	40.2	46.3	7.3	100.0(85)		3.5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0.0	41.9	48.4	9.7	100.0(39)		3.68
250-350미만	1.5	3.4	33.3	47.0	14.8	100.0(266)		3.70
350-450미만	0.3	2.5	28.9	54.4	13.9	100.0(360)	15.5(16)	3.79
450-550미만	0.5	4.1	27.3	51.4	16.8	100.0(220)		3.80
550이상	0.0	5.1	31.4	46.6	16.9	100.0(119)		3.75
자녀연령								
영아	1.0	2.1	31.3	42.7	22.9	100.0(97)	6.6(4)	3.84
유아	0.6	3.5	30.3	51.5	14.2	100.0(907)		3.75

*** $p < .001$

라) 자녀 양육 방식: 자녀를 꾸짖는 방법

자녀가 예절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의 대처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함이 37.6%,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따끔하게 혼냄 22.0%,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부드럽게 이야기함 19.1%,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따끔하게 혼냄 15.2%,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되므로 가능한 한 지적하지 않고 지나감이 4.2%, 별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아 지적할 일이 없음 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지역유형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V-2-10〉 예절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 시 대처방안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7.6	22.0	19.1	15.2	4.2	1.8	100.0(1,004)	
연령								
30대이하	38.4	22.5	17.8	15.6	4.2	1.5	100.0(719)	
40대이상	35.8	20.7	22.5	14.4	4.2	2.5	100.0(285)	4.2(5)
학력								
고졸이하	29.7	19.7	26.9	14.5	6.8	2.4	100.0(249)	
대학이상	40.3	22.8	16.6	15.5	3.3	1.6	100.0(755)	23.2(5)***
지역유형								
대도시	34.8	22.0	19.0	17.8	3.8	2.6	100.0(422)	
중소도시	40.8	21.3	20.1	13.3	3.2	1.2	100.0(497)	23.5(10)**
농어촌	32.9	25.9	14.1	14.1	11.8	1.2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30.8	41.0	15.4	12.8	0.0	0.0	100.0(39)	
250-350미만	34.6	24.8	16.5	16.9	5.3	1.9	100.0(266)	
350-450미만	39.2	17.8	21.1	15.8	4.7	1.4	100.0(360)	32.3(20)*
450-550미만	34.1	21.8	20.5	15.9	5.0	2.7	100.0(220)	
550이상	48.7	22.7	17.6	9.2	0.0	1.7	100.0(119)	
자녀연령								
영아	37.1	28.9	13.4	10.3	5.2	5.2	100.0(97)	
유아	37.7	21.3	19.7	15.8	4.1	1.4	100.0(907)	12.9(5)*

- ①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 함
- ②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따끔하게 혼냄
- ③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부드럽게 이야기함
- ④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따끔하게 혼냄
- ⑤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되므로 가능한 한 지적하지 않고 지나감
- ⑥ 별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아 지적할 일이 없음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대졸 이상은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고졸 이하는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

로 다른 가구소득이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50만원 미만은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따끔하게 혼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인성교육의 방법

가) 강조하는 인성교육 요소

자녀의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아는 인사 잘함 11.2%, 자기 존중 7.8%, 배려 7.7%, 자기존중 7.5%, 정직 7.1%, 타인존중 6.7%, 예절 5.7%, 양보 5.2%, 식습관 5.1%, 정리정돈 5.0%, 약속 준수 3.7%, 질서 3.5%, 대인관계 3.4%, 성실 3.1%, 인내 2.9%, 청결 2.6%, 책임감 2.4%, 근면 1.9%, 협동 1.8%, 기타 1.3%, 공동체 의식 1.0%, 생명존중 0.8%, 공중도덕 준수, 용기 0.7%, 질서준수 0.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인사 잘함 12.4%, 자기존중 11.3%, 식습관 9.3%, 정리정돈 8.2%, 예절 7.2%, 타인존중 5.2%, 약속준수, 대인관계 4.1%, 인내 3.1%, 청결 2.1%, 생명존중, 공중도덕 준수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1〉 자녀 인성교육 시 강조하는 내용

단위: %(명)												
	인사 잘함	자기 존중	자기 통제	배려	정직	타인 존중	예절	식습관	정리 정돈	양보	약속 준수	성실
전체(1004)	11.4	7.9	7.7	7.3	7.2	6.6	5.9	5.5	5.3	4.9	3.8	3.5
영아(97)	12.4	11.3	6.2	3.1	8.2	5.2	7.2	9.3	8.2	2.1	4.1	7.2
유아(907)	11.2	7.5	7.8	7.7	7.1	6.7	5.7	5.1	5.0	5.2	3.7	3.1
	대인 관계	질서	인내	청결	책임감	근면	협동	공동체 의식	생명 존중	공중 도덕 준수	용기	질서 준수
전체(1004)	3.5	3.4	2.9	2.6	2.4	1.9	1.8	1.0	0.8	0.7	0.6	0.5
영아(97)	4.1	2.1	3.1	2.1	0.0	0.0	2.1	0.0	1.0	1.0	0.0	0.0
유아(907)	3.4	3.5	2.9	2.6	2.6	2.1	1.8	1.1	0.8	0.7	0.7	0.6

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한 평가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짐 55.5%, 보통 38.5%, 매우 잘 이루어짐 4.9%,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짐에 57.1%,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이 보통 51.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졸 이상,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영아 부모의 인성교육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수준이 다소 낮았다.

〈표 V-2-12〉 가정에서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명), (점)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계	$\chi^2(df)$	평균
전체	1.1	38.5	55.5	4.9	100.0(1,004)		3.64
성별							
모	0.9	38.6	55.4	5.0	100.0(976)	11.1(3)*	3.65
부	7.1	35.7	57.1	0.0	100.0(28)		3.50
연령							
30대이하	1.1	38.2	56.6	4.0	100.0(719)	4.4(3)	3.64
40대이상	1.1	39.3	52.6	7.0	100.0(285)		3.66
학력							
고졸이하	0.8	36.9	52.2	10.0	100.0(249)	19.2(3)***	3.71
대학이상	1.2	39.1	56.6	3.2	100.0(755)		3.62
지역유형							
대도시	0.7	37.2	58.1	4.0	100.0(422)		3.65
중소도시	1.2	39.8	53.5	5.4	100.0(497)	4.3(6)	3.63
농어촌	2.4	37.6	54.1	5.9	100.0(85)		3.64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6	51.3	46.2	0.0	100.0(39)		3.44
250-350미만	1.1	34.6	60.9	3.4	100.0(266)		3.67
350-450미만	0.8	34.4	56.9	7.8	100.0(360)	31.5(12)**	3.72
450-550미만	1.8	39.5	54.1	4.5	100.0(220)		3.61
550이상	0.0	53.8	44.5	1.7	100.0(119)		3.48
자녀연령							
영아	4.1	43.3	48.5	4.1	100.0(97)	10.7(3)*	3.53
유아	0.8	38.0	56.2	5.0	100.0(907)		3.65

* $p < .05$, ** $p < .01$, *** $p < .001$

다)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방법 중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을 지도하는 정도는 가끔 그려함 51.0%, 자주 그려함 30.2%, 보통 17.5%, 거의 하지 않음 1.1%, 전혀 하지 않음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3〉 인성교육의 방법 1: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 지도

단위: %(명), (점)

	전혀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려함	자주 그려함	계	$\chi^2(df)$	평균
전체	0.2	1.1	17.5	51.0	30.2	100.0(1,004)		4.10
성별								
모	0.1	1.1	17.4	51.1	30.2	100.0(976)	17.2(4)**	4.10
부	3.6	0.0	21.4	46.4	28.6	100.0(28)		3.96
연령								
30대이하	0.3	0.8	18.8	51.0	29.1	100.0(719)	5.7(4)	4.08
40대이상	0.0	1.8	14.4	50.9	33.0	100.0(285)		4.15
학력								
고졸이하	0.0	2.4	21.3	53.0	23.3	100.0(249)	14.0(4)**	3.97
대학이상	0.3	0.7	16.3	50.3	32.5	100.0(755)		4.14
지역유형								
대도시	0.0	0.2	13.7	47.2	38.9	100.0(422)		4.25
중소도시	0.4	1.6	18.9	54.1	24.9	100.0(497)	38.5(8)***	4.02
농어촌	0.0	2.4	28.2	51.8	17.6	100.0(85)		3.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6	2.6	20.5	43.6	30.8	100.0(39)		3.97
250-350미만	0.0	0.8	18.4	55.3	25.6	100.0(266)		4.06
350-450미만	0.3	0.6	15.0	56.1	28.1	100.0(360)	36.8(16)**	4.11
450-550미만	0.0	2.3	19.5	45.9	32.3	100.0(220)		4.08
550이상	0.0	0.8	18.5	37.8	42.9	100.0(119)		4.23
자녀연령								
영아	1.0	1.0	28.9	49.5	19.6	100.0(97)	15.6(4)**	3.86
유아	0.1	1.1	16.3	51.2	31.3	100.0(907)		4.12

** $p < .01$, *** $p < .001$

어머니는 가끔 그려함이 51.1%, 아버지의 경우 46.6%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졸 이하의 부모는 가끔 그려함이 53%, 대졸 이상이 50.3%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인데 비해 550만원 이상은 자주 그려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실천 정도가 높았고, 대졸 이상, 대도시, 유아 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부모의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인성교육의 방법 2: 행동규칙, 공중도덕 준수 등의 지도

단위: %(명), (점)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려함	자주 그려함	계	$\chi^2(df)$	평균
전체	0.4	11.5	43.0	45.1	100.0(1,004)		4.28
성별							
모	0.4	11.2	43.4	45.0	100.0(976)	4.2(3)	4.27
부	0.0	21.4	28.6	50.0	100.0(28)		4.29
연령							
30대이하	0.6	11.3	43.8	44.4	100.0(719)	2.3(3)	4.27
40대이상	0.0	11.9	41.1	47.0	100.0(285)		4.41
학력							
고졸이하	0.4	12.9	48.6	38.2	100.0(249)	6.5(3)	4.28
대졸이상	0.4	11.0	41.2	47.4	100.0(755)		4.40
지역유형							
대도시	0.5	9.0	40.0	50.5	100.0(422)		4.42
중소도시	0.4	12.1	45.3	42.3	100.0(497)	15.1(6)*	4.33
농어촌	0.0	20.0	44.7	35.3	100.0(85)		4.21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17.9	43.6	38.5	100.0(39)		4.22
250-350미만	0.0	11.7	43.6	44.7	100.0(266)		4.32
350-450미만	0.3	14.2	45.0	40.6	100.0(360)	23.6(12)*	4.34
450-550미만	1.4	7.3	43.6	47.7	100.0(220)		4.41
550이상	0.0	8.4	34.5	57.1	100.0(119)		4.50
자녀연령							
영아	0.0	13.4	46.4	40.2	100.0(97)	1.6(3)	4.33
유아	0.4	11.2	42.7	45.6	100.0(907)		4.26

* $p < .05$

인성교육의 방법 중 행동규칙, 공중도덕 준수 등을 가르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자주 그려함이 45.1%, 가끔 그려함 43.0%, 보통 11.5%, 거의 하지 않음 0.4% 순으로 나타났다(표 V-2-14 참조).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자주 그리함이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인데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가끔 그리함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의 부모의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덕적 교육을 주는 이야기 또는 책읽기의 실천 정도는 가끔 그리함 45.5%, 자주 그리함 25.8%, 보통 24.4%, 거의 하지 않음 4.2%, 전혀 하지 않음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5〉 인성교육의 방법 3: 도덕적 교육을 주는 이야기 또는 책읽기

단위: %(명), (점)

	전혀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리함	자주 그리함	계	$\chi^2(df)$	평균
전체	0.1	4.2	24.4	45.5	25.8	100.0(1,004)		3.93
성별								
모	0.0	4.1	24.5	45.7	25.7	100.0(976)	35.9(4)***	3.93
부	3.6	7.1	21.4	39.3	28.6	100.0(28)		3.82
연령								
30대이하	0.1	3.5	24.8	45.6	26.0	100.0(719)	3.6(4)	3.94
40대이상	0.0	6.0	23.5	45.3	25.3	100.0(285)		3.90
학력								
고졸이하	0.0	5.2	26.9	45.4	22.5	100.0(249)	3.4(4)	3.85
대학이상	0.1	3.8	23.6	45.6	26.9	100.0(755)		3.95
지역유형								
대도시	0.0	1.2	21.3	49.1	28.4	100.0(422)		4.05
중소도시	0.2	5.8	26.8	42.1	25.2	100.0(497)	28.4(8)***	3.86
농어촌	0.0	9.4	25.9	48.2	16.5	100.0(85)		3.72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6	12.8	38.5	30.8	15.4	100.0(39)		3.44
250-350미만	0.0	0.8	24.4	46.6	28.2	100.0(266)		4.02
350-450미만	0.0	3.1	21.7	48.6	26.7	100.0(360)	60.0(16)***	3.99
450-550미만	0.0	6.4	23.6	45.5	24.5	100.0(220)		3.88
550이상	0.0	8.4	29.4	38.7	23.5	100.0(119)		3.77
자녀연령								
영아	1.0	9.3	26.8	44.3	18.6	100.0(97)	18.5(4)***	3.70
유아	0.0	3.6	24.1	45.6	26.6	100.0(907)		3.95

*** $p < .001$

어머니는 가끔 그리함이 4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도 가끔 그리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실천 정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데 비해, 25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보통이 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아기의 책읽기 빈도가 영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방법 중 바람직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정도는 가끔 그려함 50.7%, 보통 25.9%, 자주 그려함 22.7%, 거의 하지 않음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6〉 인성교육의 방법 4: 바람직한 행동의 모범을 보임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려함	자주 그려함	계	$\chi^2(df)$	평균
전체	0.7	25.9	50.7	22.7	100.0(1,004)		4.02
성별							
모부	0.6	25.8	51.2	22.3	100.0(976)	7.6(3)	4.01
부부	3.6	28.6	32.1	35.7	100.0(28)		4.04
연령							
30대이하	0.7	26.6	51.3	21.4	100.0(719)	2.5(3)	3.93
40대이상	0.7	24.2	49.1	26.0	100.0(285)		4.04
학력							
고졸이하	0.4	29.7	48.2	21.7	100.0(249)	2.8(3)	3.98
대학이상	0.8	24.6	51.5	23.0	100.0(755)		4.03
지역유형							
대도시	0.2	22.5	50.0	27.3	100.0(422)		4.04
중소도시	0.8	27.4	52.3	19.5	100.0(497)	16.7(6)*	3.93
농어촌	2.4	34.1	44.7	18.8	100.0(85)		3.84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43.6	30.8	25.6	100.0(39)		3.79
250-350미만	1.5	28.6	48.5	21.4	100.0(266)		3.92
350-450미만	0.6	23.1	57.2	19.2	100.0(360)	23.6(12)*	4.01
450-550미만	0.5	23.2	48.6	27.7	100.0(220)		4.04
550이상	0.0	27.7	46.2	26.1	100.0(119)		4.02
자녀연령							
영아	0.0	39.2	47.4	13.4	100.0(97)	12.4(3)**	3.74
유아	0.8	24.5	51.0	23.7	100.0(907)		4.04

* $p < .05$, ** $p < .01$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는 모두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농어촌 지역 부모의 실천 정도가 다소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살펴보면, 대체로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250만원 미만은 보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성교육의 방법 중 역사나 문학, 종교 속의 위인 이야기를 해주고, 존경심을 보여주는 정도는 가끔 그려함 38.1%, 보통 35.3%, 자주 그려함 13.3%, 거의 하지 않음 12.6%, 전혀 하지 않음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농어촌은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2-17〉 인성교육의 방법 5: 역사나 문학, 종교 속의 위인 이야기를 해줌
단위: %(명), (점)

	전혀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려함	자주 그려함	계	X ² (df)	평균
전체	0.6	12.6	35.3	38.1	13.3	100.0(1,004)		3.51
성별								
남	0.6	12.6	35.0	38.4	13.3	100.0(976)	1.4(4)	3.51
여	0.0	14.3	42.9	28.6	14.3	100.0(28)		3.43
연령								
30대이하	0.6	13.2	35.7	37.4	13.1	100.0(719)	1.4(4)	3.49
40대이상	0.7	11.2	34.0	40.0	14.0	100.0(285)		3.55
학력								
고졸이하	1.2	12.4	34.9	36.5	14.9	100.0(249)	2.9(4)	3.51
대졸이상	0.4	12.7	35.4	38.7	12.8	100.0(755)		3.51
지역유형								
대도시	0.2	8.5	35.8	37.9	17.5	100.0(422)		3.64
중소도시	0.4	15.3	34.8	39.2	10.3	100.0(497)	33.9(8)***	3.44
농어촌	3.5	17.6	35.3	32.9	10.6	100.0(85)		3.29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7.7	23.1	41.0	25.6	2.6	100.0(39)		2.92
250-350미만	0.0	12.8	33.5	40.6	13.2	100.0(266)		3.54
350-450미만	0.0	9.2	34.4	42.5	13.9	100.0(360)	68.2(16)***	3.61
450-550미만	1.4	11.8	35.0	35.0	16.8	100.0(220)		3.54
550이상	0.0	21.0	40.3	29.4	9.2	100.0(119)		3.27

(표 V-2-17 계속)

	전혀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러함	자주 그러함	계	$\chi^2(df)$	평균
자녀연령								
영아	3.1	21.6	29.9	33.0	12.4	100.0(97)	19.8(4)***	3.30
유아	0.3	11.7	35.8	38.7	13.5	100.0(907)		3.53

*** $p < .001$

인성교육의 방법 중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정도는 보통 35.5%, 가끔 그러함 35.1%, 거의 하지 않음 18.1%, 자주 그러함 9.0%, 전혀 하지 않음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V-2-18〉 인성교육의 방법 6: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줌

	전혀 하지않음	거의 하지않음	보통	가끔 그러함	자주 그러함	계	$\chi^2(df)$	평균	단위: %(명), (점)
전체	2.4	18.1	35.5	35.1	9.0	100.0(1004)		3.30	
성별									
모	2.4	18.1	35.5	35.1	8.9	100.0(976)	0.3(4)	3.30	
부	3.6	17.9	35.7	32.1	10.7	100.0(28)		3.29	
연령									
30대이하	2.8	17.4	36.6	35.0	8.2	100.0(719)	4.9(4)	3.29	
40대이상	1.4	20.0	32.6	35.1	10.9	100.0(285)		3.34	
학력									
고졸이하	2.0	13.7	32.1	39.8	12.4	100.0(249)	11.5(4)*	3.47	
대졸이상	2.5	19.6	36.6	33.5	7.8	100.0(755)		3.25	
지역유형									
대도시	1.2	14.0	40.8	34.8	9.2	100.0(422)		3.37	
중소도시	2.6	21.7	31.0	35.8	8.9	100.0(497)	24.6(8)**	3.27	
농어촌	7.1	17.6	35.3	31.8	8.2	100.0(85)		3.16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7.7	17.9	33.3	33.3	7.7	100.0(39)		3.15	
250-350미만	2.6	15.4	32.0	42.5	7.5	100.0(266)		3.37	
350-450미만	1.4	13.1	35.8	39.7	10.0	100.0(360)	47.6(16)***	3.44	
450-550미만	2.3	23.2	37.3	27.3	10.0	100.0(220)		3.20	
550이상	3.4	30.3	39.5	19.3	7.6	100.0(119)		2.97	
자녀연령									
영아	5.2	22.7	34.0	32.0	6.2	100.0(97)	5.9(4)	3.11	
유아	2.1	17.6	35.6	35.4	9.3	100.0(907)		3.32	

* $p < .05$, ** $p < .01$, *** $p < .001$

고졸 이하 부모는 가끔 그려함이 3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해 대졸 이상은 36.6%로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도시와 농어촌 부모는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 35.8%로 가끔 그려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치원 부모는 보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부모는 가끔 그려함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유치원·어린이집 인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수행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 49.8%,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 47.7%,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4%,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2-19〉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명)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	계	$\chi^2(df)$
전체	0.1	2.4	47.7	49.8	100.0(1,004)	
성별						
모	0.1	2.5	47.8	49.6	100.0(976)	
부	0.0	0.0	42.9	57.1	100.0(28)	1.2(3)
연령						
30대이하	0.1	2.2	48.4	49.2	100.0(719)	
40대이상	0.0	2.8	46.0	51.2	100.0(285)	1.1(3)
학력						
고졸이하	0.0	2.8	47.0	50.2	100.0(249)	
대학이상	0.1	2.3	47.9	49.7	100.0(755)	0.6(3)
지역유형						
대도시	0.0	2.4	42.2	55.5	100.0(422)	
중소도시	0.2	2.0	51.3	46.5	100.0(497)	13.1(6)*
농어촌	0.0	4.7	54.1	41.2	100.0(85)	

(표 V-2-19 계속)

	전혀 있지 않음	별로 있지 않음	조금 있음	자주 있음	계	$\chi^2(df)$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0.0	2.6	30.8	66.7	100.0(39)	
250-350미만	0.0	2.3	57.1	40.6	100.0(266)	
350-450미만	0.3	3.1	51.4	45.3	100.0(360)	40.2(12)***
450-550미만	0.0	2.7	42.3	55.0	100.0(220)	
550이상	0.0	0.0	31.1	68.9	100.0(119)	
자녀연령						
영아	0.0	2.1	47.4	50.5	100.0(97)	
유아	0.1	2.4	47.7	49.7	100.0(907)	0.2(3)
기관유형						
유치원	0.0	2.2	46.0	51.8	100.0(504)	
어린이집	0.2	2.6	49.4	47.8	100.0(500)	2.6(3)

* $p < .05$, *** $p < .001$

지역유형별로는 대도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이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250-350만원 미만, 350-450만원 미만 부모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내용 중 가장 만족하는 인성교육 활동(2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41.5%, 누리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35.2%,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34.8%, 체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7.3%,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14.6%, 교사의 솔선수범을 통한 인성교육 10.5%,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10.2%,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8.4%,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 기관유형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영아부모가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20〉 가장 만족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인성교육 내용(중복 응답)

단위: %(명)

	기본 생활 습관 지도	누리 과정	예절 교육	체험 교육	대화	교사의 솔선 수범	그림책 활용	가정 과의 연계	프로 그램 활용	기타 ¹⁾	사례 수
전체	41.5	35.2	34.8	17.3	14.6	10.5	10.2	8.4	7.1	10.1	1,004
성별											
보	41.8	35.2	35.1	17.4	14.3	10.5	10.2	8.3	6.9	10.1	976
부	32.1	32.1	21.4	14.3	25.0	10.7	7.1	10.7	14.3	10.7	28
연령											
30대이하	42.0	36.2	32.8	16.4	16.0	10.8	9.5	9.3	6.7	9.4	719
40대이상	40.4	32.6	39.6	19.6	11.2	9.5	11.9	6.0	8.1	12.0	285
학력											
고졸이하	35.7	38.2	34.1	19.7	13.7	10.8	11.6	6.4	7.6	10.4	249
대졸이상	43.4	34.2	35.0	16.6	15.0	10.3	9.7	9.0	6.9	9.8	755
지역유형											
대도시	41.0	31.8	32.0	19.9	17.5	9.5	10.2	8.5	9.0	11.2	422
중소도시	41.0	37.2	37.6	15.5	13.5	11.1	9.7	8.9	5.8	9.6	497
농어촌	47.1	40.0	31.8	15.3	7.1	11.8	12.9	4.7	4.7	7.1	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64.1	41.0	28.2	10.3	10.3	10.3	0.0	10.3	12.8	2.6	39
250-350미만	36.5	29.7	31.6	18.0	18.4	12.8	15.4	8.6	7.9	7.9	266
350-450미만	36.7	36.4	38.6	17.2	13.6	9.7	11.1	7.5	6.9	11.9	360
450-550미만	45.0	39.5	30.0	17.3	15.0	10.9	8.2	9.5	6.4	11.9	220
550이상	53.8	33.6	41.2	18.5	10.1	6.7	2.5	7.6	5.0	8.5	119
자녀연령											
영아	58.8	30.9	20.6	15.5	9.3	12.4	16.5	6.2	7.2	8.2	97
유아	39.7	35.6	36.3	17.5	15.2	10.3	9.5	8.6	7.1	10.2	907
기관유형											
유치원	40.7	35.7	37.9	17.7	14.9	10.3	8.9	7.1	8.5	9.4	504
어린이집	42.4	34.6	31.6	17.0	14.4	10.6	11.4	9.6	5.6	10.8	500

주: 1) 부모교육, 동·식물 기르기, 봉사 활동, 없음 또는 모름, 기타

4. 영유아 인성교육의 어려움과 요구 및 의견

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의 의견

1) 인성교육의 문제점

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장애물이 되거나 진행을 어렵게 하

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0% 이상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교육의 약화’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47.7%), 부모 무관심(42.2%)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3.1%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인성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전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10% 이상 지적되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및 각각의 유형별 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1〉 인성교육 실천 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교사의 응답

단위: %(명)

	없음	가정 교육 약화	부모 무관심	문제 행동 아동	전문 프로 그램 부족	전문 기관 연계 부족	연령 혼합반 운영	원장, 교사 교육목표 불일치	기타	사례수
전체	9.8	47.7	42.2	23.1	14.9	10.9	6.7	0.9	1.3	1,004
기관유형										
유치원	10.7	49.0	39.5	23.6	15.3	11.9	5.2	1.0	1.2	504
어린이집	8.8	46.4	45.0	22.6	14.6	9.8	8.2	0.8	1.4	500
지역유형										
대도시	8.3	47.4	49.8	25.8	12.3	12.8	5.5	0.5	1.7	422
중소도시	11.3	47.4	36.9	22.4	16.7	8.5	7.9	1.4	0.8	504
농어촌	7.7	51.3	35.9	12.8	17.9	15.4	5.1	0.0	2.6	78
교사경력										
5년미만	10.3	47.5	38.4	27.3	14.9	9.1	6.6	0.4	0.8	242
5-10년미만	7.6	47.1	44.0	24.1	16.8	12.9	7.0	1.1	1.7	357
10-15년미만	8.9	49.0	48.0	19.3	12.4	10.9	7.9	1.5	1.5	202
15년이상	13.8	47.8	37.9	20.2	14.3	9.4	4.9	0.5	1.0	203
교사연령										
20대	8.8	38.0	13.9	24.4	5.4	3.1	5.4	0.3	0.6	295
30대	9.5	34.5	17.2	21.8	6.1	2.4	6.9	0.0	1.6	377
40대	9.3	38.4	16.3	21.3	5.0	2.3	7.0	0.0	0.4	258
50대 이상	16.2	41.9	12.2	12.2	2.7	2.7	9.5	1.4	1.4	74

2)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요건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지 질문한 데 대해 ‘부모와의 연계 및 도움’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다음은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 31.7%로 꼽혔다. 세 번째로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20.8%가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자체 프로그램 개

발, 교육청의 자료 개발 및 배포, 지역사회 연계 등은 선택된 경우가 적었다.

기관유형별 비교에서도 전체적 응답 경향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보다 부모의 연계나 교사의 전문적 자질의 중요성을 지적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부모 연계보다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3-2〉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필요 요소

단위: %(명)

	부모 연계 및 도움	교사 전문적 자질향상	교육· 보육과정 활용·인성 교육강화	기관자체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교육청 자료개발 및 배포	지역사회 연계 및 지원체계 도움	계	$\chi^2(df)$
전체	34.4	31.7	20.8	5.9	3.8	3.4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33.7	28.8	21.4	6.3	5.6	4.0	100.0(504)	13.8(5)*
어린이집	35.0	34.6	20.2	5.4	2.0	2.8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32.2	32.7	22.3	7.1	4.0	1.4	100.0(422)	
중소도시	37.5	30.8	18.5	5.0	3.4	5.0	100.0(504)	20.3(10)
농어촌	25.6	32.1	28.2	5.1	5.1	3.8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35.1	33.1	17.4	6.6	4.5	3.3	100.0(242)	
5~10년미만	32.5	29.7	24.1	6.2	3.6	3.6	100.0(357)	13.18(15)
10~15년미만	39.1	30.2	21.8	4.0	2.5	2.5	100.0(202)	
15년이상	32.0	35.0	18.2	6.4	4.4	3.9	100.0(203)	
교사연령								
20대	34.9	30.2	18.6	8.1	5.4	7.8	100.0(295)	
30대	34.7	30.0	24.1	8.5	2.7	11.4	100.0(377)	13.80(15)
40대	34.1	35.3	18.2	9.3	3.9	8.5	100.0(258)	
50대 이상	31.1	33.8	21.6	8.2	2.7	16.4	100.0(74)	

* $p < .05$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내용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장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계로 보는 관점에서, 이 시기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사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기’를 53.2%가 선택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교육 내용

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22.7%의 교사가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자아존중감 형성, 생명과 환경 존중, 질서와 규칙 준수 등은 10%가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선택 비율을 보였다. 교사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연령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표 V-3-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주요 내용

	단위: %(명)										
	상태방 배려, 양보	기본 생활 습관	자아 존중감 형성	생명, 환경 존중	공동체 의식	질서, 규칙 준수	예의, 예절 갖추기	나눔 실천	부모, 어른 공감(회)	계	$\chi^2(df)$
전체	53.2	22.7	8.6	5.4	4.8	2.2	1.3	1.0	0.7	1000(1,004)	
기관유형											
유치원	54.4	22.2	6.9	4.8	5.0	2.6	1.4	1.6	0.8	1000(504)	10.7(8)
어린이집	52.0	23.2	10.2	6.0	4.6	1.8	1.2	0.4	0.6	1000(500)	
지역유형											
대도시	57.1	19.7	9.5	5.5	4.5	1.2	1.9	0.0	0.7	1000(422)	
중소도시	50.0	24.4	8.5	5.4	5.2	3.0	1.0	1.6	0.6	1000(504)	24.7(16)
농어촌	52.6	28.2	3.8	5.1	3.8	2.6	0.0	2.6	1.3	1000(78)	
교사경력											
5년미만	52.9	25.2	8.3	4.1	5.8	1.2	0.4	1.7	0.0	1000(242)	
5~10년미만	54.6	21.0	9.0	5.3	4.2	3.4	1.7	0.0	0.8	1000(357)	30.5(27)
10~15년미만	53.5	19.3	6.9	8.9	5.4	1.0	2.0	1.5	1.0	1000(202)	
15년이상	50.7	26.1	9.9	3.4	3.9	2.5	1.0	1.5	1.0	1000(203)	
교사연령											
20대	59.0	15.9	8.5	5.1	6.1	2.4	1.4	1.0	0.3	1000(295)	
30대	54.1	20.2	9.3	5.8	5.3	0.8	1.6	1.6	1.1	1000(377)	51.3(27)*
40대	48.1	32.2	7.8	5.0	3.5	2.3	0.8	0.0	0.4	1000(258)	
50대 이상	43.2	29.7	8.1	5.4	1.4	8.1	1.4	1.4	1.4	1000(74)	

** $p < .01$

4) 학교폭력 예방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적게 한 결과,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가정 교육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39.0)을 얻었고, 다음은 인성교육 방법에 관한 자료 제공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17.2%)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11.4%)이었고 그 외의 의견은 모두 응답자의 1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성교육 자료 및 방법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시되었다.

〈표 V-3-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항목	비율	빈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가정교육 강화 및 제도적 뒷받침	42.1	121
인성교육 방법에 관한 자료 제공 확대	17.2	50
인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11.4	33
인성교육 관련 부모교육	8.6	25
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3	24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6.9	20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6.2	18
지역사회와의 교류	4.1	12
인성 관련 강사가 직접 찾아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2.1	6
현장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지원	1.7	5
개별면담 가능하도록 학급 원아수와 교사의 비율 감소	1.7	5
인성관련 공연, 인형극 등 놀이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1.4	4
교육·보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1.0	3
인성프로그램을 놀이자료로 많이 개발하였으면 함	1.0	3
다양한 시청각교육 개발	1.0	3
인성은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이어야 한다	1.0	3
교사들의 열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	3
계	100.0	290

주: 1% 미만 삭제

나. 부모의 의견

1) 가정 내 자녀 인성교육의 문제점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능력 위주 사회풍토 31.0%, 어려움 없음 26.7%, 시간부족 18.5%, 비협조적 배우자 8.0%,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는 어려움 없음이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능력 위주 사회풍토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영아인 경우 29.9%로 어려움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는 능력 위주 사회풍토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유아 부모보다 영어 부모가 시간 부족, 교육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영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표 V-3-5〉 가정에서 인성교육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어려움 없음	능력 사회 풍토	시간 부족	교육 방법을 모름	비협조적 배우자	기타	계	X ² (df)
전체	26.7	31.0	18.5	14.8	8.0	1.00	100.0(1004)	
성별								
모부	26.8 21.4	31.1 25.0	17.9 39.3	15.0 10.7	8.1 3.6	1.02 0.00	100.0(976) 100.0(28)	8.6(5)
연령								
30대이하 40대이상	25.9 28.8	32.8 26.3	17.8 20.4	15.2 14.0	7.1 10.2	1.25 0.35	100.0(719) 100.0(285)	12.8(5)
학력								
고졸이하 대학이상	35.7 23.7	22.5 33.8	17.3 18.9	16.9 14.2	7.2 8.2	0.40 1.19	100.0(249) 100.0(755)	25.3(5)**
지역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7.7 25.8 27.1	31.3 32.2 22.4	19.0 18.5 16.5	15.2 13.7 20.0	6.2 8.7 12.9	0.71 1.21 1.18	100.0(422) 100.0(497) 100.0(85)	17.9(10)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50-350미만 350-450미만 450-550미만 550이상	20.5 21.4 31.4 26.8 26.1	23.1 37.6 30.0 27.3 28.6	28.2 14.3 16.9 23.6 20.2	17.9 16.5 12.8 13.6 18.5	10.3 9.0 8.1 6.8 6.7	0.00 1.13 0.83 1.82 0.00	100.0(39) 100.0(266) 100.0(360) 100.0(220) 100.0(119)	47.8(20)
자녀연령								
영아 유아	29.9 26.4	15.5 32.6	20.6 18.3	20.6 14.2	10.3 7.7	3.09 0.77	100.0(97) 100.0(907)	29.5(5)**

** p < .01

2) 부모교육의 요구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45.7%, 조금 필요하다 4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6% 전혀 필요하지 않다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30대 이하 부모는 47.7%로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40대 이상은 조금 필요하다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대졸 이상은 49.4%로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졸 이하는 40.2%로 조금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3-6〉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0.9	11.6	41.8	45.7	100.0(1,004)	
성별						
묘	0.9	11.8	41.5	45.8	100.0(976)	2.8(3)
부	0.0	3.6	53.6	42.9	100.0(28)	
연령						
30대이하	0.4	10.0	41.9	47.7	100.0(719)	
40대이상	2.1	15.4	41.8	40.7	100.0(285)	13.9(3)**
학력						
고졸이하	2.4	22.9	40.2	34.5	100.0(249)	
대학이상	0.4	7.8	42.4	49.4	100.0(755)	54.6(3)***
지역유형						
대도시	0.2	10.7	40.3	48.8	100.0(422)	
중소도시	0.6	12.5	43.3	43.7	100.0(497)	28.9(6)***
농어촌	5.9	10.6	41.2	42.4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6	0.0	43.6	53.8	100.0(39)	
250-350미만	1.1	8.6	48.5	41.7	100.0(266)	
350-450미만	1.4	17.5	39.4	41.7	100.0(360)	42.1(12)***
450-550미만	0.0	12.3	37.3	50.5	100.0(220)	
550이상	0.0	2.5	42.0	55.5	100.0(119)	
자녀연령						
영아	0.0	5.2	41.2	53.6	100.0(97)	
유아	1.0	12.2	41.9	44.9	100.0(907)	6.2(3)

** $p < .01$, *** $p < .001$

지역유형별로도 모두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농어촌 지역 부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모두 매우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 250-3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0대 이상, 고졸 이하,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3-7>과 같다.

<표 V-3-7>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단위: % (명)
전체	25.0	18.3	15.1	10.4	7.3	7.1	4.9	4.2	4.1	3.3	0.2	100.0(879)	
성별													
모	24.5	18.7	15.1	10.2	7.3	7.0	4.9	4.3	4.2	3.3	0.2	100.0(852)	
부	40.7	7.4	14.8	14.8	7.4	7.4	3.7	0.0	0.0	3.7	0.0	100.0(27)	7.6(10)
연령													
30대이하	23.0	18.6	14.3	11.3	7.8	7.5	4.8	4.3	4.2	4.0	0.0	100.0(644)	
40대이상	30.6	17.4	17.4	7.7	6.0	6.0	5.1	3.8	3.8	1.3	0.9	100.0(235)	18.9(10)
학력													
고졸이하	26.3	20.4	14.0	7.0	7.5	8.1	4.8	5.9	2.7	2.7	0.5	100.0(186)	
대학이상	24.7	17.7	15.4	11.3	7.2	6.8	4.9	3.8	4.5	3.5	0.1	100.0(693)	8.2(10)
지역유형													
대도시	25.3	17.3	14.9	11.2	6.9	7.4	3.7	2.7	6.1	4.0	0.3	100.0(376)	
중소도시	25.9	19.2	14.8	9.5	7.2	6.3	5.6	6.3	2.1	3.0	0.2	100.0(432)	27.9(20)
농어촌	18.3	18.3	18.3	11.3	9.9	9.9	7.0	0.0	5.6	1.4	0.0	100.0(71)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52.6	10.5	13.2	5.3	7.9	0.0	0.0	0.0	5.3	5.3	0.0	100.0(38)	
250-350미만	19.2	17.1	12.1	13.8	9.6	8.3	5.0	8.3	2.5	3.8	0.0	100.0(240)	
350-450미만	24.0	21.6	12.7	9.9	6.2	9.6	5.1	4.1	3.1	3.1	0.7	100.0(292)	78.9(40)***
450-550미만	28.5	17.6	20.2	8.3	5.2	5.2	4.1	2.1	5.2	3.6	0.0	100.0(193)	
550이상	25.0	16.4	19.8	9.5	8.6	3.4	6.9	0.9	7.8	1.7	0.0	100.0(116)	
자녀연령													
영아	25.0	14.1	16.3	16.3	9.8	7.6	3.3	2.2	3.3	2.2	0.0	100.0(92)	
유아	25.0	18.8	15.0	9.7	7.0	7.0	5.1	4.4	4.2	3.4	0.3	100.0(787)	64.5(10)*

주: 1) 대화법, 2) 생활습관 지도, 3) 문제행동 지도, 4) 유아교육·양육방법, 5) 놀이방법, 6) 예절교육, 7) 시간활용 방법, 8) 지식교육 지도 방법(독서, 영어 등), 9) 부부의 정신건강, 10) 체험활동 정보, 11) 요리

* $p < .05$, *** $p < .001$

대화법 25.0%, 생활습관 지도 18.3%, 문제행동 지도 15.1%, 유아교육·양육방법 10.4%, 놀이방법 7.3%, 예절교육 7.1%, 시간활용 방법 4.9%, 지식교육 지도

방법 4.2%, 부부의 정신건강 4.1%, 체험활동 정보 3.3%, 요리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 부모가 대화법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가구소득별, 자녀연령별로 세분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3-8〉 기관 인성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여 의향

					단위: %(명)
	별로 참석 하고 싶지 않다	참석 원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적극 참석 하고 싶다	계	$\chi^2(df)$
전체	1.5	44.0	54.5	100.0(877)	
성별					
모	1.5	43.5	54.9	100.0(850)	
부	0.0	59.3	40.7	100.0(27)	2.9(2)
연령					
30대이하	1.4	42.8	55.8	100.0(643)	
40대이상	1.7	47.4	50.9	100.0(234)	1.7(2)
학력					
고졸이하	2.2	43.0	54.8	100.0(186)	
대졸이상	1.3	44.3	54.4	100.0(691)	0.8(2)
지역유형					
대도시	1.9	44.1	54.0	100.0(374)	
중소도시	1.2	44.7	54.2	100.0(432)	1.4(4)
농어촌	1.4	39.4	59.2	100.0(71)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2.7	48.6	48.6	100.0(37)	
250-350미만	1.7	37.2	61.1	100.0(239)	
350-450미만	1.4	41.8	56.8	100.0(292)	12.0(8)
450-550미만	1.6	51.3	47.2	100.0(193)	
550이상	0.9	50.0	49.1	100.0(116)	
자녀연령					
영아	3.3	46.7	50.0	100.0(92)	
유아	1.3	43.7	55.0	100.0(785)	2.7(2)

인성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극 참석하고 싶다 54.5%, 참석 원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44.0%,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V-3-8 참조).

3) 인성교육 측면에서 영유아 기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강조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V-3-9>와 같다.

<표 V-3-9> 유치원·어린이집이 강조했으면 하는 인성교육 내용

단위: %(명)

	체험 교육	예절 교육	기본 생활 습관 지도	누리 과정	대화	가정 과의 연계	교사 솔선 수범	프로그램 활용	봉사 활동	기타 ¹⁾	계	$\chi^2(df)$
전체	17.5	15.6	15.3	11.6	10.2	7.5	6.0	4.1	3.9	8.4	100.0(100)	
성별												
모부	17.5	15.9	15.3	11.9	9.9	7.4	6.0	3.9	3.8	8.4	100.0(97)	13.99
연령												
30대이하	19.1	15.4	15.0	10.3	10.4	7.4	5.7	4.0	4.0	8.5	100.0(71)	13.39
40대이상	13.7	16.1	16.1	14.7	9.5	7.7	6.7	4.2	3.5	7.8	100.0(25)	
학력												
고졸이하	18.9	14.5	15.3	16.5	7.2	4.4	7.6	4.4	3.2	8.0	100.0(24)	19.49
대졸이상	17.1	16.0	15.4	9.9	11.1	8.5	5.4	4.0	4.1	8.4	100.0(75)	
지역유형												
대도시	19.0	15.9	13.3	10.2	10.2	6.6	6.6	5.0	3.3	10.0	100.0(42)	
중소도시	17.5	15.1	16.5	13.3	10.7	8.0	5.4	3.0	3.8	6.6	100.0(47)	46.8(18)**
농어촌	10.6	17.6	18.8	8.2	7.1	8.2	5.9	5.9	7.1	10.7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15.4	20.5	7.7	10.3	7.7	12.8	5.1	2.6	2.6	15.4	100.0(39)	
250-350미만	17.3	14.3	16.5	9.0	11.3	7.1	4.1	4.9	4.1	11.3	100.0(26)	
350-450미만	15.6	18.6	13.9	13.3	11.1	7.2	6.7	4.7	2.5	6.4	100.0(36)	77.4(36)*
450-550미만	17.7	12.7	16.4	14.5	10.0	5.9	8.2	2.3	6.4	6.0	100.0(22)	
550이상	24.4	13.4	17.6	6.7	5.9	10.1	4.2	4.2	3.4	10.1	100.0(119)	
자녀연령												
영아	18.6	12.4	16.5	13.4	6.2	7.2	3.1	5.2	5.2	12.4	100.0(97)	84.9
유아	17.4	16.0	15.2	11.4	10.6	7.5	6.3	4.0	3.7	7.9	100.0(97)	
기관유형												
유치원	17.7	15.5	15.9	12.9	9.7	7.1	5.8	3.4	4.8	7.4	100.0(50)	103.9
어린이집	17.4	15.8	14.8	10.2	10.6	7.8	6.2	4.8	3.0	9.4	100.0(50)	

주: 1) 그림책 활용, 부모 교육, 동·식물 기르기, 없음 또는 모름, 기타

* $p < .05$, ** $p < .01$

체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7.5%,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5.6%,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15.3%, 누리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11.6%, 대화를 통

한 인성교육 10.2%,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7.5%, 교사의 솔선수범을 통한 인성교육 6.0%,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4.1%,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가구소득, 자녀연령, 기관유형에 따라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체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농어촌은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체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에 비해 250만원 미만과 350-450만원 미만 부모는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인성교육 강화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TV 방송은 38.1%, 가정통신문 25.2%, 부모 대상 강연회 22.5%, 인터넷, 앱, SNS 10.4%, 현수막 3.0%, 신문 0.4%, 라디오 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10〉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단위: %(명)

	TV 방송	가정 통신문	부모 대상 강연회	인터넷, 앱, SNS	현수막	신문	라디오	계	$\chi^2(df)$
전체	38.1	25.2	22.5	10.4	3.0	0.4	0.3	100.0(1,004)	
연령									
30대이하	37.8	24.3	22.7	11.5	2.6	0.6	0.4	100.0(719)	10.6(6)
40대이상	38.9	27.4	22.1	7.4	3.9	0.0	0.0	100.0(285)	
학력									
고졸이하	30.1	33.3	23.3	6.8	4.8	1.2	0.4	100.0(249)	27.9(6)***
대졸이상	40.8	22.5	22.3	11.5	2.4	0.1	0.3	100.0(755)	
지역유형									
대도시	39.1	24.6	19.9	12.1	3.3	0.5	0.2	100.0(422)	
중소도시	37.8	26.2	24.9	7.8	3.0	0.0	0.2	100.0(497)	25.8(12)*
농어촌	35.3	22.4	21.2	16.5	1.2	2.4	1.2	100.0(85)	

(표 V-3-10 계속)

	TV 방송	가정 통신문	부모 대상 강연회	인터넷, 앱, SNS	현수막	신문	라디오	계	$\chi^2(df)$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46.2	20.5	25.6	7.7	0.0	0.0	0.0	100.0(39)	
250-350미만	36.1	23.3	27.8	7.1	4.5	1.1	0.0	100.0(266)	
350-450미만	36.9	28.1	21.9	9.2	3.3	0.3	0.3	100.0(360)	41.6(24)*
450-550미만	35.9	25.9	19.5	15.9	1.4	0.0	0.9	100.0(220)	
550이상	47.9	21.0	16.8	11.8	2.5	0.0	0.0	100.0(119)	
자녀연령									
영아	35.1	27.8	15.5	17.5	3.1	1.0	0.0	100.0(97)	
유아	38.5	24.9	23.3	9.6	3.0	0.3	0.3	100.0(907)	9.8(6)

* $p < .05$, *** $p < .001$

연령, 학력, 지역유형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졸 이하 부모는 가정통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대졸 이상은 TV 방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유형, 가구소득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에 따른 홍보 방안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가정 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요건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25.8%, 인성교육 자료 확보 24.5%,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22.3%, 부모교육 기회 확대 13.7%,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12.5%, 노인인력 활용 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지역유형, 자녀연령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부모는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인성교육 자료 확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V-3-11 참조).

〈표 V-3-11〉 가정에서 영유아기 인성교육 시 우선과제

단위: %(명)

	부모양육 시간학보 환경조성	교육자료 접근성 학보	기관교육 활성화	부모교육 기회확대	인성교육 지원확대	노인인력 활용	계	$\chi^2(df)$
전체	25.8	24.5	22.3	13.7	12.5	1.0	100.0(1,004)	
성별								
모	25.2	24.7	22.2	14.0	12.7	1.0	100.0(976)	
부	46.4	17.9	25.0	3.6	7.1	0.0	100.0(28)	8.5(5)
연령								
30대이하	26.4	25.2	20.7	12.8	13.8	1.1	100.0(719)	
40대이상	24.2	22.8	26.3	16.1	9.5	0.7	100.0(285)	11.2(5)
학력								
고졸이하	24.5	26.1	26.1	13.7	9.2	0.4	100.0(249)	
대학이상	26.2	24.0	21.1	13.8	13.6	1.2	100.0(755)	7.1(5)
지역유형								
대도시	29.6	22.5	20.9	13.5	12.1	1.4	100.0(422)	
중소도시	24.3	24.9	23.1	13.9	12.9	0.6	100.0(497)	12.5(10)
농어촌	15.3	31.8	24.7	14.1	12.9	1.2	100.0(85)	
가구소득(단위:만원)								
250미만	30.8	20.5	23.1	7.7	15.4	2.6	100.0(39)	
250-350미만	27.8	25.6	19.2	13.9	13.5	0.0	100.0(266)	
350-450미만	23.1	25.6	24.7	14.4	10.6	1.4	100.0(360)	19.6(20)
450-550미만	25.5	24.5	23.6	12.3	13.6	0.5	100.0(220)	
550이상	28.6	20.2	19.3	16.0	13.4	2.5	100.0(119)	
자녀연령								
영아	26.8	27.8	18.6	8.2	15.5	3.1	100.0(97)	
유아	25.7	24.1	22.7	14.3	12.2	0.8	100.0(907)	9.1(5)

VI.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도덕성 발달 이론과 인성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개발 과정을 거쳐 산출한 것이다.

1.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개발의 필요성

조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 온 연구주제이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뿐만 아니라 많은 유아교육학자들도 각자의 이론에 근거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오고 있으며(김영옥 외, 2011; 안영진, 2010; 우영효, 2010),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인간의 인성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러 방향에서 영유아기 인성에 접근하고 이를 바르게 발달시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에 보다 집중하고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영유아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전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두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이론적 논의와 실질적 활용성, 정책적 방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개발·활용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고려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본 교육내용과 방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별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뼈대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정책연구소가 제안하는 이 모형을 근거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상업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 판단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창의·인성교육이 이 분야 최고의 ‘주제어’가 되고 있는 시대에 관련 업체들이 제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무수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교직원들에게 인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 모형은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비중이 컸다. 그것은 유아기에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지만 이 시기가 아동들의 성격과 행동 성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을 통해 장래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정책제안 또한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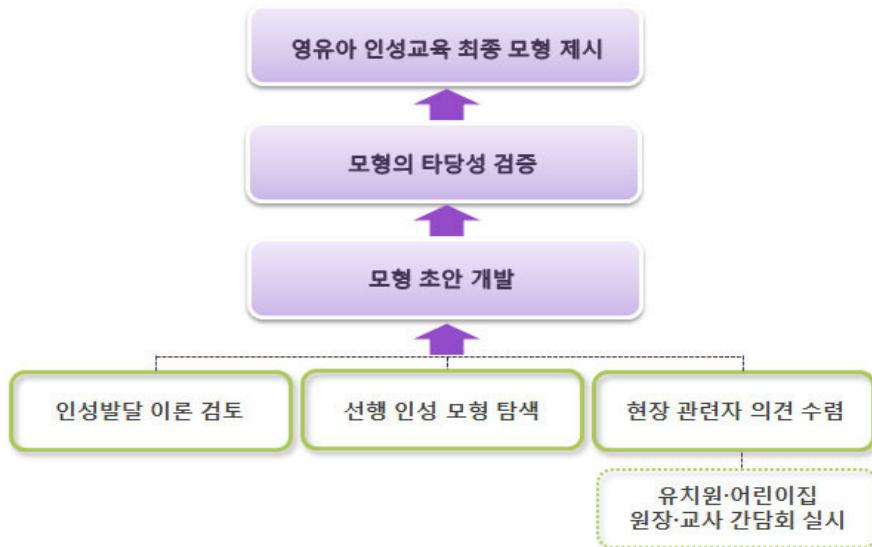
2. 모형개발 절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IV-2-1] 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영유아의 인성(≠도덕성, ≠성격) 발달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영유아기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수준과 방법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론 탐색과 더불어 영유아 또는 아동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모델)을 고찰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란 전제를 가지고 이들 모형의 일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현장 관련자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또는 원장들이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로부터 현실적 관점을 고려한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⁶⁾. 그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자가 인성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모형 검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 간담회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본 보고서의 최종본에 추가될 것임.



[그림 VI-2-1]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개발 절차

3. 영유아 발달 이론의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 고찰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성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 발달과 교육을 다루어온 몇몇 발달 또는 학습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기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형태,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은 각각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 도덕적 사고의 발달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설명 틀을 보여주고 있다.

가. 정신분석이론

알려진 바와 같이, 프로이드(Freud)의 성격발달이론은 성격의 세 가지 요인 즉,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가 연령과 함께 발달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덕성 발달의 근거를 보여준다. 가장 초기부터 태어난 본능인 원초 아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작동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후 자아가 원초

아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현실 속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해 작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자아의 선택의 바람직성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초자아이다. 즉, 본능적 욕구 충족에 자아가 제시한 해결방법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혹은 도덕적 위반 가능성은 가진 것인지를 판단하여 옳지 못한 행동일 경우 자아로 하여금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의 상실 등을 가지게 함으로써 도덕적 선택을하도록 이끄는 힘이 초자아라는 것이다(Shaffer, 1988). 다시 말해 초자아는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으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분석 이론에서 도덕성은 초자아의 발달, 양심의 발달로써 촉진될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초자아가 정신분석이론의 또 다른 주요 개념인 외디프스 콤플렉스 또는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급격히 나타나는 4~5세에 남녀 아동이 자신과 성이 다른 부모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아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초자아를 발달시킬 최적의 시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정신분석이론이 가진 주요한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즉 유아기에 죄책감 등 '양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부모나 교사는 이를 지지하고 그것이 향후 사회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이론은 영유아기가 초자아, 즉 양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임을 설명하고 있다. Hoffman(1984)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양육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의 잘못에 대해 유도적(induction) 방법을 써서 잘못된 점을 내면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사회학습이론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영유아가 성인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그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논리로, 만약 모델이 남에 대한 배려, 돋기, 나누기 등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 이를 관찰하게 되면 인지적 과정을 거쳐 모방 행동을 하게 되고 도덕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 이는 행동주의의 발전적 이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모델이 지닌 특성이 유아의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다(우영효, 2010:63). 한 실험에서, 양육자가 한 집단에서는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이타적 행동을 행한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차갑고 무표정하게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첫 번째 모델의 행동을 유아들이 더 많이 모

방한다고 하였다(Yarrow et al., 1973; 우영효, 2010 재인용). 그러므로 사회학습 이론은 영유아기의 도덕적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부모나 양육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인지발달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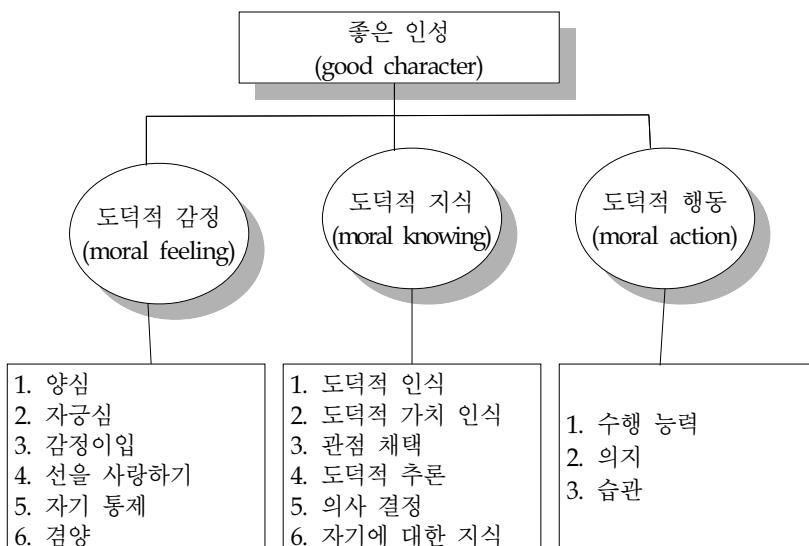
피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로 대표되는 인지발달이론에서 도덕성은 도덕적 사고, 판단, 추론(reasoning)의 발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정의’라는 기준에서, 아동들이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덕성의 인지적 발달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피아제는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의 두 단계로, 그리고 콜버그는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수준 등 3수준 6단계로써 발달을 보았다. 유아기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이고 대부분 전인습적 수준의 발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Shaffer, 1999). 피아제는 사실 4세 이전 유아들은 규칙이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실제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라 할 5~7세에 규칙, 질서, 사회정의에 대해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결과에 의한 판단, 권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규칙준수를 특징으로 제시하였다(우영효, 2010:31~38). 또한 콜버그의 이론에서도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은 처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 판단, 이익이 선이 되는 상호호혜적 도덕성의 특징을 가진다. 즉 이 수준의 유아에게 있어 도덕적인 것은 행위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질 때 구분이 가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유아기 아동에게 상위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4. 선행연구의 인성교육 모형들

인성교육의 특성을 몇 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이론들을 인성교육의 통합적 모델이라 할 때,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가. 도덕성의 구조 모형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던 많은 학자들은 Lickona(1991)의 도덕 교육론에 동의하며 인용하고 있다(김영옥·송혜린·이현미, 2007; 박경옥, 1999; 박찬옥, 2010; 우영효, 2010; 이병석, 2009). 이 경우, 학자들은 인성교육을 도덕교육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Lickona(1991)의 3원적 도덕성을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Lickona(1991)에 의하면 도덕성은 지식(moral knowing), 도덕적 감정(moral feeling), 도덕적 행동(moral action)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도덕적인 인간,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Lickona(1991)의 견해에 대해 Murphy(2002)는 도덕적 지식 습득의 측면에서 인간존중, 정직, 사랑, 용서, 절제, 용기, 정의, 배려 등의 덕목을 가르치고, 도덕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을 하며, 도덕적 행동 습득을 위해서는 봉사활동 등의 방법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박찬옥,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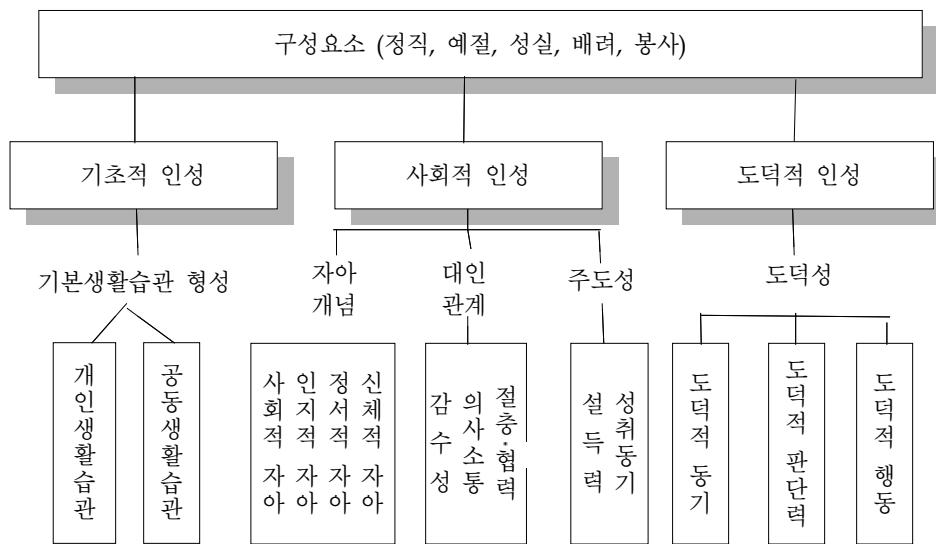


자료: 이병석(2009)과 우영효(2010)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VI-4-1] Thomas Lickona의 인성 구조 모형

나. 다면적 인성 모형

김영옥 등(2007)은 인성교육을 도덕성 이상으로 보고 기존의 도덕성, 인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많은 덕목과 요소, 방법 등을 총괄하여 보다 다면적인 인성교육 구성 요소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성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초적 인성’, 자아개념, 대인관계, 주도성이 주요 요소가 되는 ‘사회적 인성’, 그리고 도덕적 동기와 판단력, 도덕적 행동으로 구성되는 ‘도덕적 인성’ 등 세 가지 하위 인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적 인성이란 청결, 절제, 질서, 예절 등과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생활습관과 공동생활습관이 모두 포함된다. 김영옥 등(2007)에 의하면, 기본생활습관이란 일상생활의 기초와 근본이 되는 행동으로 이를 습관화하고 행동양식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제대로 갖추도록 지도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생활 및 인성 형성의 기본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사회적 인성에는 먼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자아 개념이 포함되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또 대인관계기술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으로, 유아기에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기술의 습득기회를 가짐으로써 본질적인 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인성 중 세 번째는 주도성으로, 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 개념화하는 것으로, 정서인식, 자기조절, 감정이입, 언어적 이해 및 전달, 용기, 인내, 창의성 등 사회적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인성은 Lickona(1993)의 3원 도덕성 모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도덕적 동기는 도덕적 각성, 가치의 이해, 조망수용, 도덕적 추리가 포함되는 인지적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덕적 각성은 도덕적 판단이 필요할 때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 가치의 이해는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경심, 타인에 대한 책임감, 정직 등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는 것이다(김영옥·송혜린·이현미, 2007:44~53).



자료: 김영옥·송혜린·이현미(2007). 21C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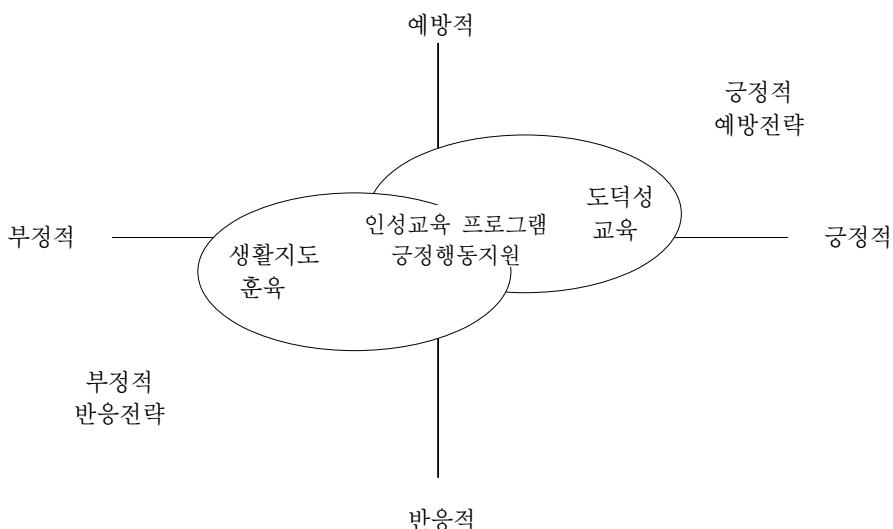
[그림 VI-4-2] 김영옥의 인성 구성 모형

다.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인성교육 모형

손경원과 주향란(2012)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의 인성교육은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인성교육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인성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의 일종이며 특히 인간관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노조절, 급우관계, 교사에 대한 불손, 따돌림, 세력 과시, 욕설이나 비속어, 공격적 성향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보았다(전계서, p. 430). 학교폭력은 개인-가정-학교-사회가 생태체계적 입장에서 원인을 밝혀야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개인특성으로서는 낮은 자아 효능감이나 도덕성, 잘못된 생활태도,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서, 낮은 사회적 기술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전계서, p. 430).

여기서 문제행동이란 자신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거나 혹은 급우, 교사,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상처를 안기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최진오, 2010). 손경원과 주향란(2012)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통적인 문제행동지도인 생활지도나 상담뿐 아니라 도덕성과 실천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인성교육의 모형을 다음 [그림 VI-4-3]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료: 손경원·주향란(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기반 궁정적 행동지원의 이론과 실제. 도덕윤리과교육. 37. p. 433

[그림 VI-4-3] 손경원의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인성교육 모형

[그림 VI-4-3]에서, 상·하 축은 ‘문제행동의 중재가 즉각적이며 반응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관점의 예방적 관점인가’라는 예방-반응의 차원이며, 좌·우 축은 ‘문제행동을 대응하는데 궁정적 중재를 사용하는가 부정적 전략을 사용하는가’라는 중재의 방법 차원으로 두 축의 조합에 의해 문제행동에 대해 궁정적 예방 전략을 사용하여 대처하는지 부정적 반응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는지 등 서로 다른 대처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도덕과 교육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궁정적 예방 전략을 활용하는 범주에 있고 생활지도나 훈육은 부정적 반응 전략의 범주에 있어 극단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행동은 예방도 필요하고

사후 반응도 필요하다. 이는 비단 초등 이상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기에도 과도한 공격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집단 내에서 무리를 짓고 따돌림을 하는 행위도 나타난다(유치원 원장 심층면담, 2013. 4).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이라는 주제 범위 속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손경원과 주향란(2012)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시각에서 통합적 인성교육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나 훈육과 더불어 도덕과 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간학문적 결과에 기반한 협력적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은 물론 개인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 방향의 지도전략을 모색하고 발생한 문제행동을 적절히 지도하여 미래의 심각한 일탈행동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도 포함해야 한다. (손경원·주향란, 2012:435~436)

라. 공감 및 정서 중심 인성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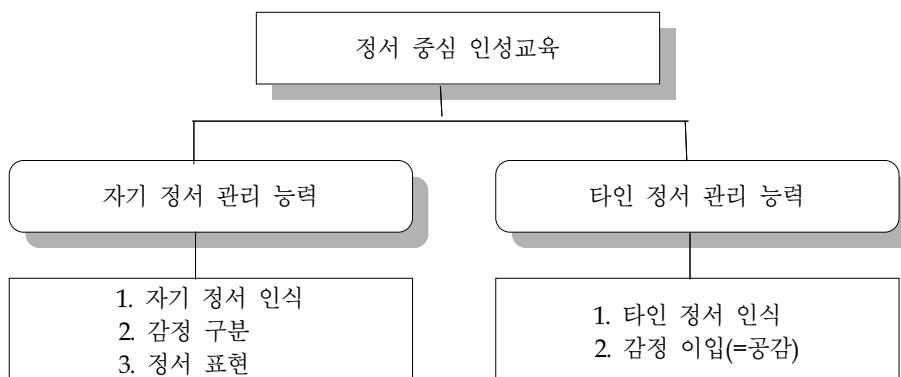
조은진(2012)은 '공감 중심 유아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동안의 인성교육 또는 도덕교육이 인지발달이론이나 가치명료화 등 인지적 측면에 치우쳐 이루 어져 왔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는 감성과 정서 측면이 인성교육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empathy)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Smith(2000)를 인용하여 '도덕감정론'을 지지하고 공감이 도덕적 행위의 핵심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공감은 상호 호혜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다(조은진, 2012:228). 조은진(2012)에 의하면, 공감할 줄 아는 아동은 인기가 있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 표출이 적고, 친사회적 행동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고, 특히 유아교육 현장의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적 공감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더 경험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줄 어들고 이타적인 반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은 아동·청소년기의 비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인관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에서도 중심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조은진, 2012:228)

공감을 주제로 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Barnett(1987)의 견해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하는 바, 그에 의하면 아동들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아동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 마음을 줄이고 타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감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은진, 2012:227). 따라서 유아의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이 겪는 감정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감정의 경험, 감정의 표현, 타인의 감정, 욕구, 흥미에 대한 반응 등에 교육의 중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감정 표현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반응이 아동의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안영진(2010)은 유사한 관점에서 유아인성교육의 원리를 보고 있는데, 인성교육을 도덕교육, 정서교육, 가치교육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중 도덕교육은 타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심과 배려, 존중 등을 배우게 되는 영역이고 정서교육은 정서 인식 능력 개발을 통해 사랑, 친절, 평화를 가지게 하는 영역이며,셋째는 가치교육으로서 자신감, 자기통제, 정직, 책임감 등을 가지게 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가치교육 영역이다. 이 견해의 세 하위 교육 영역 중 도덕교육과 정서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결국은 인성교육에 있어 정서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 VI-4-4]는 공감 및 정서 인식 중심의 인성교육을 모형화 하였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개념도이다.



[그림 VI-4-4] 정서 중심 인성교육의 개념적 모형

5. 영유아기 인성교육 관련자 간담회 주요 내용

영유아기 인성교육 우수 기관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선정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중 10곳의 원장 및 인성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인성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의 주제는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핵심과 중점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이었으며 결과를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핵심

간담회에서 제시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핵심 지도 사항으로는 더불어 살아가기, 기본생활습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있었으며, 이는 영유아에 대해 기관과 가정 간 일관성 있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자할 것 없이 교사 및 원장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부모교육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나. 인성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필요 사항

현재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이 상업화되고 질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 모형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간담회 참여자들은 모형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아동 개개인에 대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여 아동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학부모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왕따를 조장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의 경우 특히 기관-부모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부모 참여와 교사교육, 지도 자료, 지역 연계 등에서 국가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모형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양성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커리큘럼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 요구되었고, 사회 캠페인을 통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주요 요소로서는 '공감' 능력 향상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덕적 덕목에 대한 교육 또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소가 인성교육 모형의 주요 구성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모형 제안

가. 모형 개발의 기본 원칙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에 대한 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또한 제시된 다양한 인성교육의 모형의 장점을 취할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를 추출하여 영유아기에 보다 적합하면서도 포괄적인 인성교육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모형 개발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에 중점을 두었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 학교폭력을 영유아기에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성교육 모형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와 후자의 인성교육이 분명한 차이를 가진 개념인지에는 의견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을 때와 그를 고려하지 않고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란 측면에서의 일반적 인성교육을 생각할 때의 영유아기 인성교육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영유아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했다.

둘째, 영유아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다. 여러 이론에서 볼 때 영아기는 아직 도덕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지만, 유아기에는 양심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고 감정적 선호가 개입된 모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적용했을 때 영유아기에는 도덕적 판단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접근보다는 정서적이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적 훈련이 강화된 정서적 접근과 행동 변화적 접근이 인성교육에 적합하다는 시사점을 얻

을 수가 있으며, 이를 모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교사나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유용하고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신뢰성을 가지고 영유아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교사나 부모 또한 모형에 의존하여 아동의 인성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인성교육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은 기존의 다양한 인성교육 모형의 장점들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재조합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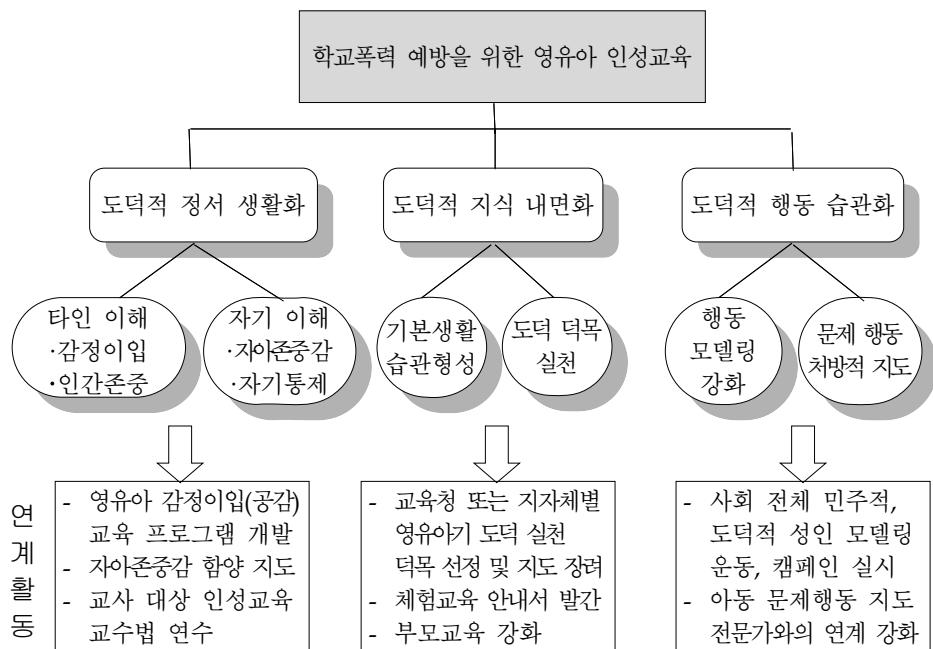
첫째, 본 모형은 인성을 Lickona의 3원적 도덕성 이론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김영옥 등(2007)이 인성을 기초적 인성, 사회적 인성, 도덕적 인성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오히려 도덕성(morality)을 상위에 두고 기본생활습관이나 자아존중감 등 김영옥의 기초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을 하위로 포함시켜 인성 개념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다. 즉, 도덕성 속에 모든 인성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이 인간관계 및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한컴사전)’를 규정지은 것이라고 할 때 본 연구가 표적으로 두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인간·사회관계의 문제를 이 인성 모형이 다루고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은 ‘타인에 대한 이해 교육’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감성과 지식과 행동을 통해 결국은 도덕적 인간이 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면 폭력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에 앞서 자기의 감정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것을 도덕적 감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성의 생활화를 인성교육의 첫째 요소로 내세웠다(“도덕적 감성 생활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낄 줄 아는’ 것이 감정이입이므로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폭력 행사가 가져오는 상대방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고 이를 비도덕적으로 느껴 행하지 않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영유아에게 필요한 도덕적 지식은 주입식으로 설명되거나 가르쳐지기보다 기본생활습관 훈련 속에서 습득되고, 정직, 질서, 배려, 약속, 협동, 양보

등 도덕적 덕목의 실천은 체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내면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도덕적 지식 내면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덕적 지식에 대한 배움의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생활 속에서 체득된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행동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도덕적 행동 습관화”). 이는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사회 전체 성인 영유아에 대해 올바른 모델로 기능할 때 이를 모방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사회관계 속의 문제행동들, 즉 폭력성, 자기통제력의 부족, 충동성 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처방적인 지도를 인성교육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관련 전문 기관이나 인력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5-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모형

VII.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영유아기 인성교육 현황,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된 인성교육 모형, 우수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깊고 철학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와 부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 인정하고 있고 이후 학교폭력 예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영유아기 인성교육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다.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고 반복적인 훈련 과정 속에서 질서, 협력, 근면, 자기통제, 배려 등 여러 필요한 덕목들이 습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를 두고 본다면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곧 인성교육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아동의 진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성교육을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본 보고서 p. 57)에서 기본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의 향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교사의 경우 13%, 부모의 경우 12%로 나타났다. 이 항목보다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행동 함양’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은 몸에 습관처럼 배는 ‘예절, 매너(manner), 에티켓’과 같은 행동적 문제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그 사람의 내적인 능력, 민주사회 인간으로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인성이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단순히 습관화나 행동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서적인 감정이입뿐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의 이해와 해석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 그와 관련한 교육 주체자들의 인식에 대

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단초를 발견하고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제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의 인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사전 전문가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인 따돌림이나 공격성, 언어폭력 등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아동 간 따돌림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교사가 50% 내외였고 욕설이나 비속어 등 바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도 교사의 37%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따돌림은 90% 이상이 여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98% 이상이 남아여서 성별적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주: 본 보고서 p. 26 표 참조) 현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영유아기에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10% 이내에 불과하지만 이를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교사와 부모가 영유아기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한 점만 보더라도(교사 65.4%, 부모 57.1%) 어린시기의 잘못된 행동이 향후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적 행동을 가소성이 큰 영유아기 내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을 강조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유아기 인성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 개개인의 인성 발달과 학교폭력 예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90% 정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많은 성인들은 태고난 부모의 유전자와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등에 따라 아동의 인성이 좌우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응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교사는 5.6% 만이 가정이 아니라 기관이 인성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 데 비해 부모는 그 배가 넘는 12.7%가 가정이 아니라 기관이 주체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교사가 가진 책임감에 비해 부모는 교사에게 더 큰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3~5세 유아 전체 인구 중 82%, 2세의 72%(서문희 외, 2012:27)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에 다니는 경우 하루 중 영유아 자녀와 놀이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내는 시간은 평일 기준 2시간 34분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195)에 따르면,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은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은 7시간 12분을 하루 동안 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즉, 평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가정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성은 기질이나 성격과도 완전히 분리하여 발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즉 아동의 부모가 가진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아동이 자라나는 가정의 환경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위해, 이미 성인인 부모와 그들이 조성한 자녀의 양육환경, 양육태도, 가정의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수준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은 전체 영유아의 80% 이상이 교육적 경험을 의존하고 있고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기관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교사와 원장은 그 책임성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거는 기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인성은 가정의 책임이고 아무리 기관에서 잘 지도하여도 부모와 가정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 일대일 관계인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와는 다르게 일대다로 만나는 기관의 교사-영유아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오히려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또래와 교사 등 집단 속에서 더욱 키워질 수 있는 능력임을 생각한다면 인성교육에서 기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인성교육 덕목을 보면, ‘질서’ 교육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다음은 협력, 나눔, 배려 등이고 마지막이 존중과 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효는 가장 낮은 실행 정도를 보인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인 인성교육에서 가정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영유아의 인성 발달에서 가정의 역할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태도

교육인 ‘효’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는 부모와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지만 조부모와의 관계, 사회의 성인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태도의 기본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핵가족 사회에서 부모-자녀의 관계, 민주사회에서 교사-학생과의 관계를 유연하고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영유아기부터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가.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와 부모 대상 교육 강화

1) 원장 및 교사 재교육 기회 확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원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장이 가진 교육철학과 전반적 운영 계획이 그 기관이나 시설의 인성교육이 가진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게 됨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 아동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이므로 교사가 행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교육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며 특히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장의 철학과 기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 하여금 교사를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자문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인성 교육의 재교육 기회를 넓혀 가는 것이 요구된다.

원장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법과 효과,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민감성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식 등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법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조사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 교사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인성교육 관련 세미나 등 참여 비율이 낮으므로 이러한 지역 교사를 위한 기회를 특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성의 기초가 다져지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이 되는 단계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을 원장과 교사가 인식하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2) 부모교육 기회 확대 및 다양화

인성교육은 기관과 가정의 공동 노력 없이는 아동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인성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기관에서도 부모의 참여, 가정의 연계를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서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의 의의,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의 요구를 수용하고 영유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긍정적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참여에 대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부모교육이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예를 들면 부모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 우선권을 준다든지, 영유아 물품 구매 할인권을 제공한다든지, 영유아 대상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들이 높은 요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알고 싶어 하고 아동들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여 대화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편에서, 이를 참조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모에게 양육에서의 올바른 가치 인식을 위한 인문, 교양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하고 지역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지속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 활용되어 전체 국민의 의식과 사고 수준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주요 국가 미래지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편화와 다양성 추구라는 면에서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방법적인 측면에도 TV나 라디오 등 미디어매체를

이용한 접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홍보·안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

1) 아동 수 대비 실내 면적 기준의 강화와 바깥놀이 시간 확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우수 기관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영유아기에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설의 법적 공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강화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간 기준과 수용 아동 수에 대한 재고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관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공간 면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워진 지 오래되어 과거의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시설 공간 및 수용 아동 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누리과정에 정해진 바깥놀이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바깥놀이, 야외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영유아 인성교육 성공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근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자원을 이용하여 인적 교류와 문화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노인정 방문을 통해 웃어른과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하면서 형제관계를 익히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체험을 하는 곳도 있었다. 유아들이 사회 속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관계를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은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므로 지역사회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공동 활동 방법 등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지역사회 연계

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3) 문제행동 아동 지도를 위한 전문기관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극심한 공격성을 보이거나 과다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원인과 처방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영유아가 그대로 성장한다면 폭력에 익숙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다루기 힘든 과도한 공격성, 욕하는 아동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유치원 등 기관이 직접 아동행동발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는 어렵고 부모 설득을 통해 부모가 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전문 기관을 찾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기관 개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바, 개인을 ‘문제 아’로 분류하고 중재하기보다 기관(시설) 전체에 대한 자문의 입장에서 전체 아동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자연스런 과정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화된 영유아 정신 및 언어생활 건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 전문가 활용 비용 등의 부분에서 정부의 일정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기관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10% 포인트 낮은 전문기관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먼저 농어촌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역할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인식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자료의 개발과 유·보간 공유 및 확산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성교육을 위한 참고자료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간한 자료집 등을 활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할이든 보건복지부 관할이든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유/보 기관유형이나 지역과도 상관없이 개발된 자료의 보편적 보급이 필요하고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각 시·도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사업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대상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보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현 시점에서 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유형의 기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성교육 자료의 개발과 활용, 확산이 교육과 보육 두 영역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인성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교육자료에 대한 자체 개발이 여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의 연계 속에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확산에 대한 유·보간 연계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영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내실화

1) 인성 집중 교육을 위한 자기통제·타인 이해 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인성교육의 모형과 실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가 인성교육이 단순한 생활습관 형성 단계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정서적·인지적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인성교육에 접근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연계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영유아의 대부분(저자 주. 5세의 경우 90% 이상)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관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원장이 일상 생활 속 인성교육 또는 연령별 누리과정의 충실향한 지도를 통해서만 인성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성교육을 집중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의도적·심층적으로 인성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는 독립적인 인성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모형의 다차원적 활용

영유아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성

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유아 인성교육 모형은 인성을 형성하는 도덕적 정서와 지식, 행동을 포괄하는 모형으로서 기관 내 영유아에 대한 개인 수준의 지도, 교육청 및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 내 자원의 활용과 연계,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 방향과 홍보 등 다차원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을 활용한 연계 활동을 보면, 도덕적 정서를 키우는 것, 즉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에게 감정이입(공감)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한 인성교육 교수법 교사연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덕적 지식을 아동들이 내면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도덕 실천을 위한 덕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안내서를 발간하며 중점적인 지도를 통해 도덕 덕목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한 따라 주어야 한다. 한편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 성인의 도덕적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운동이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처방적 개입과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라.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강화

1) 인성교육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연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사업’은 선정된 기관에 연간 일정 예산 지원을 하고 우수한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현재 2차년도를 맞고 있는 정부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280여 개의 선정 기관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들을 우수 인성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영유아 부모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특히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오히려 인성교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즉, 교육과 보육의 주체가 되는 교직원들이 인성교육이라는 활동 계획 프레임을 갖고 영유아를 대하게 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 정부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 효과성을 밝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 내 부모 역할 시간 확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식사하거나 자녀와 놀이하며 보내는 기회와 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놀이시간도 휴일 기준 1.18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일부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의 날’ 등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보장 장치를 설치하여 실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홍보 강화

학교폭력 예방과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전체가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참여와 감시와 교육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문제임을 파악한다면 국가 차원의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노의(2011). 숲유치원에서의 놀이와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5(3), 1-23.
- 곽재석·구자억·김현진·김창환·정광희·최상덕(2005). 주요국 초·중등 교육개혁 사례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RR2005-21).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34-35.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2.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 이집 심사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 및 연수자료집.
- 교육부(2013). 인성교육 우수기관 2차년도 재심사 계획. 내부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13. 7. 23.).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확정 보도자료.
- 김규수(2011). 미래사회의 주역, 어린이 그리고 인성교육.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2), 45-57.
- 김미라(2011). 「소학(小學)」을 통해 본 유아 인성교육 학습모형 도출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8(4), 211-234.
- 김숙자·김현정·박지수·박현진·장갑희(2011). 유치원 지도서에 수록된 동화에 나타난 유아 인성교육 관련 내용 분석.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4.0 시대를 열다, 미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56.
- 김영옥·송혜린·이현미(2007). (21C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음세대.
- 김영옥·장명림·유희정(2009).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 유아 교육연구*, 14(5), 297-324.

- 김은설 외(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은(2007).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비교. 200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지방화 시대의 보육과 표준보육과정의 안내, 83-106.
- 남궁달화(2001). 도덕교육의 개념과 과제. 도덕교육학연구, 2, 27-40.
- 류청산·진홍섭(2003).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인성덕목의 분류와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문용린(1995). 미국의 인성교육. 철학과 현실, 27, 97-103.
- 박경아(2003).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경옥(1999).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균섭(2011). 유교의 인성교육론-공자의 경우와 성리학의 관점. 교육사상연구, 25(3), 59-77.
- 박찬옥(2010). 유아교육에서 인성 개발 방안.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11), 581-588.
- 박행모(2003). 한국과 미국의 생활문화 비교를 통한 인성교육 내용 탐색.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1), 153-177.
- 박현진·김숙자(2012). 유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한국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적 접근에서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아동교육, 21(2), 5-26.
-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 서은주·양정은(2009). 음악활동과 다례활동의 통합적 접근이 유아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11), 445-456.
- 손경원·주향란(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기반 궁정적 행동지원의 이론과 실제. 도덕윤리과교육, 37, 427-465.
- 심옹철(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안범희(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연구. 인문과학연구, 13, 133-169.

- 염철현(2012).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제4호*.
- 우영효(2005). 동화를 통한 유아 인성교육방법 연구. *아동교육*, 14, 37-48.
- 우영효(2010). 영유아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윤종혁(2007). 최근 일본의 학제 개혁 동향과 전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1(2), 151-164.
- 이계학(1991). *인격교육론*. 성원사.
- 이병석(2009). 인지·정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49-270.
- 이승미·장영은·박정윤(2011). 가정-학교 연계를 통한 유아 및 초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부모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9(4), 35-47.
- 장명립(2012).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 인성교육의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립·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은(2010). 유아·초등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정옥분(2008). *사회정서발달*. 학지사.
- 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2012).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사용 매뉴얼 개발 연구. *법무부*.
- 정희영·방승미·유희진(2012). 유아 인성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32(5), 277-296.
- 조은진(2012). 공감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 219-233.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 최민수(2011). 영유아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2), 13-41.
- 최민수(2011).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인성교육 방안 모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4), 143-168.

- 최진오(2010).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행동 중재방법 활용실태 조사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허경철·조난심·김양분·유근상·이성호·한국교육개발원(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정·강경희(2011). 유아 품성 지도: 인성교육의 기초. 창지사.
- Alvarez, M. & Anderson-Ketchmark, C. (2009). Review of an Evidence-based school social work intervention: Second Step. *Children & Schools*, 31(4), 247-250.
- Arthur, J. (2005). The re-emerge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british education polic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 239-254.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s in children.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kob, J. R. (2000). Evaluation of the Second Step curriculum for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from diverse parent households. NY: Hofstra University.
- Karr-Morse, R. & Wiley M. S. (1997). *Tracing the Roots of Violence*. New York, NY: Atlantic Monthly Press.
- Licona, T. (1991). Education for Character, NY: Bantam Books. [박장호·추병완 역(1998, 2002). 인격교육론.]
- Smith, A. (2000).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Shaffer, D. R. (1999).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Boston, MA: Thomson Learning.
- Hoffman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isty Press.

<참고 웹사이트>

세아유치원 홈페이지 <http://seahu0580.blog.me>

연산유치원 홈페이지 <http://yonsan.kg.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jikim.net>

CASEL 홈페이지 <http://www.casel.org>

EDC(Education Development Center) 홈페이지 <http://www.promoteprevent.org>

KIVA 홈페이지 <http://www.kivaprogram.net>

NSBA(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nsba.org>

University of Nebraska Omaha 홈페이지 <http://www.unomaha.edu>

<기타 참고자료>

삼도어린이집(2013). 삼도어린이집 운영안내.

상록수어린이집(2013). 상록수어린이집 운영안내.

한겨례신문. 2007. 1. 13.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2013년 1월 20일 방송.

Abstract

Strategies for Character Education in Early Years to prevent School Bullying

Eunseol Kim Eun-Young Choi A-Ra Cho

This study aimed to extract the weakness of character education(CE) in early childhood services such as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nd suggest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s in the context of reducing bullying in school year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to manifest the concept of CE and its necessity, to research policies to activate C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develop the conceptual model of C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E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nd in families, and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improve CE in early childhood in relation to reducing school bully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re reviewing literacies for the conceptual work of the model-development, searching vis internet and phone-calling to collect current data on policy-items of CE in all cities and provinces, surveying on current status of CE in early childhood through 1004 directors of the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nd parents, doing case-studies of superior program in early childhood institutes, and meeting professors, directors, teachers and governmental officials.

Based on all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ies, surveys, and other methods, we suggested the strategies for the conclusion. The following ideas are some of the major strategies: a) to provide the directors and teachers with more opportunities of education on teaching CE, b)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professional programs dealing with children who show severe violence and other social problems, c) to develop materials for CE in early childhood and let the care and education sectors share them actively.

부 록

부록 1.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부모용

부록 2.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교사용

부록 1.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부모용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List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 조사지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두 분 다 여의치 않을 경우 조부 또는 조모, 혹은 친척 등 주양육자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도우미분의 응답은 제외합니다.

귀하게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문의사항]

육아정책연구소 조아라 연구원(choara@kicce.re.kr, 02-398-776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응답하시는 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성별	<input type="checkbox"/> 1) 여 <input type="checkbox"/> 2) 남			
연령	<input type="checkbox"/> 1) 20대 <input type="checkbox"/> 2) 30대 <input type="checkbox"/> 3) 40대 <input type="checkbox"/> 4) 50대 이상			
학력	<input type="checkbox"/> 1)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2~3년제 대학 졸업 <input type="checkbox"/> 4) 4년제 대학 졸업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재학 이상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부산 <input type="checkbox"/> 3) 대구 <input type="checkbox"/> 4) 인천 <input type="checkbox"/> 5) 광주 <input type="checkbox"/> 6) 대전 <input type="checkbox"/> 7) 울산 <input type="checkbox"/> 8) 경기 <input type="checkbox"/> 9) 강원 <input type="checkbox"/> 10) 충북 <input type="checkbox"/> 11) 충남 <input type="checkbox"/> 12) 전북 <input type="checkbox"/> 13) 전남 <input type="checkbox"/> 14) 경북 <input type="checkbox"/> 15) 경남			
지역유형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농어촌			
가구소득				
※부부합산근로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 등 가구내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		월 평균 _____만원		
취업상태	부	<input type="checkbox"/> 1)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2)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3)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4) 무직		
	모	<input type="checkbox"/> 1)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2)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3)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4) 무직		
직업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	<input type="checkbox"/> 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2)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3)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 서비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6) 농립어업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8) 장치/기계조작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9) 기타()		
	모	<input type="checkbox"/> 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2)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3)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 서비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판매종사자 <input type="checkbox"/> 6) 농립어업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8) 장치/기계조작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9) 기타()		
가족유형	<input type="checkbox"/> 1) 부부+자녀 <input type="checkbox"/> 2) 조부모+부부+자녀 <input type="checkbox"/> 3) 부부+자녀+친척 <input type="checkbox"/> 4) 조부모+부모+자녀+친척 <input type="checkbox"/> 5) 부부+자녀+비친척 <input type="checkbox"/> 6) 기타()			
총 자녀 수	_____ 명			
※ 영유아기(만0~5세)에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같은 기관에 2명의 자녀가 다닐 경우), 연령이 높은 아이를 대상으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자녀 연령	<input type="checkbox"/> 1) 만 1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2) 만 1세 <input type="checkbox"/> 3) 만 2세 <input type="checkbox"/> 4) 만 3세 <input type="checkbox"/> 5) 만 4세 <input type="checkbox"/> 6) 만 5세 이상			
자녀의 기관 이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2) 사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3) 국공립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4) 법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5) 법인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6) 민간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7) 직장 어린이집			
기관명				

I.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영유아기에 있어 인성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성교육의 의미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본생활습관(인사하기, 위생, 규칙적 생활 등) 형성
 - 2) 또래 간 배려·양보하는 행동습관을 기름
 - 3)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기름
 - 4) 부모와 교사의 말을 잘 따름
 - 5)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름
 - 6) 규칙을 잘 따르고 질서를 지킴
 - 7) 윤리·도덕적 덕목(정직, 책임감, 봉사, 질서, 평등, 헌신, 정의 등)을 가르침.
 - 8) 전통적 덕목(경로효친, 예절, 애족, 전통존중 등)을 가르침.
 - 9) 기타: _____

2. 언어, 수리, 창의성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의 영역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은 영유아기 교육 영역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2-1번으로)
 - 2)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2-1번으로)
 - 3) 보통이다 (2-1번과 2-2번 모두 옹답)
 - 4)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2번으로)
 - 5)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2번으로)

- 2-1.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특기교육 등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 2) 인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교육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3) 내 아이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4) 인성교육은 가정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 5) 기타: _____

- 2-2. 영유아기 인성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로 인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 2)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 3)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4)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 5) 기타: _____

3.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로 볼 때, 다음 중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장 그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 1) 가정
 - 2) 기관(유치원/어린이집)
 - 3) 학교(초중등)
 - 4) 사회, 국가

4.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타인에 대한 이해의 향상
 3) 도덕적 인품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 4) 전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5) 따돌림 등 학교 및 사회 폭력의 예방 6)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서 성장
 7) 학교적응력의 향상 8) 또래 관계 및 사회성의 향상
 9) 기타: _____

5. 영유아가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방법을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도덕과 예절에 대해 자녀와 매일 대화함
 - 2) 옛날 고전이나 그림책 등으로 지도함
 - 3) 식사, 의복, 위생 등 생활 습관을 잘 들이도록 지도함
 - 4) 특별히 말로 설명하지 않고 부모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
 - 5)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잡도록 엄격히 지도함
 - 6)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것을 지도함
 - 7)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장 잘 교육할 것이라고 생각함
 - 8)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하도록 함
 - 9) 동·식물을 길러보도록 함
 - 10) 기타: _____

6.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에서는 유아기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실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유아기 인성교육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함
 2) 관련이 별로 없음
 3) 관련이 조금 있음
 4) 매우 관련이 큼

7. (6번 질문의 응답 선택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예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성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자기 통제
 2) 타인 존중
 3) 타인 감정 이해(공감)
 4) 양보
 5) 협동
 6) 배려
 7) 생명 존중
 8) 공동체 의식
 9) 준법의식
 10) 기타: _____

II.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현황

1. 귀하는 자녀 양육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을 가장 강조하십니까? 정답은 없으니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건강, 운동
 - 2) 인성, 성격
 - 3) 경제의식
 - 4) 지적 성취
 - 5) 창의성
 - 6) 사회성, 대인관계
 - 7) 예술적 자질
2. 일주일 중 온 식구가 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몇 회 정도입니까? 평일(월~금)과 휴일(토, 일)을 구분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평일: 총 식사 15끼 중 _____회 정도
 - 2) 휴일: 총 식사 6끼 중 _____회 정도
3. 자녀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놀이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이 때 놀이란, 부모와 함께 하는 장난감 놀이, 운동, 장난, 함께 외출하기, 놀이터 가기, 함께 식사준비하기, 데려다주기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 식사하기, 아동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TV 같이 보기 등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일 (월~금)	<input type="checkbox"/> 1) 1시간 미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input type="checkbox"/> 1) 1시간 미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input type="checkbox"/>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5) 4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5) 4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6) 비해당		
휴일 (주말, 공휴일)	<input type="checkbox"/> 1) 1시간 미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input type="checkbox"/> 1) 1시간 미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input type="checkbox"/>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5) 4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5) 4시간 이상		
	<input type="checkbox"/> 6)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6) 비해당		

4. 자녀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자주 해주시는 편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같이 응답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1) 거의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 거의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별로 자주 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2) 별로 자주 하지 않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3)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4) 자주 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4) 자주 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자주 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자주 하는 편임

☞ 문3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보기문항 6) '비해당'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5. 자녀가 예절이나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따끔하게 혼냄
- 2) 그 자리에서 일일이 지적하고 고치도록 부드럽게 이야기 함
- 3) 일단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따끔하게 혼냄
- 4) 일단 상황을 벗어난 후 그 일을 지적하며 나중에 부드럽게 이야기 함
- 5) 조금 자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한 지적하지 않고 지나감
- 6) 별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아 지적할 일이 없음

6. 귀하께서 자녀의 인성교육에서 특히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청결	②근면	③질서	④정리정돈	⑤식습관	⑥자기통제	⑦인사 잘함
⑧인내	⑨타인존중	⑩협동	⑪양보	⑫자기존중	⑬배려	⑭생명존중
⑯성실	⑯정직	⑰용기	⑱공감	⑲대인관계	⑳겸손	㉑공중도덕준수
㉒약속준수	㉓책임감	㉔공동체의식	㉕민주시민의식	㉖준법	㉗봉사	㉘정의감
㉙공익	㉚질서준수	㉛헌신	㉜평등의식	㉝타문화존중	㉞경로효친	㉟전통존중
㉞예절	㉟애국					

7. 귀택에서는 자녀의 인성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2)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보통임
- 4)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8. 자녀의 인성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여섯 가지 방법의 실천하는 정도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인성 교육 방법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보통	가끔 그러함	자주 그러함
1)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을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동규칙, 공중도덕 준수 등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 또는 책읽기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바람직한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역사나 문학, 종교 속의 위인 이야기를 해 주고 존경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인성교육의 방법을 모름 2) 함께할 시간이 없음
 3) 배우자가 협조적이지 않음 4) 인성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풍토임
 5) 기타: _____ 6) 어려움 없음
10.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별도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Part III로)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Part III로)
 3) 조금 필요하다 (10-1번으로) 4) 매우 필요하다 (10-1번으로)
- 10-1. 자녀의 인성지도를 위해 어떤 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문제 행동지도 2) 예절교육
 3) 생활습관지도 4) 대화법
 5) 놀이방법 6) 요리
 7) 시간 활용 방법 8) 체험활동 정보
 9) 지식교육지도 방법(독서, 영어 등) 10) 부부의 정신건강
 11) 유아교육·양육방법 12) 기타: _____
- 10-2.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인성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다
 2) 참석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3) 적극 참석하고 싶다
 4) 기타: _____

III.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1.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4)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2.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해당되더라도, 그 중 가장 귀하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교육 활동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누리과정 등 교육·보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2)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3) 그림책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4)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5)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6)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7) 교사의 솔선수범 8) 동·식물 기르기를 통한 인성교육
 9)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10)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1)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2) 부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3) 기타: _____ 14) 없음 또는 모름

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 특히 강조해 주었으면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누리과정 등 교육·보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2)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3) 그림책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4)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5)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6)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7) 교사의 솔선수범 8) 동·식물 기르기를 통한 인성교육
 9)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10)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1)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2) 부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3) 기타: _____ 14) 없음 또는 모름

IV.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1. 가정에서의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관련 부모교육 기회가 많아져야 함
 2)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3)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가정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
 4)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5) 체험, 봉사 등 인성교육 활동을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
 6) 노인 인력을 유아교육·보육 활동에 많이 활용함
 7) 기타: _____
2.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1) 거리의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
 2) 부모를 위한 강연회 개최를 통한 홍보
 3) 유치원/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홍보
 4) TV 방송을 활용한 홍보
 5)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홍보
 6) 신문을 이용한 홍보
 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앱, 또는 SNS를 활용한 홍보
 8) 기타: 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조사지-교사용

ID			
List ID			

영유아 인성교육 실태 조사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은 유아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중 해당 유치원/어린이집 재임 경력이 가장 오래된 선생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원장 또는 원감께서 응답하는 경우, 설문 후 반부의 “가능하면 교사 응답” 부분만은 유아반 교사가 응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조아라 연구원(choara@kicce.re.kr, 02-398-776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응답자의 일반 배경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여 <input type="checkbox"/> 2) 남	응답자 연령	만 세
기관명			
근무기관 및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공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2) 사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3) 국공립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4) 법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5) 법인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6) 민간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7) 직장 어린이집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부산 <input type="checkbox"/> 3) 대구 <input type="checkbox"/> 4) 인천 <input type="checkbox"/> 5) 광주 <input type="checkbox"/> 6) 대전 <input type="checkbox"/> 7) 울산 <input type="checkbox"/> 8) 경기 <input type="checkbox"/> 9) 강원 <input type="checkbox"/> 10) 충북 <input type="checkbox"/> 11) 충남 <input type="checkbox"/> 12) 전북 <input type="checkbox"/> 13) 전남 <input type="checkbox"/> 14) 경북 <input type="checkbox"/> 15) 경남		
직위	<input type="checkbox"/> 1) 교사(담당 아동연령:__세) <input type="checkbox"/> 2) 원장 <input type="checkbox"/> 3) 원감(담당 아동연령:__세)	지역유형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광역시 이상)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농어촌(읍·면지역)
아동 정원	_____명	연령별 아동수	만 5세 이상 _____명 만 2세 _____명 만 4세 _____명 만 1세 _____명 만 3세 _____명 만 0세 _____명
아동 혼원	_____명		
교사 경력 (원장 포함)	년 개월	현 기관 재직기간	년 개월

I. 영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1. 선생님께서는 영유아기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성교육의 의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본생활습관(인사하기, 위생, 규칙적 생활 등) 형성
 - 2) 또래 간 배려·양보하는 행동습관을 기름
 - 3)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기름
 - 4) 부모와 교사의 말을 잘 따름
 - 5)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름
 - 6) 규칙을 잘 따르고 질서를 지킴
 - 7) 윤리·도덕적 덕목(정직, 책임감, 봉사, 질서, 평등, 혼신, 정의 등)을 가르침
 - 8) 전통적 덕목(경로효친, 예절, 애국, 애족, 전통존중 등)을 가르침
 - 9) 기타: _____

2. 선생님께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다른 교육과 비교해 볼 때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1) 거의 중요하지 않다 (2-1번으로)
 - 2)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2-1번으로)
 - 3) 보통이다 (2-1번 응답 후 2-2번으로)
 - 4) 비교적 중요한 편이다 (2-2번으로)
 - 5) 가장 중요하다 (2-2번으로)

2-1. 기관에서 인성교육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특기, 지적 성취 등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 2) 인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교육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3) 영유아기 아동은 인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4)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 5) 기타: _____

2-2. 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1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로 인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 2)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 3)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이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4)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 5) 기타: _____

3.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 <input type="checkbox"/> 2) 타인에 대한 이해의 향상 |
| <input type="checkbox"/> 3) 도덕적 인품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 | <input type="checkbox"/> 4)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
| <input type="checkbox"/> 5) 따돌림 등 학교 및 사회 폭력의 예방 | <input type="checkbox"/> 6)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서 성장 |
| <input type="checkbox"/> 7) 학교적응력의 향상 | <input type="checkbox"/> 8) 또래 관계 및 사회성의 향상 |
| <input type="checkbox"/> 9) 기타: _____ | |

4. 영유아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로 볼 때, 다음 중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가장 그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 1) 가정
- 2) 기관(유치원/어린이집)
- 3) 학교(초·중등)
- 4) 사회, 국가

5. 영유아기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방법을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도덕과 예절에 대해 매일 설명하고 가르침
- 2) 옛날 고전이나 그림책 등으로 인성을 지도함
- 3) 식사, 의복, 위생 등 생활 습관을 잘 들이도록 지도함
- 4) 말로 설명하지 않고 교사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
- 5) 아동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잡도록 엄격히 지도함
- 6)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것을 지도함
- 7)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지도를 하도록 지원함
- 8) 창의적 체험활동을 많이 하도록 함
- 9) 동·식물을 길러보도록 함
- 10) 기타: _____

6.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에서는 유아기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실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면에서 유아기 인성교육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1)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함
 2) 관련이 별로 없음
 3) 관련이 조금 있음
 4) 매우 관련이 큼
7. **(앞의 6번 응답 의견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예방'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 영유아기의 인성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자기 통제
 2) 타인 존중
 3) 타인 감정 이해(공감)
 4) 양보
 5) 협동
 6) 배려
 7) 생명 존중
 8) 공동체 의식
 9) 준법의식
 10) 기타: _____

II. 기관에서의 영유아기 인성 교육 현황

1. 선생님께서는 귀 기관 내에서 아이들간 따돌림을 하거나 또는 무리지어 다른 아이를 배척하는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본 적 없음 (2번으로) 2) 가끔 볼 수 있음 (1-1번으로)
 3) 흔히 볼 수 있음 (1-1번으로)
- 1-1. 아이들간 따돌림을 하거나 또는 무리지어 다른 아이를 배척하는 성향을 지닌 아이는 한 반에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 1) 한 반에서 10% 이내 2) 한 반에서 20% 정도
 3) 한 반에서 30% 정도 4) 한 반에서 40% 이상
2. 선생님께서는 영유아들 중 다른 아이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자주 싸움을 일으키는 아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음 3) 그러함 4) 매우 그러함
- 2-1. 선생님께서는 영유아들 중 다른 아이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등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동에 있어 남녀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음 (3번으로) 2) 그렇지 않음 (3번으로)
 3) 그러함 (2-2번으로) 4) 매우 그러함 (2-2번으로)

- 2-2. 다른 아이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등 괴롭히는 행동은 남녀 중 어떤 성별에서 빈도가 더 높습니까? 각각의 행동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행동 빈도가 더 높은 성별			
1) 공격적 행동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2) 따돌림(그辱짓기)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3. 위의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 적절히 지도하여 그러한 경향을 줄이도록 하는 데 선생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그렇지 못함(3-1로)
 2) 별로 그렇지 못한 편임(3-1로)
 3) 조금 그런 편임 (4번으로)
 4) 매우 그러함 (4번으로)

▣ 문1의 1) ‘본적이 없음’과 문2의 1) ‘전혀 그렇지 않음’이라고 모두 응답한 경우, 문4로 이동

- 3-1. 선생님께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구체적 지도 방법을 알지 못함
 2) 개인별 지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음
 4) 문제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함
 5) 기타: _____

4. 선생님의 반에는 영유아들 중 기질적으로 소심하거나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 1) 있음(전체 _____ 명 중 _____ 명) (4-1번으로)
 2) 없음 (5번으로)

- 4-1. 위의 4번에 제시된 아이들의 또래 관계를 그다지 활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질상 차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극복하기를 기다린다
 2) 또래관계에 개입하여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3) 아이의 부모와 상담하여 성향을 바꾸도록 안내한다
 4) 비슷한 성향의 아이와 연결해주려 노력한다
 5) 선생님이 놀이친구가 되어주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6) 기타: _____

5. 귀 기관에서 영유아의 인성교육 시 특히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각각 2개의 턱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영아는 만2세를 기준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영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유아의 경우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 영아의 경우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청결	②근면	③질서	④정리정돈	⑤식습관	⑥자기통제	⑦인사 잘함
⑧인내	⑨타인존중	⑩협동	⑪양보	⑫자기존중	⑬배려	⑭생명존중
⑯성실	⑯정직	⑰용기	⑲공감	⑲대인관계	⑳겸손	㉑공중도덕준수
㉒약속준수	㉓책임감	㉔공동체의식	㉕민주시민의식	㉖준법	㉗봉사	㉘정의감
㉙공익	㉚질서준수	㉛현신	㉜평등의식	㉝타문화존중	㉞경로효친	㉟전통존중
㉞예절	㉟애국					

6. 귀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인성교육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2)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보통임
- 4)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7. 귀 기관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누리과정에 충실히으로써 인성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둠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부가 발간한 인성교육 자료집을 활용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민간업체가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함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함	①	②	③	④	⑤
5)	원장이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①	②	③	④	⑤
6)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갖추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7)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8)	교사들은 영유아 인성지도를 위한 교육 훈련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9)	인성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8. 귀 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해당되더라도,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활동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그림책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 <input type="checkbox"/> 2)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
| <input type="checkbox"/> 3) 현장학습 등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 <input type="checkbox"/> 4)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 |
| <input type="checkbox"/> 5) 교사의 솔선수범 | <input type="checkbox"/> 6) 구입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교육 |
| <input type="checkbox"/> 7)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 <input type="checkbox"/> 8) 동·식물 기르기를 통한 인성교육 |
| <input type="checkbox"/> 9)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input type="checkbox"/> 10)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 <input type="checkbox"/> 11) 부모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 <input type="checkbox"/> 12) 기타: _____ |
| <input type="checkbox"/> 13) 없음 또는 모름 | |

9. 다음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덕목입니다. 각각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체 이루어지지 않음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잘 이루어짐	매우 잘 이루어짐
1)	배려	①	②	③	④	⑤
2)	존중	①	②	③	④	⑤
3)	협력	①	②	③	④	⑤
4)	나눔	①	②	③	④	⑤
5)	질서	①	②	③	④	⑤
6)	효	①	②	③	④	⑤

10. 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특별히 장애물이 되거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 |
|--|
| <input type="checkbox"/> 1) 연령 혼합반 운영 |
| <input type="checkbox"/> 2)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경우 |
| <input type="checkbox"/> 3) 가정교육의 약화 |
| <input type="checkbox"/> 4) 부모의 무관심 |
| <input type="checkbox"/> 5) 전문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 부족 |
| <input type="checkbox"/> 6)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상담기관 등) |
| <input type="checkbox"/> 7) 원장님과 교사 간 교육목표의 불일치 |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_____ |
| <input type="checkbox"/> 9) 없음 |

11.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행동지도가 필요한 아이의 경우 지역 연계를 통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1) 있음 |
| <input type="checkbox"/> 2) 없음 |

11-1.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행동지도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지역 연계를 통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 |
|--------------------------------|
| <input type="checkbox"/> 1) 찬성 |
| <input type="checkbox"/> 2) 반대 |

III. 교사에 대한 질문: *가능하면 교사가 직접 응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	매우 중요
1)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식	①	②	③	④	⑤
2)	영유아에 대한 열의	①	②	③	④	⑤
3)	영유아 개인차를 이해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지식	①	②	③	④	⑤
5)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 및 이해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교사 자신의 올바른 인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사로서 인성교육을 위해 어떤 점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가장 적절한 항목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1) 교육계획안 작성 및 수업 준비
 2) 부모와의 연계방안 모색
 3)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모색
 4)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실시
 5) 기본생활습관을 통한 인성교육
 6) 특별히 인성교육에 신경 쓰지 않음
 7) 기타: _____

3. 인성교육을 위해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가장 적절한 항목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1) 사설 기관 발간 자료집
 2)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서적
 3)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인터넷 카페
 4) 미디어 매체 활용
 5) 기관 자체 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6)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발간 자료
 7) 기타: _____
 8) 없음

4. 인성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4-1번으로)
 2) 없다 (5번으로)

4-1. 교육 주최기관은 어디입니까?

(2개 기관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받으셨던, 인성교육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1) 기관 자체 교육
- 2)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 3) 보육정보센터 또는 지자체
- 4) 중앙정부(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 5) 사설 기관
- 6) 기타: _____

4-2. 교육명 및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4-1문항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교육명: _____
- 교육내용: _____

5.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순위로 볼 때 두 가지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
- 2) 부모와의 연계 및 부모의 도움
-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지원체계의 도움
- 4) 기관 자체 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5) 교육·보육 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
- 6) 교육부 및 교육청의 자료 개발 및 배포
- 7) 기타: _____

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영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본생활습관 형성
- 2)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양보
- 3)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 4) 공동체의식
- 5) 나눔 실천
- 6) 질서 및 규칙 지키기
- 7)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 어른에 대한 공경(효)
- 8) 예의 및 예절 갖추기
- 9) 자아존중감 형성
- 10) 기타: _____

7.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3-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44-2 93370

